

2016 하자센터 연차보고서

<목차>

1. Haja Profile

- 1-1. 조직도
- 1-2. 재정 현황

2. 청소년 진로교육

- 2-1.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
- 2-2. 청소년 직업체험캠프 커리어워크
- 2-3. 청소년 전환기캠프 스프링캠프
- 2-4. 청소년 토요일진로학교
- 2-5. 문래중 자유학기제 선택프로그램
- 2-6. 전일제 진로탐색 과정 '커리어데이'
- 2-7. 청소년 창의활동 지원
- 2-8. 청소년 운영위원회
- 2-9. 교육협력사업

3. 하자네트워크학교

- 3-1. 하자네트워크학교
- 3-2. 하자작업장학교
- 3-3. 영세프 스쿨

4. 하자허브

- 4-1. 청소년 플랫폼 '사피엔스의 사회생활'
- 4-2. 허브갤러리
- 4-3. 작은달시장
- 4-4. 나눔부엌
- 4-5. 2016 자공공 아카데미
- 4-6. 하자허브 커뮤니티 카페
- 4-7. 생각하는 청개구리,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5. 내외부 네트워크 & 파트너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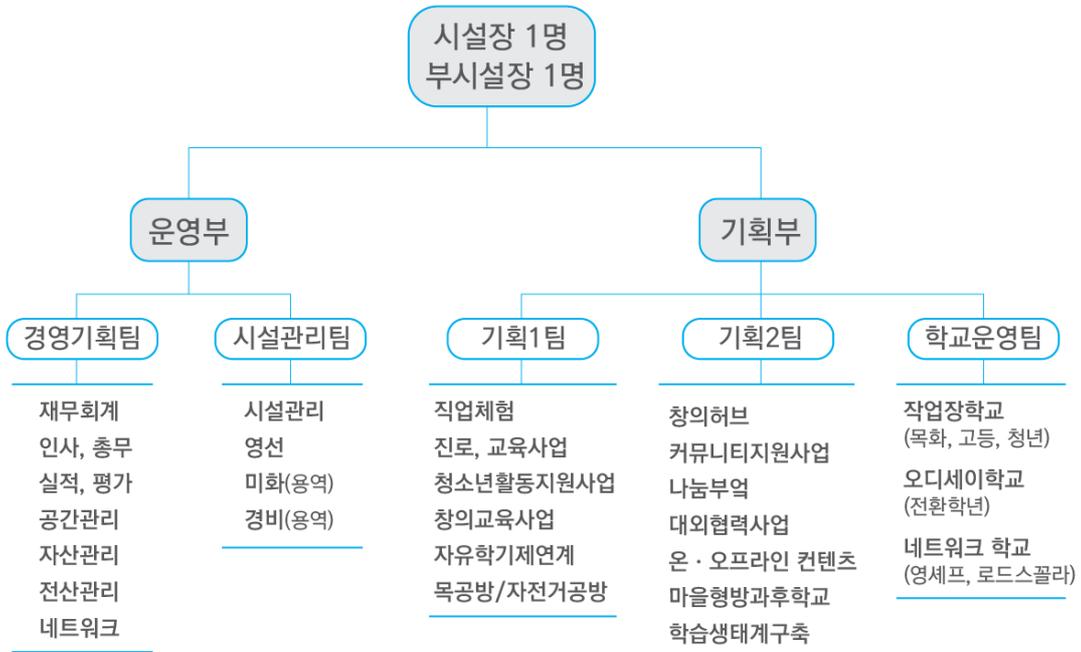
- 5-1. 마을의례
- 5-2. 제8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 5-3. 대외 홍보사업
- 5-4. 하자투어
- 5-5 사회적 돌봄 조성을 위한 문화 허브

1. 하자센터 프로필

1-1. 조직도

1-2. 재정 현황

1-1. 하자센터 조직도



1-2. 하자센터 2016년 재정 현황

하자센터 수입현황(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단위: 천원)

	사업수입	사업외수입	시비보조금	공모·외부지원 사업보조금	총 수입
2016 수입	510,205	1,572,726	1,727,050	294,800	4,104,781
	12%	38%	42%	7%	100%

하자센터 지출현황(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단위: 천원)

항목	내용	금액
인건비	인건비	863,009
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경상이전 등	583,257
시설비	시설유지관리, 기능보강사업 등	113,422
사업비	세부내역	사업비 지출 총액
	청소년 진로교육, 하자 네트워크 학교, 하자 허브 사업 등	1,141,030
사업외지출	예수금, 예치금	216,544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과년도지출 등	148,255
총 지출	<p>총 지출 3,065,517천원</p>	3,065,517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사업 외 지출	예비비 및 기타	총 지출
2016 지출	863,009	583,257	113,422	1,141,030	216,544	148,255	3,065,517
	28%	19%	4%	37%	7%	5%	100%

2. 청소년 진로교육

- 2-1.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
- 2-2. 청소년 창의캠프
- 2-3. 청소년 직업체험캠프 커리어워크
- 2-4. 청소년 전환기캠프 스프링캠프
- 2-5. 청소년 토요일진로학교
- 2-6. 문래중 자유학기제 진로선택 프로그램
- 2-7. 방과후@하자
- 2-8. 청소년 창의활동 지원
- 2-9. 청소년 운영위원회
- 2-10. 교육협력사업

2-1.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

Profile

사업 이름: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

대상: 14~19세 청소년

진행기간: 2016년 1월 1일 ~ 12월 31일

참가방법: 온라인예약사이트에서 신청 / rg.haja.net

참가비 여부: 오전(2시간) 7,000원 / 오후(3시간) 10,000원

장소: 하자센터

총 사업비: 세입 금81,200,000원/ 세출 금88,446,970원

총 참여인원: 7,618명(총연인원 7,618명)

개요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는 청소년기에 가장 고민하는 주제인 '진로'에 대하여 멘토와의 만남과 워크숍을 통하여 탐색해보는 프로젝트이다. 멘토가 들려주는 직업 이야기를 들으며 이후 워크숍을 통하여 직업을 체험해보게 된다. '강의'보다는 '체험'에 비중을 두어 몸으로 익히고 놀면서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탐험하는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는 문화예술분야 중심의 체험형과 작업자와 함께 몸을 쓰고 감각을 익혀보는 작업형으로 나뉘며 20여 가지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다. 2015년은 기존의 프로그램 외에 일회성을 극복하고 체험과 삶의 연결성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성을 기반으로 한 다회차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기획 의도

일일직업체험은 연간 만 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정기적 프로그램으로서 하자센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낮은 문턱으로서 기능하는 강점을 갖추고 있다. 2015년에는 이런 접근성을 활용하여 하자센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진로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중점으로 기획했고 '심화형'이 신설되었다. 심화형은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 현재의 직업도 대부분 사라질 것 이라고 예측하는 불명확한 시대상황을 공감하며 청소년들의 시간을 정보제공의 측면에서의 체험 형태 보다, 진로의 관점에서 '일'에 대한 상상력을 키워나가는 체험을 하는 방향으로 기획되었다.

진행

구분/시간	수	금
체험형 10:30~12:20 (2시간)	①네일아트 ②분장 ③보컬 ④뮤지컬 ⑤그래피티 ⑥스트릿댄스 ⑦마술 ⑧플로리스트	①네일아트 ②분장 ③보컬 ④뮤지컬 ⑤그래피티 ⑥스트릿댄스 ⑦패션디자인 ⑧캘리그래피
작업형 13:30~16:30 (3시간)	①라디오 ②게임만들자 ③영상 ④싱어송라이트 ⑤요리 ⑥천연염색 ⑦춤마임 ⑧친환경문구디자인	①라디오 ②게임하자 ③영상 ④싱어송라이트 ⑤목공 ⑥천연염색 ⑦춤 마임 ⑧친환경문구디자인
심화형 (4회차이상)	①서로를 살리는 디자인 ②스튜디오 뮤지컬 ③목공하자 ④자전거거리사이클링	

1. 체험형	분장하자	분장을 통해 영화 속 캐릭터로 변신하자! 분장만으로 연극과 영화 속 인물을 만들어내는 '분장사'란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캐릭터를 설정하여, 2인 1조로 서로를 변신시킨다.
	보컬하자	공기반 소리반, 감성을 담아 노래하자! 작사, 작곡, 편곡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복식호흡과 발성법을 배운다. 멜로디를 분석하며 노래하는 연습을 통해, 음악으로 감성을 표현하는 보컬리스트가 되어본다.
	그래피티하자	힙합 문화의 꽃, 그래피티하자! 벽화 예술인 그래피티를 기반으로, 공공미술과 디자인을 이해하고 다양한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본 뒤, 야외벽면에 직접 그래피티 실습을 한다.
	손건강 네일리스트하자	건강한 손 관리법을 알아보고 다채로운 색깔들을 손에 입혀보자! 건강한 손을 가꾸는 방법을 배우고 손 마사지를 통해 친구들과 어울리며 네일리스트가 되어본다.
	패션디자인하자	패션 코디네이터가 되어 멋진 스타일을 제안해보자! 패션디자인의 넓은 범위 중에서 개인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패션 코디네이터가 되어보자! 코디해보고 싶은 인물을 정한 다음, 팀을 이뤄 인체 모형인 Body 위에 주어진 원단을 이용, 스타일링한다.
	플로리스트하자	공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꽃 장식을 만들자! 플로리스트란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꽃을 조화롭게 장식해서 테이블을 멋지게 꾸미는 테이블 데코과정을 배워보자!
	마술하자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간단한 마술을 배우자! 실제 마술사들이 펼치는 다양한 마술 영상을 감상하며 마술사란 직업에 대해 알아본 뒤, 강사의 시연에 따라 마술사가 되어보자!
	스트릿댄스하자	신나는 리듬에 맞춰 스트릿댄스하자! 순수무용보다는 즉흥적인 느낌을 풀어내는 것을 중요시하는 스트릿댄스하자! (*흔히 '비보잉'으로 알려져 있지만, 비보잉은 스트릿댄스의 한 장르이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기본 동작들을 중심으로, 비트에 맞춰 춤을 추자!
	캘리그래피하자	손으로 그리는 아름다운 감성문자, 캘리그래피 하자! 기계로 찍어내는 글씨가 아닌 손으로 그리는 아름다운 글자, 캘리그래피를 연

		습하자! 개성있는 표현과 우연성이 중시되는 캘리그래피를 통해 '내 삶의 문장'을 만들어 표현한다.
	뮤지컬하자	뮤지컬 속 주인공이 되어 노래하고 춤추자!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는 뮤지컬의 한 장면을 관람한 뒤, 대본과 악보를 가지고 강사의 지도에 따라 뮤지컬 속 주인공이 되어본다.
2. 작업 형	요리하자	원소스 멀티푸드! 건강한 먹을거리로 요리하자! 우리 땅에서 나오는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여, 건강한 음식을 만들자! 안전한 먹을거리의 중요성과 나누어 먹는 음식의 기쁨을 알게 하는 맛있는 3시간!
	목공하자	자립의 기술을 익히는 목공하자! 목공의 세계에 대한 이해와 기초 연장 다루는 법을 배우고 나무를 활용한 생활용품을 만들자! 손의 감각을 살리는 적정기술을 익히고 재료와 작업에 몰입하면서 일을 대하는 태도를 배운다.
	싱어송라이터 하자	작사·작곡부터 노래까지, 우리의 음악을 만들어 부르자! 작사, 작곡, 편곡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복식호흡과 발성법을 배운다. 팀을 이뤄 가사를 만들고 멜로디를 붙여 공동의 노래를 만들어 부른다.
	라디오하자	우리만의 라디오 방송을 만들자! 라디오 피디와 작가, 디제이가 되어 우리만의 라디오 방송을 만들자! 공동의 대본을 만들어 녹음한 다음, 편집되는 과정을 공유한다.
	영상하자	영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풀어내자! 영상·영화제작 과정과 관련 직업군을 알아보고, 팀별로 스토리보드를 구성, 촬영부터 연출, 출연까지! 다양한 역할을 나누어 영상물을 제작한다.
	친환경 문구디자인하자	폐지류들을 재활용하여 나만의 디자인으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공책을 만들어 보자! 더는 활용할 수 없는 물건일지라도 새로운 발상과 발견을 통해 얼마든지 우리 생활에서 새롭게 쓰일 수 있음을 경험하며, 창작 활동을 통해서 기능을 새롭게 부여해 본다.
	천연염색하자	자연에서 고유의 색을 발견하는 천연염색하자! 천연염색의 기본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자연의 색이 담긴 손수건을 만들자! 다양한 색을 품은 천연재료를 가지고 광목천에 다양한 방법으로 염색한다.
	게임만들자	내가 원하는 게임을 직접 기획·제작하자! 게임에 대한 속성과 다양한 룰(규칙)을 배우고 게임을 직접 제작/홍보하는 과정을 경험하자! 만들어진 게임을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토론한다.
	게임하자	일상속 패턴과 행동들을 통해 게임을 기획하고 놀아보자! 사소한 소품과 단순한 언어, 행동 패턴 등을 통해 보드게임, 단체게임과 같이 오프라인에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 게임기획자가 되어본다.
	춤마임하자	몸을 이용한 놀이를 통해 표현력과 상상력을 끌어내는 춤마임하자! 놀이가 부족한 요즘의 청소년들에게 몸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무대적 장치를 경험하고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표현 욕구를 끌어내 본다.

구분	참가학교			참가단체	총계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	복지관 등	
이용시설(곳)	91	47	3	13	154
이용인원(명)	6,799	658	42	182	7681

다회차 참여	4회: 영원중, 일산동중, 은평고 3회: 덕양중, 무원중, 신남중, 연신중, 염창중, 파평중, 경기여고, 대일관광고 2회: 부천동여중, 고림중, 공향중, 구운중, 금광중, 기안중, 서울사범대부속여자중, 서운중, 양동중, 양구중, 장곡중, 천왕중, 진위중, 통진중, 흥천농업고, 광명특수고, 계양고, 광천제일고, 여강고, 전북여자고, 참좋은고, 천안업성고, 양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림청소년쉼터,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포천상담복지센터, 서울동천학교
면제자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상암고, 심원고, 경기여고, 동작고, 흥천농업고, 광명특수고, 서울동천학교

성과

프로그램: 문화예술 매체 관련 직업을 체험하면서 자신의 흥미와 장점을 발견하고 매체를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일일직업체험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들은 자기 삶을 설계하여 주변과 더불어 살아가는 직업인과의 만나고 그 결과 직업인의 소양과 태도를 배울 수 있게 하였다. 문화 매체를 통해 자신의 상태와 관심 분야 등을 이해하여 향후 직업과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 진로감수성을 고양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또 일일직업체험이라는 하자의 대표 브랜드를 통해 교사와 청소년이 하자에 유입될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통로 역할을 하면서, 후속적으로 교사, 청소년, 학교와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지는 가늠하는 장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일회성 체험형 프로그램으로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작업형(심화형) 직업체험을 오후 시간대에 배치하여 충분한 시간동안 멘토링을 하고 참가자들끼리 협업하며 작업을 하는 실험을 작년에 이어 계속하였다. 또 직업체험이 아닌 진로프로그램으로서의 방향 고민 속에서 진로에 관점을 둔 “경험”이라는 측면에 집중하였다. 그 결과 현재 인기직종이 아니라, 향후 청소년들이 살아갈 삶을 상상하고 새로운 직업군을 발굴해 볼 수 있는 “목공”, “생활자전거”, “친환경문구 디자인”, “라디오(팟캐스트)” 등의 작업형 워크숍 설계를 강화하였다.

올 한 해 동안 알파고 충격이후 진로교육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고, 휴머노이드 vs. 휴먼에 관한 논쟁도 활발했다. 또한 다가올 AI시대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인 청소년 진로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다. 향후 일일직업체험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변화한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 방전방안 모색이 과제이다.

성찰

일일직업체험프로젝트는 매년 연초 사업기획 회의를 통해 재구성하여 1월 홍보, 2월 모집하는 일정으로 진행돼 왔다. 그런데 공교육학교에서는 해당년도 학사일정을 전년도 연말에 확정하기에 하자의 시간표와 맞지 않는다. 그리하여 공교육학교 선생님들은 이미 내년에도 올해와 유사한 포맷과 구성의 일일직업체험프로젝트를 기대하고 있고, 그에 맞게 진행일정과 참가비 등 예산안을 확정해 학운위 등 교내 의사결정구조를 거쳤을 것이다. 만약 내년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가 내년 초 기획회의를 통해 대대적인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내년 공교육 학

교에서는 참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내년 사업기획회의는 2017년도 운영과 2018년도 계획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7년도 상반기 사업평가를 바탕으로 2018년도 사업사업구상을 하여 파트너 학교와 기관에 충분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계획표를 구성하여 진행해야 한다.

전망

자유학기제의 전면적인 시행을 위한 직업·진로체험의 사회 분위기가 마련됨에 따라 학교들이 외부와의 협업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사례들이 많아졌고, 더불어 각종 청소년 정책들의 운영 초점 또한 외부활동과 직업·진로체험으로 설정되었다. 직업체험센터들이 구(區)마다 생긴 것 그리고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꿈길이라는 진로프로그램 정보 모음 사이트도 마련된 것들이 예이다.

당해 연도 직업체험의 성과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자센터만의 진로교육을 담은 프로그램들을 실험하고 그로 인해 얻은 성과들로 학교들의 진로·직업과 관련된 시간을 통해 평일 또는 다회차로 청소년들과 만날 수 있는 통로로서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기존프로그램들을 유동적으로 설계했었던 점과 새로운 콘텐츠를 경험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들은 내년에도 더욱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보인다. 내년에는 더욱 늘어날 요구들을 기회로 부족했던 학생들의 변화에 대한 세세한 기록들을 정리하고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양한 주체들과 논의하며 방향성을 점검하여 각종 정책들에 맞춰 유동적으로 설계될 수 있는 하자의 직업·진로 프로그램들을 정례화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와 유사한 형태의 일일 체험형 직업/진로탐색 과정은 청소년 수련관을 중심으로 공급이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하자센터에서 초창기 선도적으로 구성하였던 직업체험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서울지역의 공교육학교 교사들의 관심이 경기도 및 지역에 비해 저조한 점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 향후 직업체험의 기획/ 운영 등에 있어 시대와 변화된 환경에 부합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리셋'이 필요하다.

대상자 코멘트

소고의 선배들과는 아직 어색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는 어색하고 불편한 것조차 익숙해져버린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소고에 오면 편안한 기분이 든다. 소고에 가지 않고 집에 있는 날은 시간이 매우 느리게만 가는 것 같다. 반대로 소고에 가면 시간이 아주 빨리 간다. 신기하다. 지난 6개월 동안 소고에 출근했던 길, 늦은 시간에 퇴근했던 길, 출근하면 늘 했던 오픈과 청소, 그리고 서로 주고받은 대화, 또 <연금술사 일학교>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져버렸다. 이젠 너무 익숙해져버려서 만약 이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쓸쓸하고 지루한 일상을 살아야 할 것 같아 끔찍하다. 소고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일하는 것이 힘들지만 재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선 먼저 내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More info

- 1) 홍보

2016 일일직업체험이 시작됩니다.

<코리아닷컴>

<http://www.korea.com/?stype=&scate=&sdate=&ssort=&sctype=0&origin=3&PID=&cddtc=&sword=%ED%95%98%EC%9E%90%EC%84%BC%ED%84%B0>

전문적인 진로체험은 어디에서 할까

<대한민국청소년의회>

<http://www.youthassembly.or.kr/niabbs5m/bbs.php?bbstable=mh1&call=read&no=28458>

2016 하자센터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

<아이엠스쿨> <http://i.iamschool.net/articles/view/32447911>

2016 하자센터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 모집 공고

<유스내비>

https://www.youthnavi.net/expinfo/expinfo_view.jsp?jsessionid=6DC78D6F565E1FE5CDE37BF19ACA06DE?pageNo=1&listSize=20&s_ptype=program&uid=122201

2) 영상

결과보고 영상 <https://vimeo.com/8493044>

스케치 영상 <http://vimeo.com/41132300>

2-2. 청소년 직업체험캠프 커리어워크

Profile

사업 이름: 청소년 직업체험캠프 커리어워크

대상: '2016년 특성화고 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 본선 참가학생 및 각 특성화고 학교장 추천 학생 200명

진행기간: 2016년 7월 26일 ~ 7월 29일

참가방법: 학교별 모집 후 메일 신청

참가비 여부: 없음

장소: 하자센터

총 사업비: 50,000,000원(서울시 교육청 사업지원금)

총 참여인원: 실인원 181명(연인원 1,448명)

개요

커리어 워크 (Career Week) 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하고 하자센터가 주관하는 청소년직업체험캠프 <커리어워크>는 201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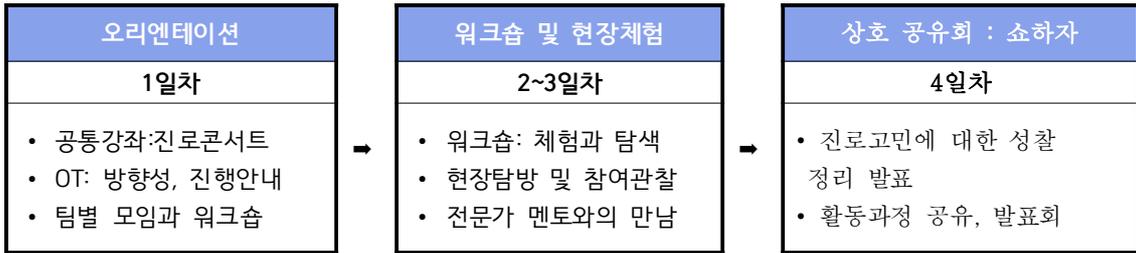
우리가 사는 도시에 숨어있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직업과 일을 찾아 이들의 작업공간에서 함께 일해 보면서 청소년 자신의 진로를 그려볼 수 있는 프로젝트형 캠프입니다.

기획 의도

특성화고교생들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진학을 통해 진로 선택을 하고, 직업을 염두에 두어 첫 번째 전공을 선택하였습니다. 디자인, 경영, 컴퓨터, 영상, 조리 등 각자의 전공과가 그것입니다. 1-2년 후면 청소년들이 '사회'라는 곳에서 '사회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데요. 그 때는 주변과 세상의 기준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못지않게, 자기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주변과 더불어 멋지게 사는 기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점에 주목하여 가까운 미래에 청소년들이 마주하게 될 일과 직업의 현장에서 유용할 삶의 기술이 무엇일지를 고민하였습니다. 창업, IT, 공연, 예술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소셜벤처기업을 일구어 활동하는 10개 팀과 연계하여 4일 간의 진로직업캠프 동안 일경험을 해왔습니다. 동료들 만들고 그들과 즐기면서 일하는 법, 스펙보다는 열정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힘, 과도한 긴장을 풀고 느긋하게 협력하며 살아가는 법, 충분한 돈이 아니어도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직업 현장에서 확인하고 청소년들의 에너지로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진행

1) 진행과정



2) 전공 분야 및 소개

전공	팀	소개
① 기승전 장사학 과	청년 장사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상 모든 것이 장사다! 형,누나들이 미리 겪어보니 세상은 모든 것이 결국엔 장사더라! 장사의 기본을 열정적으로 배워보고 싶은 사람들은 청년장사꾼으로 모이세요! 여기엔 대한민국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교과서에선 배울 수 없는 인생의 실전을 경험해 보고 싶다면 장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지역문화도 살리는 청년장사꾼이 도와주세요! • 관련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 http://blog.naver.com/youngseller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sellourpassion/ - 관련기사 : 원치 않는 길로 끌려가지 마라 내 발로 내 길을 열라든지 갈 수 있어, 청년장사꾼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11/2015011102378.html?csmain
② 놀력 충만학 과	놀공 발전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는 일이 될 수 없다고? 천만의 말씀! PLAY, WHAT WE DO!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놀듯이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놀공과 함께 하세요. '놀이'와 '교육'을 조합해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고, 몸으로 체험하는 '빅게임'을 연구하며 그 가치를 전파합니다. "더놀자 페스티벌", "놀공 클래식" 같은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기도 하고요. 그리하여 2015 커리어워크에서 우리가 할 일은? 노력금지! 놀력충만!! • 관련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 http://nolgong.com/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nolgong/ - 관련기사 : 노력하면 혼나는 회사 '놀공발전소', 다녀볼래요? http://ch.yes24.com/Article/View/24853
③ 생생한 유통학 과	생생농업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사는 힘들기만 할 거란 편견은 버려! 농업은 놀이가 되고, 예술이 되고,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곡식과 채소를 키우는 건 구체적인 노동과 진실된 마음, 그리고 야생을 즐길 줄 아는 호연지기! 노동의 이력과 마음으로 길러낸 농산물/농업에 대해 공부합시다. 정성스런 삶을 담은 농업생산물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진가를 소통하는 시간을 만들어 봐요. • 관련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기사 : 고추·상추·산나물 팔아 세상을 이롭게 하리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4506.html - 관련기사 : 기계처럼 일하다 '깡촌'으로 여기서 사치 좀 하고 삽니다 http://www.ohmynews.com/NWS/WebView.do?PAGE_CD=A000207644&PAGE_CD=ET0008BLK_NO=180VPT_CD=T0000 - 협력기관 '소녀방앗간' http://www.jobnjoy.com/portal/joystory/ggol.q.view.jsp?nick=81149&depth1=2&depth2=2&depth3=2
④	블랭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즘 같은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우리동네 고고학과	(blank)	<p>있을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우리의 행복한 미래는 의외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사는 우리동네!" 오래된 시장과 작은 상점, 버려진 공터와 빈 건물 모두가 우리의 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와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는 '커뮤니티 디자인'!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동네의 숨겨진 이야기와 장소를 발굴하여 일상이 일이 되는 '커뮤니티 디자인'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함께 경험해 보아요. 동네벤처 BLANK의 청년 건축가와 기획자들이 여러분의 꿈을 함께 고민해줄게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자료 - 홈페이지 : http://www.blankin.net/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blankseoul - 관련기사 : [살아나는 마을]청년들의 유쾌한 도전, 동작구 '청년플랫폼'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11211342599380
⑤ 연애 요리학 과	오가니제 이션 요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리와 세상과 연애하는 사람' '요리로 연애하는 사람' '요리도 연애처럼 공부하는 사람' '요리도 연애하듯 달달하게 하는 사람' '요리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면서 요리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사람' 등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가 버무려진 요리하는 사회적기업 오가니제이션요리와 함께 "작업의 정석_연애요리편" 진정한 삶의 기술을 위한 캠프...기쁘지 아니하겠는가! • 관련자료 - 홈페이지 : http://www.orgyori.com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youngchef8 - 관련기사 : 오마이뉴스 인문학과 요리의 만남, 맛있는 청소년대안학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2169
⑥ 은근공 연예 예술학 과	유유자적 살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슈스케, 케이팝스타를 보면 '노오력' 하는 사람들만 무대 위에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혼나고, 반성하고, 자기를 뛰어 넘어야만 스타가 될 수 있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늘 예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예술을 통해 좀 더 자신을 표현할 수는 없을까요? 귀를 찌르는 음향, 커다란 LED 화면, 화려한 조명 없이도, 평소에 노래하고 춤추고 그림 그리고 영상찍던 모두가 함께 모이면 유유자적하게 무대를 준비하고, 그 위에서 멋지게 놀아 볼 수 있습니다. 인디뮤지션들이 모인 사회적기업 유자살롱에서 공연기획의 실재를 경험해 보세요. • 관련자료 - 홈페이지 : http://yoojasalon.net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yoojasalon - 관련기사 : 한겨레21 1048호, "무중력 청소년들은 유유자적하기도 하지" http://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38954.html
⑦ 한땀한 땀 웨딩학 과	대지를 위한 바느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생에 한번 뿐인 결혼식, 그러나 그 단 한번을 위해 버려지는 드레스는 1년에 1,700,000벌! 한땀 한땀 정성으로 친환경 웨딩드레스를, 강당을 근사한 웨딩홀로, 동네 미용실과 메이크업숍에서 꽃단장을, 또 동네 떡집, 만두집, 갈비탕집에서 피로연 파티를! 여러분과 친환경적인 정성으로 동네에서 소박한 작은 결혼식을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웨딩 디렉터를 꿈꾼다면, Would you marry me?! • 관련자료 - 홈페이지 : http://www.ecodress.net/ - 카페 : http://cafe.naver.com/ecowedding - 관련기사 : 한땀 한땀 '에코 웨딩드레스'... 이효리 부부도 고백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42801032127163001

<p>⑧ WORK & LIFE학과</p>	<p>디자인 스튜디오 바톤 (ba-t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 같은 부부와 가족 같은 친구가 모여서 만든 회사로, 그래픽 디자인과 웹개발을 주로 합니다. 밤샘으로 초췌해진 얼굴과 집에서 가족과 밥해 먹어본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IT/디자인 업계는 잊어주세요. 우리 학과에서는 올 겨울, 전문가에게서 전문성 잘 뽑아내는 법을 배우고 디자이너, 개발자, 기획자들을 만나서 실제 그들이 하는 일을 들여다보며 커리어워크가 끝난 뒤에도 생산적이고 행복하게 작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재밌는 일을 벌여볼 예정이에요. 그럼 겨울에 만나요. ‘_’ / • 관련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 http://ba-ton.kr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studiobatton - 관련기사 : 가족과 회사를 차리는 일 http://www.huffingtonpost.kr/hanseong-kim/story_b_5058237.html
<p>⑨ 지구를 부탁해 학과</p>	<p>십년후 연구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앞에 당장, 지금이 아니라 십년 후를 생각합니다. 십년은 질적 변화를 상상할 수 있는 시간, A에서 B가 되는 시간, 애벌레가 매미로 변태하고 산이 강이 되는 시간인데요.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를 맞아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환경 개선에 앞장서 볼 예정입니다, 옥상을 하얗게 칠하는 것만으로 여름철 건물 온도가 낮아져 도시열섬 완화에 기여하게 되는 화이트루프 효과,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생활기술과 이를 직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함께 설계해봅니다. • 관련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hangeul.t - 화이트루프 캠페인 공식 블로그 : http://blog.naver.com/coolrufseoul - 관련기사 : “여러분, 10년 후 뭐 할래요?”..십년후연구소가 말하는 ‘지속 가능한 삶’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23&year=2015&no=752258
<p>⑩ 무아지 경 건축학 과</p>	<p>무아건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렇게 일과 삶은 예술이 된다.’ 건설을 위한 건축이 아니라, 일상과 삶의 현장을 디자인하기 위한 건축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거나 내가 무엇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저 오늘 하루를 온전하고 사는 데 같이 애써볼 겁니다. 도시, 건물, 시설, 디자인, 설치 등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도를 여러분과 같이 해 볼거예요. 그렇게 우리들만의 길을 찾을 겁니다. “길을 찾아 나선 자에게만 그 길은 나를 향해 마주 걸어온다.” • 관련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gwangaedemyungsa/ - 관련기사 : “증명사진, 우리의 진짜 모습일까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55&aid=0000351111 - 관련기사: <Designer's Cut> 4인의 디자이너를 만나다. “예술촌 사는 디자이너들의 사정” http://magazine.nk.com/magazine/041/view.asp?magazine=8&page=3&menuid=52&subid=6526&mainmenuid=2&submenuid=2

성과

커리어워크의 주제는 “두 번째 전공”이었다. 4일 동안 분야별 직업멘토와 또래 청소년들이 만나 함께 대화하고 작업하면서 일에 대한 태도와 협업의 즐거움을 나누고, 진로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가는 것이 목적이었다. 따라서 4일 동안 현장탐방과 멘토와의 만남, 일의 경험이 유기적으로 잘 엮여진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깊고 진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기존에는 총괄기획자가 10개의 팀

을 선별하고, 해당 팀은 일종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면서 외부 멘토를 따로 섭외해서 만나고, 일의 현장과 경험이 분리되어 진행되는 한계를 보였다. 그리하여 올해는 10 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일과 직업에 대한 메시지, 자신들에게 “두 번째 전공”이란 무엇인지를 충분히 고민하여 청소년들에게 진솔하게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미팅을 하였다. 그 결과, 해당 팀이 보다 자신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는 설계가 되었다. 예를 들면, “은근 예술공연학과”의 경우, 그간 팀과 활동했던 인디밴드나 예술가를 멘토로 초대해 청소년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 노래를 만들고, 작은 카페에서 자신들만의 공연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준비했다. “기존에는 대형 기획사나 대중적으로 성공한 음악 스타들을 섭외해야한다는 강박이 있었고, 우리들 스스로도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선한다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의미를 담아서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 웃이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정말 유자살롱이 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편안하게 전할 수 있어서 청소년들의 만족도뿐 아니라 팀 내 만족도도 높다”고 평가하였다.

성찰

4일 간의 캠프를 마친 후 받은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의 참가자가 “기간이 짧아 아쉽다” “속박형이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전했다. 진로직업체험캠프이기에 일과 직업을 대하는 태도와 의미를 현장 중심으로 체험을 하다보니, 참가자들의 몰입도와 집중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심화 인턴십이나 잡쉐도잉(job shadowing)을 진행하기에는 다소 짧은 일정이었다. 그러나 향후 자신이 임하게 될 직업과 일의 세계를 직접 체험한다기 보다, “진로감수성”을 현장에서 익히는 시간으로는 적절한 일정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post캠프 과정이 설계된다면 단계별 설정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보다 깊이 있는 직업세계로의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망

설문분석 결과, 고교생으로 가장 고민하는 진로 부분은 ‘결정 :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확실하지 않다’, ‘수단 : 희망 직업을 갖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각각 26.3%)로 가장 높고, ‘진학 : 취업을 해야 할지 대학에 진학해야 할지 고민이다’(21.2%) 등의 순이었다. 참가자 두 명 중에 한 명(46.8%)은 이전에 직업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넘쳐나는 진로 프로그램에 피로해진 청소년들에게 살아있는 경험과 만남을 제공하는 캠프를 기획해야 한다는 점이 여전한 숙제로 남는다. 소비되는 ‘직업’이 아니라 ‘일’을 통한 경험과 관계를 ‘재생산’할 수 있는 구조, ‘진로’에 대한 정해진 답이 아닌, 진지한 만남과 대화로 답을 만들어가는 캠프가 되어야겠다. 개인의 적성이나 흥미를 넘어서 일의 가치와 비전, 생태적인 측면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기획된다면 진로에 대한 생각의 전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전공으로 배우는 금융, 기계, 전자 등의 이공계 분야 역시 인문학적 성찰을 기반으로 적정기술과 만날 때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창의적 상상을 가능케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커리어 워크를 진행함에 있어 청소년들의 생각하는 “좋아하고 잘 할 것 같은 일”의 영역과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직업군”에 대한 상상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정 설계를 보다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상자 코멘트

“전공이 아니어도 꼭 다른 것을 못하는 건 아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학교에서는 시키고 배우는 것만 하는데 이곳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건축을 도면에 작성해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만들 수 있어 좋았어요”_무아지경 건축학과 참가자 회고 중

“공연이 너무 좋았고, 다른 팀이 너무 고생한 것 같아서 미안하고 또 고마웠어요”

“4일이 길 줄 알았는데, 너무 짧았어요”_은근예술공연학과 참가자 회고 중

“맛이 아니라 맛이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_연애요리학과 참가자 회고 중

“지쳐있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열정 넘치게 (힘내세요!)”_기승전장사학과 참가자 회고 중

“저는 완벽주의자라 조금만 틀려도 다시 시작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와 다른 친구들과 협업하는 것이 불안했어요. 그런데 어쩌면 완벽함이 아니어도 괜찮고 다른 관점으로 보면 또 달리 완벽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기했어요.”

“나에게 두 번째 전공은 ‘의사소통에 대한 핵꿀팁?’인 것 같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일대일로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해보니 괜찮았어요”

“나는 처음부터 BLANK와 같이하고 싶었어요. 나에게 두 번째 전공은 ‘우리동네고고학과’예요. 나도 훗날에 꼭 우리 동네에 동네를 위한 공간을 만들 거예요”_우리동네고고학과 참가자 회고 중

More info

1) 홍보

- 하자센터, 26~29일 특성화고 청소년 대상 대안적 직업체험캠프 ‘커리어워크’ 개최
뉴스와이어 (보도자료)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14782>

2) 영상

- 진로콘서트 <https://vimeo.com/180381503>

- 커리어워크 스케치 <https://vimeo.com/179449544>

- 커리어워크 full (파니환영영상, 진로콘서트 포함) <https://vimeo.com/179457403>

2-3. 2016 스프링캠프

Profile

사업 이름: 2016 열아홉살 스프링캠프

대상: 19세 청소년

2016년 12월 15일(목)~17일(토) / 총 3일

참가방법: 온라인 아카이브 신청

참가비 여부: 무료

장소: 하자센터 및 활동현장총 사업비: 7,237,540원

총 참여인원: 총 31명 / 연인원 86명

개요

성인 시기를 눈앞에 둔 고3 청소년들이 예비 사회인으로서 겪는 심리적 부담과 스펙 경쟁 스트레스에서 눈을 돌려 자기 삶을 스스로 구성할 줄 하는 감성을 길러주는 캠프

기획 의도

그동안 스프링캠프의 기존 운영방식이었던 청년멘토를 만나는 것에서, 청소년들과의 생생한 직접적인 만남을 염두에 두고 판돌들이 전면 배치되면서 스프링캠프의 기획이 시작되었다. 하자센터에서 10대들이 계속 드나들면서 이후 후기청소년으로의 진로설계를 어떻게 해나갈지의 고민으로 시작되었던 캠프 기획은 외부 자원연결의 여지는 약간 남겨둔 채, 3일의 전 일정을 판돌들과의 밀접한 만남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진행되었다. 전체 일정은 '헬게이트'로 입장하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싸우고 협력하면서 헬게이트를 빠져나갈까 라는 아이디어로 출발해, 3일의 일정이 하나의 게임의 세계로 들어오는 듯한 느낌으로 온라인 RPG 게임의 분위기와 배경적 언어를 차용하였다.

참가신청서를 받았지만 지금 청소년들의 현재적 관심사가 무엇일까 궁금해하면서 캠프에 참여하기 직전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를 페이스북에 올려보는 미션을 주자고 했다. 총 20여 명의 청소년이 페이스북에 댓글로 기사들을 달아주었고, 대략의 기사 키워드는 아래와 같다.

수능채점결과 / 촛불집회 100만 / 영화 동주, 일제강점기 / MS오피스 구입논란사태 / 브라질축구팀 전세계 추락 / 김영란법 / 강남역살인사건 / 예술인 블랙리스트 / 촛불시위 / 최순실 / 경주 지진 / 도널드 트럼프 당선 / ㅇㅇ내 성폭력 / 운전면허시험 / 국정교과서 / 도널드 트럼프당선 /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안 / 세월호 / 복지예산증가 / 한일위안부합의 / 한미약품 / AI발생 / 촛불집회 / 국정교과서 / 강남역살인사건 / 박근혜대통령 국정농단 / 삼성 갤럭시 노트7 폭발사건 / 북한 핵실험 / 고백 남기농민 사인 규명 / 최순실 게이트

시기성(국정농단 + 20대로의 진입)에 대한 생각으로 구성된 캠프에서 혹여 관심 없거나, 공부하는 듯한 분위기로 주입식의 캠프가 되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에 캠프 참가자들의 생각을 계속 묻는 작업을 시도하는 차원의 댓글달기였다. 청소년들의 당연관심사였던 주제도 있었고, 정치, 진로, 수능을 비롯 페미니즘과 같은 이슈도 관심사로 들어있다는 것이 신기했으나, '구의역 사고'는 그 누구도 올해의 이슈로 선정하지 않았다. 또 하나, 3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곁에

남아있는 '세월호'는 올해도 아닌 2014년 기사를 2명이나 선정했다.

진행

- ① 첫째날 : 너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 방어력 상승의 날! [지피지기]
- ② 둘째날 :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자! ▶ 협동력 상승의 날 [지략개발]
- ③ 셋째날 : 연대하는 힘을 보여줘! ▶ 행동력 상승의 날 [사기진작]

▶ 프로그램 구성

구분	1일차 / 15일(목)	2일차 / 16일(금)	3일차 / 17일(토)
	방어력 상승의 날 : 지피지기	협동력 상승의 날 : 지략개발	행동력 상승의 날 : 사기진작
09:30-10:00	참가자 등록	헬게이트 입문식	
10:00-12:00	오리엔테이션 <아이스브레이킹>	사회입문 워크숍 <헬조선 게임> 1부	텐트 토크쇼2 <열아홉 토론회>
12:00-13:00	점심식사	점심식사	점심식사
13:00-17:00	10대 돌아보기 <열아홉에게 건네는 인사>	사회입문 워크숍 <헬조선 게임> 2부	열아홉 공동선언문 <스물선언>
17:00-18:00		저녁식사	하자센터 열일곱살 생일파티
18:00-21:00		텐트 토크쇼 <밤에 온 손님>	

활동명	키워드	강사 / 활동팀	주요내용
지피지기1 <아이스브레이킹>	마음열기, 팀워크	하자센터 스태프	캠프 전체 진행 일정 공유 및 각 팀별 팀 워크를 높이는 아이스브레이킹
지피지기2 <열아홉에게 건네는 인사>	공유, 소통	하자센터 스태프	19살 청소년으로서 혼자 풀어야했던 문 제들을 담담하게 꺼내놓는 시간
지략개발1 <헬조선 게임>	사회입문, 게임	하자센터 스태프	대학, 취업, 주거, 투표 등 20대 키워드 들을 중심으로 불평등한 사회구조 안에서 살아남는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보는 롤플 레이팅 게임
지략개발2 <텐트토크쇼 : 밤에 온 손님>	사회입문, 소통	청년 멘토 그룹	헬조선 게임에서 다루어진 다양한 이슈를 함께 풀어줄 청년멘토 그룹을 초대하여 소그룹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사기진작1 <텐트토크쇼2 : 열아홉 토론회>	소통	하자센터 스태프	텐트토크쇼 후속으로, 각 텐트에서 나눴 던 이야기를 회고하며 청소년들의 현재 이슈를 꺼내놓는 시간.
사기진작2 <열아홉 공동선언문 :스물선언>	기획/협력, 자기정리, 공유	하자센터 스태프	청소년을 미래의 주인이라 말하는 사람들 에게 오늘의 주권을 돌려 받기 위한 선전 포고! 열아홉 청소년들이 만들어낸 공동 선언문 <스물선언> 만들기

성과

캠핑 포맷의 변화, 발전 가능성

기존에 몸활동을 중심으로 멘토를 만나고 난 뒤 쇼하자로 마무리를 지었던 익숙했던 포맷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보았다. 캠핑의 후속을 열어두고 풀지 못했던 과제나 못해본 일은 하자로 와서 계속 활동장을 만들어가면서 해볼 수 있도록 매듭을 덜 지은(의도하지 않았으나) 방식이었다. 여전히 올해 스프링캠핑은 시국/정치 얘기를 하는 캠핑인가, 쉬를 주는 캠핑인가로 판돌들의 의견이 분분했고 중심은 전자에 있었으나, 후자의 요소를 조금 들여오기도 했다. 하지만 참가자들 중에 시국에 관심이 좀 덜하거나 정치 이야기만 하다가 간다는 불만섞인 목소리도 설문지를 통하여 발견하면서 이후 캠핑을 기획할 때는 조금 더 면밀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판돌들이 심대의 상황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던 시간

캠핑과 같이 굵직한 현장은 규모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소위 '수탁'의 형태로 판돌이 아닌 하자의 파트너들이 청소년들을 직접 마주하는 주체가 된다. 따라서 판돌들은 간접경험의 형태로 회의를 통하여 파트너의 생각들을 전달하거나, 관찰자의 입장에 있게 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스프링캠핑을 통하여 청소년들을 지근거리에서 바라보고 이들의 발언을 들을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 또한 그간의 캠핑은 몸을 움직이는 '액션' 중심이었다면, 올해 스프링캠핑은 '토론' 가능했던 캠핑이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다. 이제는 운영은 외주로 주고 만나고 대화하고 대면하는 작업을 판돌들이 해야 한다. 기획할 때 소스가 되는 '필드 경험'이 판돌들에게 없기에 감을 잃지 않으려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영역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캠핑의 공동의 언어 '시국', 듣는 것에 익숙했던 청소년들이 말하는 주체로

올해는 특별히 공동의 언어로서의 '시국'이라는 상황이 존재했다. 청소년들이 익숙한 태도는 듣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말을 하도록 하게 한 것이 주요하지 않았을까. 판돌들과 함께 같이 말을 하는 유일한 작업이었기에 후속작업이 더 중요해졌다. 말할 양이 많아지니까 개인이 드러나고 개인으로부터 상상이 가능한 영역이 생겨나서 후속작업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번 시국은 주제와 상황이 잘 결합됐다. #자기 '말'을 하는 청소년들 새롭게 등장한 세대가 아니라, 발견되지 못했던 것이고, 청소년들은 예전부터 말하고 있었고, 판돌들이 들을 기회가 없었다. 직접 소통하는 창구가 늘어나야 한다.

성찰

이 부분은 스프링캠핑의 다른 버전으로 소화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스프링캠핑에 참여하는 청소년들 대부분이 알바를 하고 있고, 이들의 상황에 따른 유동적인 캠핑을 시도해 볼 수는 없을까.

셋째날 캠핑 매듭짓기가 미흡했다. '액션'에 대한 판돌들 사이에서 의견일 분분했거니와 거의 쇼하자의 무게감으로 진행되는 '스물선언'의 임팩트가 약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청소년들이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선언문으로서 그 의미는 충분히 좋았으나, 청소년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의견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시간이 충분히 필요했고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

었던 시간이었다고 회고하는 판들도 있었다. 공동의 의견을 모아냄이 어려운 것임을 몸소 경험했다고 할까. 청소년들이 SNS와 스마트폰에 익숙한만큼 모든 청소년들을 오픈 챗방으로 모았을 때 되려 이야기가 잘 이루어지는 모습은 익숙하면서도 생경했다.

후속모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듯이, 페이스북 계정에 모든 자료들이 다 업로드 된 뒤에 <스물선언>을 마지막으로 게재하면서 후속모임에 대한 제안을 해볼 예정이다. 하자 내의 루트를 본다면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이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동아리 모임이 있을 수 있겠다. 청소년이 어떤 장소를 편한 곳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만큼의 판돌들의 에너지와 시간이 투여되는 일이다. 자공공포럼에서 이야기되는 주제들에 이들이 적극성을 갖고 참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마지막날에 원하는 키워드들을 한 데 모았던 것처럼 너무 늦어지기 전에 후속모임에 대한 구상과 실행을 해야하겠다.

전망

사회적진로,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구체적 비전과 구상 필요

진로는 '개인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분위기와 문화 때문에 청소년 뿐 아니라 진로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늘 혼자이고 외로울 수밖에 없다. 결국 내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좁혀지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시국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자 언어도, 개인적 언어도 아닌 것으로 상정해서 만나 이야기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다. 내년에도 이런 키워드를 잘 잡아서 기획의 방향을 끌어내야 할 것이다. 하자 언어가 사람들과 접점이 없었다는 지적들을 우리가 만날 대상에 집중하면서 그들의 쓰는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사회적인 이슈로 적절한 것을 찾아야할 것이다. 국정농단 사태와 모든 사회적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건데 내 이슈가 아닌 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회 문제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경우 깊은 이야기가 잘 끌어올려질 수 있는 것 같다.

대상자 코멘트

수능 성적이 나오고 얼마 전 추가 합격 전화를 받기까지, 그 16일 중 하자에서의 3일은 제 10대 가장 끔찍했던 순간을 달래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잘 될 거야"라는 말보다 "괜찮을 거야"라는 말이 더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어차피 모두가 잘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원하는 대로 잘 되지 못하더라도 괜찮은 사람이 되었으면 해서요. 제가 원하는 저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위에 서지 못해도 괜찮은 사람이요. 하자에서 함께하는 동안 '괜찮은 사람들'을 만나 용기를 얻었습니다. 열아홉 끝자락에 맞는 작은 행운이었어요.

인천 배다리마을에서 만난 배다리씨 6699님, 보리님, 이야기님은 '남을 이길 능력'보다 '남과 다르게 살 감양'이 있는 분들이셨어요. 세상은 아마 이 분들께게도 저에게도 '남을 이길 능력'을 키우길 원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자신의 길을 선택한 배다리씨들이 참 부러워요. 온화해보이지만 속은 단단한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기 안의 중심이 단단하게 잡혀있으니 남들에게 떠밀리지도 않는 거겠지요. 배다리씨의 눈빛이 아주 초롱초롱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앞으로 풀어나갈 이야기도 많은 분들이셨어요. 그 이야기들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분들이 이어갈 이야기에 저는 또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수능 때문에 유예해왔던 고민들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하자에서의 3일은 제 고민을 명

과하게 해결해줬다고 하기 보단 오히려 고민을 더 없혀주었다는 게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ㅎㅎㅎ 다만 하자를 다녀와서 확실해진 한 가지가 있어요. 고민은 절대 나쁜 게 아니란 거. 오히려 고민 없이 남들이 하라는 대로 사는 삶이 더 불행한 쪽 아닐까요? 고민은 '내'가 주어가 되는 행동입니다.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은 능동적인 사람일거예요. 진심을 다해 삶을 사는 사람일거구요. 그래서 저는 계속 고민부자로 살 계획입니다. 그 고민을 하자에서 함께 나눌 기회가 모쪼록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봐요!

배다리팀 산초

More info

1) 홍보

- [2016. 12. 23] EBS <교육현장 속으로> 우리들의 스물 선언

<http://home.ebs.co.kr/ebsnews/menu2/newsVodView/evening/10612221/H?eduNewsYn=>

- [2016. 11. 18] 아이엠스쿨 - 2016 열아홉살 스프링캠프

<http://l.iamschool.net/articles/view/36262462>

- [2016. 12. 01] 놀토 체험 프로그램으로 다가오는 겨울 미리 준비하자

<http://m.weeklyseoul.net/news/articleView.html?idxno=35228>

2-4. 2016년 청소년 토요일학교

Profile

사업 이름: 2016 청소년 토요일학교 - <세상을 구하는 게임들>, <덕업일치>

대상: 일반 중학교 청소년(13~14세)

※ 프로그램별 주 대상 설정

진행기간: 2016년 10월 22일 ~ 12월 10일

참가방법: 전화 / 이메일 신청

장소: 하자센터

총 사업비: 2,556,560원

총 참여인원: 실인원 56명 (연인원 56명), 총 13회

개요

‘청소년 토요일학교’는 공공의 아젠다와 개인의 관심이 만나는 주제에서 출발하였고, 통합 활동을 통해 짧은 기간이나마 삶의 태도를 고민해보는 프로젝트형 과정으로 설계 되었습니다. 주5일제 수업,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고, 전환학년제 등 청소년 진로교육 정책이 변화해 가며 증가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를 준비하며 2013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사고와 감각이 유연한 중등 연령을 주 대상으로 하여, 대안적 진로 설계에 대한 시도로 기획되었습니다. 각종 검사와 특강, 단순체험을 벗어나 사회적 자원과 연계한 “주제 중심 통합 활동” 을 통해 “이것도 진로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진로교육의 사례를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타자의 아픔과 문제를 공감하면서 세상이 파괴되어 감을 알고, 또 그것이 나/우리의 상황임을 안다면, 나는 어떤 삶의 선택을 하며 일상을 만들지 고민해보자. 작은 행동부터 한 번 시작해보자.”

“진로(삶)에 대한 상상을 해보고, 내 손으로 일상으로 만들어가는 힘을 고민해보자”

프로젝트

공통의 관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기술과 일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스스로 진로설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 또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나를 둘러싼 사회·환경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획 의도

상반기 토요일학교를 진행하면서 청소년들의 관심사와 동떨어진 매체 선정에 문제의식을 갖고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매체인 게임, 요리, 메이크업 등을 선택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두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2017년 자유학기제 모델 개발, 일일직업체험 변형 과정을 시험해보고자 다양한 형태의 토요일학교를 열어 형태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상을 구하는 게임들>은 ‘나’를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보다 넓은 진

로감수성을 이야기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획했다. 게임을 통해 사회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구성하고, 나의 주체적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고 사회를 새롭게 인식해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덕업일치>는 개인적인 취향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나'의 콘텐츠가 되고 직업이 되는 시대상황에 맞게 주말시간을 활용하여 청소년 개인의 관심사 및 흥미로부터 출발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열어둬으로써 청소년들이 믿고 드나들 수 있는 오프라인 취향공동체의 초석을 다지고자 했다.

공통의 관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보다 실질적인 기술과 일에 대한 태도를 배우고 스스로 진로설계 능력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하며 <덕업일치>를 준비했다. 또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나를 둘러싼 사회·환경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나에 대해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세상을 구하는 게임들>을 준비하게 됐다.

진행

구분	날짜	개요	세부내용					
<세상을 구하는 게임들>	인티파다	국제분쟁을 다룬 보드게임 워크숍	* 1일: 세계평화게임(World Peace Game) <세계평화게임>은 미국의 교육자 존 헌터가 만든 대화형 게임이다. 세계평화게임은 주 1회 1시간가량 8~10주에 걸쳐 진행되며, 30여 명의 참가자는 몇 개의 모둠으로 나뉘어 각각 4개 가상 국가들의 내각과 유엔 및 세계은행의 각료, 무기상인 등의 역할을 부여받는다. 게임의 목표는 민족갈등, 석유유출, 기아, 핵확산, 기후변화, 물부족 등이 복잡하게 얽힌 50여 개의 위기상황을 해결하고 각국의 재정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다.					
			<table border="1"> <tr> <td>13:00~13:45</td> <td>아이스브레이킹 및 자기소개</td> </tr> <tr> <td>13:45~14:00</td> <td>게임 워크숍 소개</td> </tr> <tr> <td>14:00~15:00</td> <td>다큐멘터리 <세계 평화와 4학년의 업적> 시청</td> </tr> <tr> <td>15:00~16:00</td> <td>질의응답 및 자유토론</td> </tr> </table>	13:00~13:45	아이스브레이킹 및 자기소개	13:45~14:00	게임 워크숍 소개	14:00~15:00
13:00~13:45	아이스브레이킹 및 자기소개							
13:45~14:00	게임 워크숍 소개							
14:00~15:00	다큐멘터리 <세계 평화와 4학년의 업적> 시청							
15:00~16:0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2일: 인티파다: 팔레스타인에 자유를(Intifada: Free Palestine) <인티파다: 팔레스타인에 자유를>은 3~5인용 보드게임으로 플레이 시간은 약 40분이다. 각 플레이어는 활동가, 구호대, 교육자, 언론인, 게릴라 중 하나의 역할을 맡아 팔레스타인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자원을 모으고 문제를 해결한다. 플레이어들의 행동은 시시각각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의 영향을 받으며, 상황이 고조되어 마침내 파국에 이르면 다 같이 게임에서 패배한다. 경쟁모드와 협력모드					

				<p>중 하나를 선택하여 플레이할 수 있다.</p> <table border="1"> <tr> <td>13:00~13:30</td> <td>아이스브레이킹</td> </tr> <tr> <td>13:30~14:00</td> <td>팔레스타인의 역사와 현재 상황</td> </tr> <tr> <td>14:00~15:00</td> <td><인티파다> 규칙 설명 및 게임 진행</td> </tr> <tr> <td>15:00~16:00</td> <td>질의응답 및 자유토론</td> </tr> </table>	13:00~13:30	아이스브레이킹	13:30~14:00	팔레스타인의 역사와 현재 상황	14:00~15:00	<인티파다> 규칙 설명 및 게임 진행	15:00~16:0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13:00~13:30	아이스브레이킹																											
13:30~14:00	팔레스타인의 역사와 현재 상황																											
14:00~15:00	<인티파다> 규칙 설명 및 게임 진행																											
15:00~16:0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수저게임	<p>1회: 11/05, 12 2회: 11/19, 26</p> <p>*총 2주를 1회로 구성, 각 3회씩 진행.</p>	<p>한국사회를 다룬 보드게임 워크숍</p>	<p>* 게임형 사회인식 진단도구 ‘헬조선게임’ 자신과 또래집단, 자기 세대의 사회적 인식을 진단하고 언어화하며, 이해관계를 모아내어 상황을 조율하고 협의하는 능력을 모의 입법활동 등을 통해 키워갈 수 있도록 한다.</p> <p>1일 : 게임 플레이 (1부)</p> <table border="1"> <tr> <td>13:00~13:20</td> <td>게임 설명</td> </tr> <tr> <td>13:20~14:00</td> <td>게임 캐릭터 설정</td> </tr> <tr> <td>14:00~14:20</td> <td>게임 공략 논의</td> </tr> <tr> <td>14:20~15:20</td> <td>1~4라운드 진행</td> </tr> <tr> <td>15:20~15:30</td> <td>휴식시간</td> </tr> <tr> <td>15:30~16:00</td> <td>5라운드 진행</td> </tr> </table> <p>2일 : 게임 플레이 (2부)</p> <table border="1"> <tr> <td>13:00~13:15</td> <td>아이스브레이킹</td> </tr> <tr> <td>13:15~13:30</td> <td>1부 복기</td> </tr> <tr> <td>13:30~15:00</td> <td>6~9라운드 진행</td> </tr> <tr> <td>15:00~15:10</td> <td>휴식시간</td> </tr> <tr> <td>15:10~15:40</td> <td>10라운드 진행</td> </tr> <tr> <td>15:40~16:00</td> <td>회고</td> </tr> </table>	13:00~13:20	게임 설명	13:20~14:00	게임 캐릭터 설정	14:00~14:20	게임 공략 논의	14:20~15:20	1~4라운드 진행	15:20~15:30	휴식시간	15:30~16:00	5라운드 진행	13:00~13:15	아이스브레이킹	13:15~13:30	1부 복기	13:30~15:00	6~9라운드 진행	15:00~15:10	휴식시간	15:10~15:40	10라운드 진행	15:40~16:00	회고
13:00~13:20	게임 설명																											
13:20~14:00	게임 캐릭터 설정																											
14:00~14:20	게임 공략 논의																											
14:20~15:20	1~4라운드 진행																											
15:20~15:30	휴식시간																											
15:30~16:00	5라운드 진행																											
13:00~13:15	아이스브레이킹																											
13:15~13:30	1부 복기																											
13:30~15:00	6~9라운드 진행																											
15:00~15:10	휴식시간																											
15:10~15:40	10라운드 진행																											
15:40~16:00	회고																											
<덕업일치>	데일리 메이크업	11/05, 12/10	<p>화장품 사용법을 익혀 나에게 맞는 메이크업을 찾아보기</p>	<table border="1"> <tr> <td>들어가기</td> <td>30분</td> <td> <p>메이크업에 대한 PPT 수업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 종류 설명 - 얼굴형에 맞는 메이크업 설명 - 화장품 도구 관리법 </td> </tr> <tr> <td>놀이</td> <td>60분</td> <td> <p>화장품 사용법 및 기법을 설명하고 수강생이 직접 본인 얼굴에 실습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 제품 및 도구에 따른 테크닉 설명 </td> </tr> <tr> <td>나가기</td> <td>30분</td> <td> <p>수업을 통해 메이크업 진행 후 각 개인에 맞는 메이크업 방법 및 수정사항 지도(개인 소지 화장품을 최대한 활용해서) 및 정리</p> </td> </tr> </table>	들어가기	30분	<p>메이크업에 대한 PPT 수업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 종류 설명 - 얼굴형에 맞는 메이크업 설명 - 화장품 도구 관리법 	놀이	60분	<p>화장품 사용법 및 기법을 설명하고 수강생이 직접 본인 얼굴에 실습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 제품 및 도구에 따른 테크닉 설명 	나가기	30분	<p>수업을 통해 메이크업 진행 후 각 개인에 맞는 메이크업 방법 및 수정사항 지도(개인 소지 화장품을 최대한 활용해서) 및 정리</p>															
	들어가기	30분	<p>메이크업에 대한 PPT 수업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 종류 설명 - 얼굴형에 맞는 메이크업 설명 - 화장품 도구 관리법 																									
놀이	60분	<p>화장품 사용법 및 기법을 설명하고 수강생이 직접 본인 얼굴에 실습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 제품 및 도구에 따른 테크닉 설명 																										
나가기	30분	<p>수업을 통해 메이크업 진행 후 각 개인에 맞는 메이크업 방법 및 수정사항 지도(개인 소지 화장품을 최대한 활용해서) 및 정리</p>																										
푸드 테라피	11/12	<p>현재 식습관을 점검하고 다양한 미각교육을</p>	<table border="1"> <tr> <td>동기유발</td> <td>오늘의 활동이 나의 식습관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게 한다.</td> </tr> <tr> <td>전개1</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MI테스트 - 나의 현재 스트레스 지수를 알아본다. </td> </tr> <tr> <td>전개2</td> <td>-어떤 소리지?</td> </tr> </table>	동기유발	오늘의 활동이 나의 식습관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게 한다.	전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MI테스트 - 나의 현재 스트레스 지수를 알아본다. 	전개2	-어떤 소리지?																			
동기유발	오늘의 활동이 나의 식습관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게 한다.																											
전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MI테스트 - 나의 현재 스트레스 지수를 알아본다. 																											
전개2	-어떤 소리지?																											

					-청각을 통한 미각 테스트
			통하여 식습관의 중요성을 알림	전개3	- 현재 우리하는 얼마나 자극적인 맛에 무더졌을까? - 무슨 맛일까 알아맞춰 보기 기본 맛을 느끼는 원리
		전개4		-마음튼튼 푸드테라피 -마음을 튼튼하게 해주는 식습관 알아보기	
		전개6		-과일을 맛있게 먹기 -과일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알아보기 -맛의 대비효과 & 억제효과 -맛의 적응효과	
		전개7		-내 마음을 표현하는 힐링 샌드위치 시연 및 실습 -바나나 요구르트 시연 및 실습	
		마무리		- Quiz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제때에 알맞게 먹어요	

성과

<덕업일치>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적으로 하고 있던 '덕질'을 사회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트랙을 만들고자 했다. '코스메틱 덕후(화장품이나 화장 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나 '요리 덕후'들이 모여 기술적인 학습을 함께하고 거기서 시작된 관계를 이어나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덕업일치>에 참가했던 참가자들에게 그 이후의 트랙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개인들이 모여 모임이 구성되도록, 구성된 모임이 지속적인 활동을 갖도록 지원하는 트랙을 구성해 다양한 청소년들이 본인의 관심사로부터 이어진 활동을 하는 '기지'로서 하자를 활용하기 바란다.

<세상을 구하는 게임들>의 경우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매체를 통해 '나'를 둘러싼 사회를 다루고, 주체성을 지닌 사회적 존재로서의 '나'를 인식할 수 있는 시간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선택이 지니는 무게, 주체적 존재로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 등을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했다. 파코루도의 '인티파다'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라는 생소한 소재에 대해 깊이 있게 알게 되었고, 게임을 진행하면서 본인의 선택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알게 되었다. 작은 선택이 타인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수저게임'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입법'이라는 장치를 활용하여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권력의 도구로 법이 다뤄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성찰

<덕업일치> 기획과 실행의 연결

상반기 <일상을 ○○하자>와 마찬가지로 매체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파트너 강사 의존도

는 높아지고 프로그램을 기획한 판들의 역할은 다소 모호한 형태가 유지됐다. 파트너 강사가 중심에서 프로그램을 이끌었기 때문에 참가자들과 직접 만나 그 과정을 살피고 참가자들에게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들이 확인하기 어려웠다. 기획자로서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보고 있었지만 직접적인 개입은 어려웠으며, 판들이 프로그램 진행에 무관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세상을 구하는 게임들> 무료 프로그램의 한계

타 기관의 무료프로그램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토요일 프로그램은 유료로 진행하면서 참가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결하고자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하였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적은 참가자 수는 위에서 언급한 신청자의 비도덕성 문제가 크게 작용한 결과였다. 해당 문제는 무료 프로그램이라는 특성상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판단이다.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그들의 니즈를 반영한 장치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 자발적 경험이 가능토록 프로젝트 형태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자원봉사 혹은 교육 과정 수료 등의 단계를 두어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루트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덕업일치> 다른 프로그램으로의 연결고리 부재

토요일학교가 입구 프로그램으로 작용하고 오프라인에서 취향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을 기대했던 <덕업일치>의 경우 일일 체험으로서 의미가 있었지만, 그 이후의 연결고리를 제공하지 못했던 점이 미흡한 점으로 남는다. 분절적으로 청소년들이 하자를 방문하고 분절적인 경험으로 하자 공간을 경험하게 되는 프로그램의 특성이 청소년들을 '멤버십'의 단계로 남기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었다. 토요일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시간인지 파악한 후 그에 맞는 과정을 설계하여 하자를 방문한 청소년들이 하자의 '멤버십'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혹은 토요일학교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루트를 설계해야 한다. 경험의 장으로서 토요일학교를 구성하여 능동적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줄 수 있도록 매력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관심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전망

<청소년 토요일 진로학교>는 그 진행방식에 있어서 청소년교육프로젝트의 팀 작업의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사업입니다. 프로젝트 시작 전 공동 모임을 통해 가르치고 배우는 자리에 있는 교육자로서 각각의 정체성 및 방향에 대한 논의를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제의식을 갖고 수의사 등 특별강사 5인과 커뮤니케이션 한 내용을 진행팀(담당자, 제작자, 프로젝트 매니저, 활동가 등)이 함께 공유하였고, 때때마다 이루어지는 평가와 보완이 반영되며 청소년들의 경험과 성과에 좋은 팀워크가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진행팀이 빠르게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고, 클라우드와 카페 등을 통해 자료 공유와 의견 수렴, 공지사항 전달 등 참가자들과의 소통도 유적으로 잘 이루어져 안정적인 운영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통의 경험은 향후 동아리, 커뮤니티 등 주체적인 활동이 가능한 선/후배이자 동료들로 관계 맺어 갈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공동 진행하는 프로젝트로서 강사와 프로젝트 매니저, 활동가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게 되었고, 각각의 역할에서 청소년들을 관찰하는 기준과 질문 등을 정리하고 그로부터 얻은 성찰을 나누며 배움의 공동체가 되는 방식을 시도한 점이 좋았으나 여전히 과제는 많이 남았었습니다. 향후 이를 더 성숙하게

자리 잡아가며 콘텐츠를 완성시켜 가는 것으로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More info

1) 페이스북 게시

<https://www.facebook.com/careerhaja/posts/323203934714659>

<https://www.facebook.com/careerhaja/posts/320536848314701>

2) 문자홍보 - 캠프/지난 기수 토요학교 참가자 700여명에게 문자발송

3) 유스내비 게시

<https://goo.gl/OZi6tj>

<https://goo.gl/rh8CQe>

4) 기타 : 온라인 지역커뮤니티 사이트 게시물 홍보

<http://cafe.naver.com/leaveschooler/42469>

<http://cafe.naver.com/makeboardgame/67598>

<http://cafe.naver.com/jsbios/204089>

<http://cafe.naver.com/jsbios/204090>

<http://cafe.naver.com/prekoreait/8922>

<http://cafe.naver.com/prekoreait/8923>

2-5. 문래중 자유학기제 선택프로그램 <씨앗학교>

Profile

사업 이름: 2016 자유학기제 선택프로그램 연계사업 씨앗학교

대상: 문래중학교 1학년 26명

진행기간: 2016년 8월 ~ 12월

참가방법: 학교 연계

참가비 여부: 무료

장소: 하자센터 외 연계 현장

총 사업비: 11,245,642원

총 참여인원: 연인원 728명 (총 28회)

개요

2016년에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는 중등 과정의 청소년들이 잠시나마 성적 부담, 입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으로 꿈과 끼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시험으로부터의 '자유'를 주는 학기이다. 중등 6학기 중 한 학기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학년이 높아질수록 시험으로부터의 '자유'가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대부분 1학년 2학기를 선택하는 추세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함께한 문래중학교 역시 1학년 2학기를 선택, 운영했다. 시험이 사라진 한 학기동안 학생들 스스로 학습의 필요를 발견하고 자신의 동기와 욕구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는 것이 취지인 만큼 지난해 하자센터 선택 프로그램의 별칭은 '프리(free) school'이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가 끝난 후 학생들은 가중된 성적 압박과 밀려드는 시험 부담으로 더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한 학기동안 시험부 격으로 주어지는 자유는 진로탐색 역량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 채 그저 '한 학기 잘 놀았다'는 씩씩한 자기위로와 더 큰 불안을 남기는 듯도 했다. 해서 올해는 학기제 이후에도 다양한 진로탐색과 자기주도적 학습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배움의 씨앗'이 되는 경험을 기획하는 한편 후속 사업으로서의 '방과후모임'과 '학교 동아리' 등을 병행하였다. 사업명 역시 '프리스쿨'에서 '씨앗학교'로 변경하였다.

진행

1) 일정

2016 씨앗학교 일정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화	목	화	목	화	목	화	목	화	목
	25일 1회		1일 3회	4일 10회	6일 11회	1일 17회	3일 18회		1일 25회
	오리엔테이션								
30일 2회		6일 4회	8일 5회	11일 12회	13일 13회	8일 19회	10일 20회	6일 26회	7일(수) 27회
									최종소하자
		13일 6회	15일 X 추석연휴	18일 14회	20일 15회	15일 21회	17일 X 수능		
				중간소하자					
		20일 7회	22일 8회	25일 X 상제	27일 16회	22일 22회	24일 23회		23(금) 번외
									문래중축제
		27일 9회				29일 24회			

2) 세부내용

학교는 놀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학생들의 생활공간인 학교 공간. 익숙하여 불편함을 못 느끼는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공간을 서치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학교 안의 아지트를 만들어본다. 높은 상상력에 비해 청소년들의 로우테크가 기술력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학교. 테크닉보다는 정말 원하는 것에 충실해 마음대로 만들어보고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서 친구들과 놀이로 만난다. 잘 만들기보다는 잘 사용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학교는 놀이터! ■ 수업구성 : 놀이연구/토론 -> 공간을 기반으로 구상하는 놀이 ->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공간 완성 ■ 결과물 : 1) 문래중학교 2층 알짬휴게실 공간조성 - 낙서칠판, 놀이돔, 테이블과 의자 다수, 갖가지 오브제
버려진 동물을 위한 공생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청소년들의 돌봄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동물. 반려동물 외에 1년에 버려지는 7만 마리의 유기동물. 버려진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통해, 동네에서 길고양이를 돌보거나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중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본다. 유기동물 중, 문래동 동네에 상당히 많은 수로 존재하는 '길고양이'에 초점을 맞춰, 겨울철의 고양이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본다. ■ 수업구성 : 문제발견 - 솔루션 찾기 - 행동하기 - 퍼뜨리기 등 체인지메이커 방식을 활용하면서 사진 등 매체를 통해 길고양이의 습성을 탐색하고 이후 길고양이에게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보는 활동으로 연결. 캣 케어 활동을 해보며, 향후 동아리로 유입할 수 있는 연결 모색. ■ 결과물 : 1) 사진수업을 통한 사진작품 2) 길고양이 스크래쳐 3) 길고양이를 위한 겨울집 완성 - 각 조별 4개씩 총 8채

성과

씨앗학교가 3년차에 접어들면서 문래중학교와 했던 경험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파트너학교를

2군데 늘리는 것으로 수치적 목표를 잡았다. 하지만 상반기에 준비하면서 다른 학교와 관계맺기 자체를 시도하지 못했고, 문래중학교에서 소개해준 대림중학교는 파트너십을 이루고 가보다 학생들을 맡기는 수동적 태도 때문에 학교를 숫자적으로 2개를 늘리는 것보다 현재의 문래중학교 파트너십에 집중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수렴이 되었다. 또한 준비하는 과정 중에 수업의 방향이 바뀌었던 것도 시간을 지체하는 이유가 되었는데, 학교와 상반기 조율 과정에서 교육청에 공모사업 제안서를 넣었고, 학교와 하자의 입장/진행방식/강사와의 의견조율 등 의견을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이 길어진 것도 하나의 이유다.

‘공유’와 ‘함께 살기’를 키워드로 했던 수업의 진행방향은 어느정도 꼴을 갖추며 진행되었다.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결과물보다는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수업으로 삼고자 했던 목표가 강사들과 평가회의를 하면서 발견되었던 지점이 있다. 27회차라는 수업의 긴 호흡은 처음에는 너무 길게 느껴졌다가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변화과정, 라포 형성 등을 지켜보면서 결코 긴 시간이 아님을 알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 수업에서 중요한 것은 ‘주제’보다 주제에 접근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하나의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있어,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학생들에게 패드립, 성적 표현, 통제의 언어, 혐오의 문화가 존재했다. 아프다거나 힘들다고 말하는 횟수가 많고 자주 무기력의 태도를 보였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하는(?) 혹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태도는 종종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의 마찰의 상태로 드러나, 서로를 은근히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이어졌다. 또한 그런 모습을 강사에게 보고함으로써 자신은 그렇지 않음을 피력하고 상대방에게 죄목을 지적하는 모습도 자주 발견되었다. 이것은 이미 학교에서 선생님의 태도를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태도다. 성과 중심의 학생들의 태도는 교사 혹은 강사에게 잘 보이려하거나 상대방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저흰 다 했어요” “왜 재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해요?” “왜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재네는 저래요?” 라는 말들로 이어졌다. 이런 학생들의 태도에서 문화를 이야기하고, 함께 살 공간을 만들고, 공유감각을 말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지점이었다. (이런 학생들의 태도에서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

본래 하자센터 공간 안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당초 목표는 <학교는 놀이터> 프로젝트가 학교 공간의 변화를 염두에 둔 내용으로 수정되었기에 공간의 이동이 불가피했다. 두 가지 프로젝트가 공간적으로 떨어져있었기에 담당자로서 두 가지 프로젝트를 관찰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 이동거리간의 한계상황은 <학교는 놀이터팀>의 강사가 학교에서 벌어지는 프로젝트의 모든 변수를 강사 스스로 책임져야하는 구조로 발전(?)했고, 이를 통해 학교 교사와의 마찰이 빚어졌다. 교사의 통제의 언어가, 되도록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고 학생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하는 강사의 수업방식과 충돌하여,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었고 이에 따라 학교의 현 상황에 대한 이해, 강사의 수업에 대한 존중감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충분한 교사와 강사의 소통이 중요함을 인지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다.

학생들이 지역과 관계맺는 시도로서 의미가 있고 학교에 머물기보다 학교밖 자원과의 연결에서 얻어지는 다른 기운을 주고자 했던 것에 의미가 있다. 버려진동물팀이 강사의 제안으로 급작스럽게 시도했던 달시장 출점은 기대는 미약했고 당일에 아예 안올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났지만 결국 달시장에 출점했던 것이 이들의 동력이 되었다. 달시장을 처음 와본 학생들이 장터의 기운에 흥겨워하고, 달시장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들과 관계맺기를 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피력할 수 있게 되었다. “저희 내년에도 달시장 올거예요”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연결고리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와 같은 시도는 올해 버려진 동물팀의 쇼하자를 허브갤러리에서 마지막 작은달시장에서 열어보는 것의 시도로 이어졌다. 하자에 머물렀던 팀인만큼, 조금 더 이 공간에 대한 애착을 갖고 드나들게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공간의 확장개념이 뜻밖의 수확이다. 학교는 놀이터팀 또한 매년 똑같은 학교의 풍경이 다른 시각으로 들어오고 애착의 공간으로 변화함이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학생들 스스로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은 학교 공간을 통해 발견한 자신들의 주도성, 존중감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계기였다.

전망

토요학교 버전의 자유학기제 모델화: 버려진 동물 프로젝트의 경우, 토요학교의 버전을 실제 자유학기제 모델로 옮겨오는 첫 번째 시도였다. 작년에 진행된 길고양이 프로젝트는 글쓰기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자기 들여다보기에 더 집중이 되었던 반면, 올해 버려진동물 프로젝트는 예년 토요학교 버전을 많이 살렸다. 이를 위해 예년 토요학교 담당판돌과 수차례 사전미팅을 갖고 이전 수업에서 의미 있었던 부분을 살리는 방향으로 했다. 초반에는 토요학교 담당자, 자유학기제 담당자, 버려진동물 담당강사 3인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수업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조금 버거웠다. 결국 주도권은 학생들을 직접 만나는 강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최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되, 수업에서 미진한 부분을 소통해서 조율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이와 같은 수업구성은 학교에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주제와 관련된 사람을 만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감각을 익히고 제작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담당교사가 원하던 바였다. 동기를 갖고 움직였던 토요학교 청소년들과 달리, 친구와의 친분 때문이거나 별다른 동기 없이 모인 자유학기제의 청소년들과의 차이점 등으로 인해 수업 진행면에서 여러모로 보완할 점이 있긴 하지만, 하자센터에서 개발한 콘텐츠가 공교육학교의 커리큘럼으로 안착된 좋은 예라 하겠다. 수업이 마무리 된 후, 스프스뉴스를 통해 청소년들의 활동을 알게 된 의류브랜드 NEPA에서 고가의 점퍼를 선물해주고 싶다는 내용을 접하면서 동물털을 벗겨 만들어내는 이런 점퍼류 생산과정에 대해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실제 내 일상과 연결되어 있는 주제들이 공론화되면 문제의식을 갖고 열띤 토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년도의 커리큘럼은 동네에 있는 길고양이들의 개체수를 직접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 발로 뛰면서 확인하는 과정 속에 흥미와 관심이 생기고 관련된 전문가들을 초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와같이 버려진동물 수업은 몇 차례 공교육 청소년들에게 실험해보는 시도를 해보면서 학교 단위에 적용해볼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전달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More info

1) 기사

- 마음에 불 지른 영등포 소녀들, 스프스뉴스, 2016.11.22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630326636982437&id=1039675682714205

- 고양이 그린 엽서...소녀들의 훈훈한 아이디어, SBS, 2016.11.24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55&aid=0000479>

380

2-6 전일제 진로탐색 과정 '커리어데이'

Profile

사업 이름: 전일제 진로탐색 과정 '커리어데이'
대상: 14세~19세 청소년
참가비: 1인당 18,000원
진행기간: 2016년 6월~12월
장소: 하자센터 각 공용공간
총 사업비: 세입 3,636,000원, 세출 4,160,430원
총 참여인원: 358명(총 연인원 716명)

개요

“있는 직업을 경험하며, 만나게 될 일을 생각한다”

직업을 대표하는 다양한 매체를 가지고 놀며, 친구·멘토와 함께 앞으로 만나게 될 일을 구상해보고 어떤 진로 현장에서든 필요한 태도와 소양을 배우는 전일제 직업체험 프로젝트입니다. 직업 탐색을 위해 단회성 체험을 다양하게 반복하기보다, 오전 체험과 오후 활동이 이어지는 유관한 작업을 하면서 친구와의 협업을 경험하고 지금 청소년들이 직업인이 될 미래의 일터에서 필요한 직업적 소양과 태도를 배워보는 진로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진행

1) 진행과정

시간	소요시간 (분)	내용
10:00~10:30	30분	전체 오리엔테이션 - 상호 인사 및 프로젝트 소개
10:30~12:30	120분	오전체험: 경험이 되는 체험
12:30~13:00	30분	종료 및 휴식 / 점심식사
13:00~15:00	120분	오후활동: 협업으로 채우는 작업
15:00~15:30	30분	종료 및 정리

2) 세부프로그램

선택	워크숍	내용
1	영화/영상 작업을 위한 기초 작업_분장&영상	“나는 ()한 사람이다”라는 문장을 완성하여 분장으로 자기소개를 하며, 자신을 캐릭터화하여 분장하고, 영상으로 촬영하는 시간을 보내며 영화/영상

		작업의 기초를 배우고, 과정 속에서 협업을 경험한다.
2	게임으로 즐기고, 게임을 만들고_게임&게임기획	스토리텔링 기법을 접목시킨 보드게임을 하며, 자신과 친구들의 관심 분야에 대해 이야기하며 게임의 기본기를 익히고, 새로운 형태의 게임영역을 알아보며 자신만의 게임을 기획한다.
3	레시피 북으로 시작되는 요리_친환경문구디자인&요리	버려진 천으로 직조하여 특별한 노트를 만들고, 그 노트를 레시피 북으로 활용하여 집에서도 해 먹을 수 있는 요리를 배우고 기록한다.
4	손글씨로 완성하는 노트 _캘리그래피&친환경문구디자인	개성적인 표현과 우연성이 중시되는 캘리그래피를 배우며, 타고난 재주나 재능이 아니더라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감성을 확인해 노트 속지를 채운다. 그리고 쓸모를 다한 종이들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나만의 노트를 완성한다.
5	나의 10년 후를 방송하다_미래상상&라디오	10년 후의 내 모습을 상상하며 라이프 지도를 만들고, 고민과 계획을 담아 라디오 방송을 만들어 본다.
6	무대 위를 활보하며_댄스&뮤지컬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기본 동작들을 중심으로, 지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춤을 비트 있는 음악에 맞춰 노래하고 춤추자! 스트릿댄스를 통해 몸을 풀고, 뮤지컬을 하며 끼를 발산한다.
7	우리가 만들어 부르는 우리들의 노래_싱어송&보컬	우리들의 이야기를 노랫말로 만들어 작사하고, 노래하는 연습을 통해 음악으로 감성을 표현해 본다.
8	도심 속, 안전한 속도를 찾아서_생활자전거	자동차 중심의 도심 속에서 자전거를 함께 타고 안전하게 라이딩을 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적어 등에 붙이고, 한강 생태공원까지 단체 라이딩을 하면서 서로의 속도와 에너지를 확인한다.
9	버려진 것에 붙여넣은 새 기운 테이블_목공	주변에 버려진 파레트를 채집하여 분해하고 새 기운을 불어 넣어 우리들의 하나 뿐인 테이블(혹은 의자)를 완성한다.
10	손끝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_ 플로리스트&천연염색종이명함	계절에 피어나는 꽃들을 알아보고, 계절 꽃으로 조화롭게 장식해서 꾸미는 들꽃 플로리스트팅을 가지고 자연재료로 만들어진 종이명함을 장식하여 자신을 소개하는 명함을 만들어 본다.

성과

진로교육 집중학년제/ 집중학기제 시행에 따른 직업체험 시수가 중고교에서 확대된 외부 환경 변화¹⁾에 따라 공교육 청소년들의 중등 시기 진로 탐색 과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에 발맞추어

- 1) ('16) 연구학교 37교(초·중교), 시범학교 37교(일반고1), 협력학교 300교(초·중교)
 - ('17) 시범학교 200교(초6·중3·일반고1), 협력학교 700교(초6·중3·일반고1)
 - ('20) 시범학교 1,000교(초6·중3·일반고1), 협력학교 2,000교(초6·중3·일반고1)
- _교육부 보도자료(2016.04.05)

전일제 진로탐색 과정 커리어데이를 시행하였다. 기존의 단회성 직업체험을 다회차로 반복했던 기존 커리어데이 구성의 한계를 극복하여, 체험을 통해 새로운 일을 상상하고 직업인으로서 소양과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전일차의 흐름이 담긴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문화예술 기반의 20여 개 직업군을 선별하여, 온종일 작업하면서 개별 프로그램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작업 과정에서 친구와 같이 힘을 합하여 결과물을 내는 경험을 하도록 숨겨진 교육과정을 넣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이 기존의 직업을 체험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일과 영역을 구상해 볼 수 있는 경험과 여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의 직업과 직장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함께 만들고 하루의 생활을 같이하며 만들어보고 싶은 일터와 일에 대한 시야를 넓히도록 했다. 단일성 단회차 직업체험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복수 영역의 직업군을 만나고, 새로운 일과 직업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창의의 힌트를 찾을 수 있는 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전일의 흐름 속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직업과 진로에 관한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는 계기로서의 의미가 있었다.

성찰

전일제 캠프형 직업체험 형식의 시도였으며 캠프형을 1일 짜리로 구성하는 데 있어 참가학생들의 집중과 몰입에 있어 한계를 확인했다. 오전 오후 체험형의 연계성을 높여 구성하는 것에서 기존 직업체험과 유사성이 컸기에 콘텐츠 면에서 기존 직업체험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지점이 명확했다. 예를 들면 현장 중심의 탐방이나, 하자라는 배움터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마을 학습생태계 등을 경험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인 기획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More info

1) 기사

- 서울시, 4월부터 하자센터의 새로운직업체험 프로그램 '커리어데이' 오픈

http://miraehk.com/news/NewsContent.php?seq=2942&news_id=%C6%F2%BB%FD%B1%B3%C0%B0%BF%F8

- The Science Times : '나만의 꿈' 찾아주는 직업체험

<http://www.sciencetimes.co.kr/?news=%EB%82%98%EB%A7%8C%EC%9D%98-%EA%BF%88-%EC%B0%BE%EC%95%84%EC%A3%BC%EB%8A%94-%EC%A7%81%EC%97%85-%EC%B2%B4%ED%97%98>

- Talent times: 하자센터의 새로운직업체험 프로그램 '커리어데이' 오픈

http://talenttimes.co.kr/news/NewsContent.php?seq=2942&news_id=%C6%F2%BB%FD%B1%B3%C0%B0%BF%F8&sc=&keyword=

- 김포시청: 김포시 청소년 행복나눔 다정다감, 하자센터 커리어데이

http://www.gimpo.go.kr/pm/bbs/WEBZINE/view.do?num=6129&cate_cd=&menu_cd=&pageIndex=9

2-7. 청소년 창의활동지원

Profile

사업 이름: 청소년 창의활동지원

대상: 14~24세 청소년

진행기간: 2016년 1월 1일 ~ 12월 31일

참가방법: 신청서 접수

참가비 여부: 없음(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소정의 활동비 및 공간 지원)

장소: 하자센터

총 사업비: 2,970,090원

총 참여인원: 총 1,145명 (청소년 1089명, 성인 56명)

개요

일일직업체험, 토요학교, 캠프 등을 통해 하자에 유입된 청소년들이 여러 관심주제로 모여 주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전거공방 프로젝트에서 만난 학교단위 자전거 동아리, 커리어워크에서 공동 팀 작업을 하면서 흥미와 활기를 새롭게 찾은 밴드 동아리, 청소년 운영위원회, 오디세이 복고프로그램, 자유학기제 등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발견하고 그 과정으로부터 청소년들이 만들어 가는 커뮤니티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프로젝트실행일	프로젝트명	지출품의서(기안)	집행액
5월21일	별별작업단(놀토엑스포)	청소년직업체험센터-1543	799,670
5월 21일	DJ랩하자	청소년직업체험센터-1619	109,800
11월 10일	소행단 오픈파티	청소년직업체험센터-3200	155,160
12월 10일	미소_미래파티	청소년직업체험센터-3494	214,890
12월 22일	소행단 연말파티	청소년직업체험센터-3499	245,910
10월 22일	서울청소년축제	청소년직업체험센터-2800	360,000
8월 11일	더하자_사전모임	청소년직업체험센터-2738	115,970
12월 23일	더하자_연말대잔치 등	청소년직업체험센터-3510	968,690
총액			2,970,090

진행

일정	활동 내용
1월	청소년 동아리 <DJ하자>, <랩하자> 결성(2014년 계속 활동).

일정	활동 내용
3월	청소년 동아리 <미소> 결성. <랩하자> 일일 워크숍 2회 진행. <미소> 일일 워크숍 4회 진행.
4월	청소년 동아리 <탈핵상영관> 결성. <미소> 일일 워크숍 2회 진행
5월	청소년 동아리 <레인보우> 결성. <탈핵상영관> 탈핵 상영회 8회 진행. <미소> 일일 워크숍 2회 진행. <레인보우> 일일 워크숍 2회 진행. <DJ하자> 일일 워크숍 2회 진행
6월	<미소> 일일 워크숍 1회 진행. <DJ하자, 랩하자> 일일 워크숍 1회 진행.
8월	청소년 동아리 <힘껏밟자!> 결성. <미소> 일일 워크숍 4회 진행. <레인보우> 일일 워크숍 1회 진행.
9월	<미소> 일일 워크숍 2회 진행. <레인보우> 일일 워크숍 2회 진행. <힘껏밟자!> 일일 워크숍 1회 진행.
10월	<미소> 일일 워크숍 1회 진행. <DJ하자> 일일 워크숍 1회 진행. <랩하자> 일일 워크숍 1회 진행. <힘껏밟자!> 일일 워크숍 1회 진행.
12월	<미소> 미소와 함께 송년의 밤 행사 자체진행.

※커뮤니티 활동지원은 시기상 진행되지 못하여, 동아리 활동으로만 진행됨

성과

청소년활동지원은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를 지원한다는 목적 아래 시작되었다. 올해의 성과는, 4개의 자발적 동아리가 새롭게 결성이 되었고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꾸준히 진행되었다. 2014년에 이어서 DJ동아리와 랩하자 동아리가 자발적인 활동을 지속해 나갔고, “혹이심”에 참여한 학생들이 모여서 새롭게 결성되어진 “미소”동아리가 올 초반에 결성되어 다양한 활동이 있었고, 자전거라는 매체를 중심으로 결성되어진 <레인보우>와 <힘껏밟자!> 팀이 자전거 공방을 중심으로 함께 자전거타기, 자전거를 통한 새로운 활동을 고민하는 등 자발적인 다양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 졌다. 또 현재 하자센터 작업장 학교에 진학중인 학생들이 탈핵을 이슈로 <탈핵상영관> 팀을 결성하여 탈핵과 기후 변화의 이슈로 다양한 상영회 및 세미나를 하는 등 각 동아리의 관심 분야와 성격이 잘 드러나는 활동들이 진행되었다.

전망

올해는 기존 활동하던 동아리를 포함해 총6개의 동아리가 활동을 하였다. 각 동아리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활동을 벌였고 또 각 동아리별 관심사가 뚜렷했던 점들은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몇몇 동아리는 하자와의 접점이 잘 발견되지 않았고 주 활동이 주말에 이루어지면서 공간의 활용이나 자원 활용에서 원활하지 못한 점들이 있었다. 동아리로 등록이 된 팀들이 하자의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매뉴얼, 주말이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더불어 내년에는 일일직업체험, 토요학교, 진로캠프 등으로 하자와의 인연을 맺은 청소년들이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청소년 멤버십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More info

1) 뉴스레터

- 소행단 오픈파티 : <http://www.haja.net/?p=15595>
- 별별작업단 _ 쿨루프 프로젝트 : <http://www.haja.net/?p=14753>
- 동아리 프로젝트 소개 _ <http://www.haja.net/?p=13632>

2-8. 청소년운영위원회

Profile

사업 이름: 청소년운영위원회
대상: 14~19세 청소년
진행기간: 2016년 2월 ~ 12월
참가방법: 온라인 신청
장소: 하자센터
총 사업비: 1,559,910원
총 참여인원: 총 16명 / 연인원 208명 (총 31회)

개요

하자센터에서 배움의 과정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하자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와 모니터링,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청소년 참여 및 의견 반영, 시설 및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책임 역할 수행, 청소년 인권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센터로서 기능하게 하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여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센터의 기능을 하도록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

1	전년도 시유공 멤버 2명의 연임
2	커리어워크, 스프링캠프, 토요일학교 등 하자활동경험 청소년 7명
3	위 경험을 한 친구로, 친구 따라온 청소년 2명
4	하자의 네트워크스쿨 경험 청소년(유자살롱, 영세프스쿨) 2명
5	하자를 더 알고 싶어서 온 청년 2명
6	하자 결의 다른 활동 장(오디세이학교)에서 온 청소년 1명

- 10대 13명(76%) / 20대 4명(24%)
- 10대들로만 구성되었던 지난해의 경험으로, 20대가 함께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우려가 있었으나(20대가 주도하게 되는 판이 될까싶어), 잘 어울리며 진행되었다. 다만 하자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이에 대한 호칭의 문제가 발생했고, '언니' 등의 호칭으로 나이차에 대해 인식하면서, 선후배 관계로 굳어져버리는 상황이 생겼고,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진행함에 있어 20대의 의견에 좀 더 집중했던 경우도 있었음.

기획 의도

매년 청소년활동의 참가자는 증가되었지만 단회적인 프로그램 위주가 많아서 지속적인 활동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또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소통창고도 부족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에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기회가 적었음. 이를 극복하고자

꾸준하게 하자센터의 청소년 프로그램에 애정을 가지고 참여했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내함. 운영위원회 선발 이후에는 SNS등을 통해서 평소에 소통하고 월 최소1~2회 정도의 정기모임을 진행하며 활동의 리듬과 멤버십 형성을 위한 기획을 준비함.

진행

<p>하자와 친해지기</p>	<p>3~4월</p>	<p>하자와 친숙해지는 시기로 각종 하자마을 의례와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고, 참여 계기를 통해 이들의 생각을 글로 써보거나 소회를 들어보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의미 있는 지점을 발췌하여 뉴스레터에 삽입하여 발송하기도 했다.</p> <p>일일직업체험 목공/미래상상, 토요일 요리하자 프로젝트로의 참여는 성공적이었다고 보고, 일반참여가 아닌 '청소년운영위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피드백은 청소년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장이었고, 피드백 또한 적절하고 유의미했다.</p>
<p>기획된 판에 참여하기</p>	<p>5~6월</p>	<p>-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6월까지의 활동으로 보면 '기획된 판에 참여'하는 것까지 진행되어 왔다고 본다. 오리엔테이션에서 1년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바로 실행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 하자에서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놀토엑스포를 기점으로 기존에 판들이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십년후연구소와의 작업을 판갈기로 시작했다.</p> <p>- 놀토엑스포에 참여하면서 두 팀으로 나뉘어 다른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 시유공 멤버들이 프로젝트를 꾸려가는 구성력과 활동성은 아직 미약하다고 여겨졌다. 청소년운영위원장과 총무, 부위원장 등 '직함'을 달아주는데서 소외받는 다른 멤버들을 위해 하나의 활동을 구성할 때 '분과위원장'이라는 명목으로 자발적/타발적으로 선임된 멤버들이 활동을 끝어가면서 느끼는 피로감과 소외감 등이 활동을 통해 드러났고, 활동에 대한 피로감으로 연결되기도 했다.</p>
	<p>7월</p>	<p>- <쿨루프 프로젝트>는 놀토엑스포에서 전시와 체험 형태로 진행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나 십년후연구소에서 제안해준 '학교에서의 진짜 실행'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있어, 실제 학생들이 학교에 제안하고 하자에서는 뒤를 밀어주는 형식으로의 판도 생각해보았다. 하지만 학생들의 제안 시기와 하자의 보완(공문을 보내고 학교를 설득시키는 방식)의 시기가 뜨면서 학생들의 흥미도도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학생들의 자발적 사회참여로 이어지기를 바랐던 판들의 생각은 학교의 상황과 제안한 특성화청소년들의 현재 상황(이런 활동이 청소년들이 대학을 갈 때의 가산점으로 부여되거나 하는 방식)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지점을 확인했다.</p> <p>-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 대한 인식 등 가장 낮은 단계에서 청소년들이 해보식한 프로젝트로서 쿨루프 프로젝트는 여러 면에서 시도는 적절했다고 본다. 하지만 이에 대한 스스로의 자발적 학습과 토론 등이 이어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 다양한 활동으로 참여하면서 이 프로젝트에 전적으로 깊이 있는 고민과 생각이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p>
<p>중간 점검</p>	<p>8월</p>	<p>- 상반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몇 차례의 활동평가가 이어지면서 하반기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냈다. 평가에 대한 부분은 엠티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되길 기대하면서 8월 엠티를 계획했다. 내부적으로는 커리어워크를 진행하면서 바빴던 시기였기도해서, 커리어워크가 끝난 바로 다음 주에 진행된 이 엠</p>

<p>하자와 친해지기</p>	<p>3~4월</p>	<p>하자와 친숙해지는 시기로 각종 하자마을 의례와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고, 참여 계기를 통해 이들의 생각을 글로 써보거나 소회를 들어보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의미 있는 지점을 발췌하여 뉴스레터에 삽입하여 발신하기도 했다.</p> <p>일일직업체험 목공/미래상상, 토요일학교 요리하자 프로젝트로의 참여는 성공적이었다고 보고, 일반참여가 아닌 '청소년운영위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피드백은 청소년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장이었고, 피드백 또한 적절하고 유의미했다.</p>
		<p>티에 많은 신경을 쓰지 못했다. 폭염과 변수(수영장 입장불가, 판돌 다리부상)가 이어지면서 엠티에 많은 기대를 걸고 온 멤버들의 실망감이 드러났는데, 이날의 위기감이 전환되었던 순간은 시유공 멤버들의 책임감이 동일한 무게로 주어졌던 순간이었다. 비록 목표에 두었던 상반기 활동평가는 전혀 하지 못했지만, 평가보다 더 중요했던 이들끼리의 멤버십을 공고히 하는데는 중요한 날이었다고 생각된다.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친밀감 없이 진행되는 것에 있어 서로 부담을 느끼고 있었기에 서로를 알아가고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했다고 생각된다. 엠티를 전후로 시유공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는 멤버와 연락조차 되지 않는 멤버가 생겨나면서 시유공의 중심멤버가 결정되었다.</p>
<p>스스로 판을 기획해보기</p>	<p>9월</p>	<p>엠티 이후에 이어진 9월 옥천 청소년들과의 만남은 청소년운영위원회로서 활동을 조직하고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다. 청소년들이 준비한 관계맺기의 시간은 판돌들이 구성하기보다 시유공의 이야기를 끌어가는 힘이 잘 보여졌고, 전체 판을 준비하는 구성 외에 각 멤버들이 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환대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게 보여졌던 부분이었다. 꼬박 하루의 일정 속에 시유공 멤버들은 옥천 청소년들을 환대했고, 그 과정에서 하자에 대한 호감도도 상승했다고 본다.</p>
	<p>10월</p>	<p>- 이 시간 이후에 이어진 서밋의 준비과정은, 그동안 활동하면서 보여졌던 시유공 멤버들 각자의 장점이 있었기에 역할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참고할만한 자료가 되었다. 판돌들이 구성한 판에 청소년들이 점차 그림을 완성해가는 모습이었다. 몇몇의 멤버들은 <이행은 비행>에서 청소년 발표자로, 디자인과 글에 소질이 있었던 몇 사람은 포스터와 초대글을 써보는 것으로, 다른 멤버들은 운영을 맡아서 진행했다. 비록 이 판이 기획되고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참여부분이 많지는 않았으나, 전체 서밋의 판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청소년운영위원'으로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책임감과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된다.</p>
	<p>11월</p>	<p>- 엠티 이후 하반기 활동의 그림은 어느정도 청소년들이 기획하는 판으로 점차 옮겨져갔다. 서밋 이후 마지막 12월 활동은 기획부터 실행까지 모두 시유공이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들끼리 회의했던 11월 8일 정기모임에서는 그동안의 멤버십이 쌓인 결과물로 그 어느때보다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고 진행과정에 대한 그림을 그려갔다. 작년에 이어 <특하자 시즌2>가 준비되었고 작년과 같은 포맷이 아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방향으로 <밥 한 끼 하자>를 기획하고 진행하였다.</p> <p>- 하지만 결국 기획의 구심을 담당할 2명의 멤버 외에 다른 멤버들은 참여가 저조했고, 그에 따른 준비한 멤버들의 실망감과 허탈함이 남았다. 1년의 활동이 끝나가면서 점차 힘이 빠져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시간이었다.</p>
	<p>12월</p>	<p>- 3번의 준비과정과 회의를 거쳐 <밥 한 끼 하자>가 진행되었고, 총 4명의 청소년이 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청소년운영위원회 스스로 준비한 기획활동에 힘을 실어주었다. 밤잠을 설치가며 준비했다는 청운위 멤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p>

<p>하자와 친해지기</p>	<p>3~4월</p>	<p>하자와 친숙해지는 시기로 각종 하자마을 의례와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고, 참여 계기를 통해 이들의 생각을 글로 써보거나 소회를 들어보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의미 있는 지점을 발췌하여 뉴스레터에 삽입하여 발신하기도 했다.</p> <p>일일직업체험 목공/미래상상, 토요일학교 요리하자 프로젝트로의 참여는 성공적이었다고 보고, 일반참여가 아닌 '청소년운영위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피드백은 청소년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장이었고, 피드백 또한 적절하고 유의미했다.</p>
		<p>서, 책임과 역할이 주어질 때 청소년들의 동력은 어디로부터 발현되는가를 볼 수 있었던 자리였다. 청소년들이 뽑은 버킷리스트 주제, 먹고싶은 요리에 대한 의견으로부터 실제 만들어먹는 것까지 활동으로 진행하면서 확인했던 지점은 청소년들이 실제 청소년기관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다는 것과 이런 자리가 생긴다면 시간을 빼서라도 오고싶다는 피드백이었는데 청소년들의 욕구(?)는 아무래도 참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 <p>- 다분히 '프로그래밍화(?)'된 프로그램이 아닌, 청소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또래청소년들과 함께 이야기로 풀어내는 이런 활동기획이 유효할까에 대한 질문이 생겼다. 청년이나 하자의 활동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교육기획'을 해보면서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고 이런 가능한 판을 실험해보는 것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p>

성과

- 청소년 멤버십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지난해 운영되었던 성과 즉, 운영위원회로서 1년의 활동이 가능하다는 확장성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작되었다. 프로그램 운영방식으로 진행되던 기존의 사업과는 다른, 멤버십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프로젝트였기에 동아리의 형태를 가져가면서도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이 주는 묵직함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청소년멤버십에 관한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하자에서 이야기되었으나,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할지 알 수 없던 차에 청소년운영위원회로부터 촉발되는 멤버십의 구성은 '하자의 단골' 청소년그룹이자, 멤버십 이상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했다. 물론 작년의 활동성이 올해의 기대감을 가능케 했다. 1년의 활동에서 하자를 드나드는 끈끈한 청소년 멤버십으로 만들어보자는 것이 당초 목표였고, 스프링캠프와 커리어워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지원자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30명 이상이 모일 경우, 유닛 활동으로의 가능성도 이야기하며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이 벌어지는 동아리화도 염두에 두었으나 모인 인원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가능케 하는 딱 그만큼의 적절한 소그룹 16명이었다.

- 멤버십으로서의 활동성 : 1년의 활동을 이어가는 동력 발견

작년에 이어 올해도 1년 활동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진행된 이유의 첫 번째는, 하자에 대한 경험이 있었던 멤버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면서 하자센터에 대한 기대감의 작

동이 컸다고 본다. 또한 운영위 초반 오리엔테이션에서 정기회의 날짜를 정하고, 이 날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갔던 것도 동력을 촉발하는데 적절한 방식이었다고 본다. 청소년운영위원회로서 고유의 활동인 정기회의, 모니터링, 하자운영에 대한 의견반영 등이 활동 곳곳에 녹여지면서 초반 이들이 하고자했던 활동은 거의 대부분 진행이 된 셈이다.

성찰

하자에 앞으로도 계속 드나들 청소년과 그렇지 않을 청소년그룹이 나뉘어졌다는 점이다. 멤버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계기는 이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판을 벌여보도록 하는데 있다. 이런 제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블랙홀, 토마토, 보나 같은 중심이 되는 청소년들이 있었고, 파릇, 시원, 보라, 다운, 전또처럼 본인의 특별한 장점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뒤에서 서포트하며 모임이 잘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의 그룹이 있었다. 작년의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청소년 스스로 배움의 주체가 되었을 때 활동의 묘미를 느끼고 '이곳에 계속 오고싶다'는 느낌을 받거나 활동의 동력이 생긴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활동을 이어온 블랙홀과 윤지의 경우가 그렇다. 활동이 두드러진 토마토의 경우 자신의 흥미와 관심도를 끊임없이 표현하며,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까지 했던 경우는 멤버십 중에서도 아주 단단한 멤버십이 되었다. 토마토 스스로 올해 1년의 하자 활동을 기록해볼 때 상당한 활동력이 기록될 수 있다고 본다. 하반기가 되면서 서로의 활동에 초대하고(보나의 소행단 공연), 광화문집회에 함께 가기도 하는 등, 청운위 이외의 활동에도 참여하는 청소년이 생겨났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아쉬운 점은 활동중심으로 계속 꾸려지다보니, 활동에서 소외되거나 이탈된 멤버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함께 해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놀토엑스포 이후 모습이 보이지 않는 멤버들에 대해 그들이 오지 않는다는 서운함이 아닌 멤버십으로서 어떻게 이들을 오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빠져있어 아쉬운 점이 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활동 구성력은 있으나, 바쁜 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활동을 구성하는 조직력은 조금 미흡하다.

전망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단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진 청소년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앞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본다. 하지만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는 기존의 운영위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모집과정을 총괄을 하면서 예비 운영위원들에게도 적당한 긴장감과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는 과정, 잦은 회의와 하반기 진로선택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는 년 초의 집중 워크숍을 통해서 1년 사업을 미리 정하고 선택과 집중의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 중인 협력기관(하이서울유스호스텔, 아하성문화센터)시작한 교류활동을 이어가며 새로운 시너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갈무리 하

고 일반 청소년들에게도 계속 알리는 홍보활동이 병행이 될 때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활동의 폭과 참여의 기회가 확장되리라 본다.

More info

1) 기사

- 배움·나눔·교류·활동의 장, 모두 갖춘 하자센터, 옥천신문

<http://www.ok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113>

- 청소년 진로교육 넘어 즐거운 마을 공동체를 꿈꾼다, 옥천신문

<http://www.ok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112>

2-9. 교육협력사업

Profile

사업 이름: 교육협력사업
 대상: 14~19세 청소년 및 학교, 단체, 공공기관 등 협력이 필요한 주체들
 진행기간: 2016년 1월 ~ 12월
 참가방법: 학교 및 기관간 협의의 과정을 거쳐 진행
 참가비 여부: 대상별 상이
 장소: 하자센터 및 활동현장
 총 사업비: 110,000원
 총 참여인원: 307명 (연인원 746명)

개요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의식, 정책 등 청소년 현안에 대한 과제를 풀고자 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요청이 있어왔다. 시기와 협력주체들의 대상과 시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필요시기에 대상에 따라 유연하게 활동을 기획해야했다. 이와 같은 교육협력은 내부적으로는 우리의 단골파트너를 만들어가는 작업이기도 하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청소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주체	프로그램	내용/비고
경기문화재단	커리어데이	실제 직업인들의 작업을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형태로 만들어 활동함
마송고등학교	자전거리사이클링	1학기: 주변에서 쉽게 버려지는 물건들로 새로운 쓸모만 들기
	인형극 워크숍	2학기: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청소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공연을 만들어가면서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고 사회성을 기르며 성숙하도록 돕는다.
계성고등학교	일상목공&요리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끝나지 않도록 각 체험마다 연결성을 갖춘 프로그램을 제공
오류중학교	목공하자	서서 공부하는 교실용 책상, 친구와 대화하고 싶은 벤치 등 손과 몸을 써보는 활동을 통해 배움의 동기를 회복
수명초등학교	창업진로체험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진로체험활동을 넘어 실제 일을 만들어낸 사람들과 만남과 동시에 체험을 결합한 활동
사회적기업 '청밀'	알찬밥상 Class	단체시설에서 독립하여 사회에 나오기 전 단계인 장애 청소년들에게 생활기술로서의 요리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학교	대상별 진로프로그램	하자센터 네트워크학교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욕구 또는 공동으로 필요한 작업을 교육기획팀과 함께 진행하고 연결점을 찾는 활동

성과

파트너십 형성의 역할(교사연수로의 확장) -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와의 파트너십 형성과 그 방법으로 교사연수까지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성과의 원인은 공교육의 정책과 맞물린 맞춤형 사업들이 진행된 결과라고 보인다. 교육협력사업의 유연한 운영은 '자유학기제'나 '대안교실' 등 그 목적이 나뉠 수 있는 사업들과 연계되어 프로그램화 되어질 때 학교 측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들이 나타났고 선생님들과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는 구조로써 발전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창의서밋이라는 하자센터의 연간 흐름들을 나타내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행사에 포럼의 형태로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했다. 내년 사업에서는 위와 같이 얻어낸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연수를 적극적으로 사업화해야 하고, 더불어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의 문제들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와 다양한 논의 주체들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의 전제된 논의 자리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업 유연성 - 직업체험이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여러 사업들은 청소년들의 욕구가 프로그램과 일치하지 않을 때 또는 모집이 이루어지기 힘들 때 등 여러 가지 변수들에 휘청거리고 진행되기가 어려웠던 지점들이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교육협력사업은 동기가 부족해 적극적이지 못한 청소년들과 수업 진행에 얽매이지 않고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면서 신뢰감과 어색함을 날릴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판돌들이 직접 진행하면서 청소년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며 그 생각들을 확인하는 기회로써 작용하기도 했다,

성찰

중장기적인 호흡을 통해 청소년들과 직접적이고 깊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로 진행되는 기대가 있었지만 다소 아쉬운 점을 남겼다. 사업은 주로 '대안교실'의 청소년들이었는데 밀접한 관계로서 멤버십을 마련하기에는 많은 준비들이 더 필요했다. 대안교실 청소년들의 특성은 구체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거나 적극적이기보다는 배움이라는 것에 동기를 잃어버렸거나 의욕적이지 못한 상태였고 판돌들은 어떻게 이러한 청소년들을 대해야하는지 방법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또한 교육기획팀의 판돌들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청소년들을 만날지 주고 싶은 경험이나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립해야 한다.

전망

지난 해 공교육학교의 지속적 협력요청으로, 진로 프로그램으로 만났던 협력의 주체들이 있었다. 대안교실이나 희망교실 등 학교 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의 위기상황에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일들로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주체로서 하자센터의 협력을 요청한 것이었는데, 내년에는 이런 주체들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학교 현장과의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교실 안에서 활기를 잃어가는 청소년들, 지식교과 중심의 공부 외에는 다른 진로는 인정하지 않는 현실에서 다양한 진로의 루트를 만들고 감각을 깨우는 일이 만들어져야한다는 생각이다. 지역사회 안에서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지점을 찾고, 교실 안의 생생한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학교와 함께 발맞춰 가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3. 하자네트워크학교

3-1. 하자네트워크학교

3-2. 하자작업장학교

3-3. 영세프 스쿨

3-4. 연금술사 일학교

3-1. 2016 하자네트워크학교

Profile

사업 이름: 네트워크학교

대상: 네트워크학교 재학생 (하자작업장학교, 영세프스쿨, 로드스꼴라, 집밖에서 유유자적 프로젝트, 연금술사)

진행기간: 2016년 1월 1일 ~ 12월 31일

참가방법: 각 학교별 입학전형에 따름

참가비 여부: 학 학교별 수업료에 따름

장소: 하자센터 외

총 사업비: 7,646,590원

총 참여인원: 1,292명 (연인원)

개요

하자네트워크학교는 학교이기도 하고, 학교가 아니기도 한 학교들이 모여 있다. 기존 제도 안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다양하고 독창적이며 공동체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학교들이 하자센터라는 '일시적 자율공간'에서 함께 공동의 기억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공공의 감각, 생태적 전환을 공유하며 종종 엮히고설켜 지내고 있다.

탈학교 10대중심의 작업자와 시민활동가를 길러내는 하자작업장학교, 여행을 다니며 현장 속의 인문학을 몸소 배우는 로드스꼴라, 요리를 통해 꿈과 자립을 실현하는 영세프스쿨. 10대 후반 자립의 시기가 오면 대면하게 되는 생존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풀어가는 연금술사학교, 음악으로 무중력 청소년들과 만나는 유자살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학교이다.

기획 의도

개별학교를 넘어서 하자마을이 지향하고 있는 '창의적 공유지대'안에서 배움의 공통성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2013년부터 네트워크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하자마을에는 이렇게 지속적인 삶, 정보와 자원의 공유, 글로벌 시민으로 함께 살기 같은 하자마을의 가치를 함께하는 네트워크학교들이 서로 배우고, 서로 성장하는 과정을 엮어 나가는 네트워크학교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진행

프로그램명		부제	일시	장소	프로그램 내용
마스터 클래스	마스터 클래스-즉흥 춤수업	#5	2월8일~2월 17일)	999클럽	춤 매개로 몸을 알고 타인과의 관계를 풀어가며 자신의 지점을 확인하게 되는 즉흥춤수업.
	마스터 클래스-즉흥 춤수업	#6	7월 13일~7월 22일	999클럽	춤 매개로 몸을 알고 타인과의 관계를 풀어가며 자신의 지점을 확인하게 되는 즉흥춤수업.

프로그램명		부제	일시	장소	프로그램 내용
기 역 자 리	후쿠시마 추모의 시 간		3월 11일	하자마 당	재앙이 닦쳤던 후쿠시마를 기억하고 함께 애도의 시간을 가지는 자리.
	세월호 추 모의 시간		4월 16일	본관 쇼 케이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기억하기 위해 낭독을 함.
	고정희 추 모낭독회	이 어둠 마저 없 었다면	6월 26일	하하허 허홀	고정희추모기행이 메르스로 인해 취소되면서 고정희 추모낭독회를 진행함.
인 문 학	탈경계인 문학	문학 그 곳을 찾 아가다	3월 24일 ~ 6월 2일	999 클 럽	네트워크학교 학생들끼리 강의를 듣기 전에 모여 상호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토론 길잡이를 하면서 2주에 한 권씩 정해진 책을 읽는 인문학 클래스.
	네트워 크 학교 특 강	재난, 그 2년 후	7월 22일	본관 쇼 케이스	이규호 선생님을 모시고 재난현장에서 벌어지는 삶의 모습과 국가의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
학기말 파티		안녕하 자	12월 13일	하하허 허홀	네트워크학교들 간에 일 년을 정리하고, 돌아보며 학교별로 서로 중점에 두고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진행.
네트워크학교 낭독 모임		마을의 시인들	4월 7일 ~ 12월 18일	본관 쇼 케이스	문학작품을 읽어나가면서 마을의례, 행사들에 어울리는 시들을 골라 낭송하며 하자마을 곳곳에 시를 스며들게 만들고자 했던 시모임.

대상자 코멘트

마을의례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한 신입생이 “하자마을이 뭐야?”라고 묻자 옆에 있던 재학생이 “하자에는 이렇게 다양한 연령, 사람, 학교, 단체, 어른들, 청년들까지 두루두루 모여 있어. 학교를 다니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을의 한 주민으로서 있는 것이기도 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있어서 뭐지 모를 든든함이 있네.”라며 하자마을의 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또 인문학 프로젝트를 통해서 상대방을 통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무척 신선하고 내 생각만 고집하는 내가 조금 답답하게 느껴졌어요.”라며 “조금 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인문학 수업을 들으면서 알았어요.”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뿐만이 아니라 “인문학 수업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난 것 같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재난과 고통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의 세계가 더욱 넓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라고 리뷰를 남기기도 했다. 또 모든 네트워크학교 학생들이 모여 추모와 애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공통으로 기억하는 자리에서 “혼자라면 그냥 지나쳐 버렸을꺼예요. 이렇게 함께 모여 있으니 마주하기 힘든 일도 마주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라고 하며 “함께 애도하면서 나만 슬프고, 우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성과와 전망

자공공아카데미, 탈경계인문학과 같이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통해서 각 학교들을 드려다 볼 수 있는 자리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의를 듣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듣고 난 뒤 학생들의 토론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서로 끊임없이 마주치고, 부딪히며 함께 무엇인가를 도모할 수 있고, 의견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말과 생각의 자리를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사유를 위한 단초를 마련해 나갈 수 있었다. 또 입춘잔치, 시농제, 성년의 날, 김장잔치, 하자생일과 같이 하자마을에서 진행되는 의례에 각 학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기획하며 마을에서 살아가는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나가는 자리를 준비하기도 하였다. 하자마을이라는 배움의 근거지를 확인하고, 단지 학교 안이 아니라 마을의 단위 안에 있는 학교임을 그 곳에서 한 사람의 몫을 하는 주민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후쿠시마 추모, 세월호 기억의 시간, 고정희낭독회와 같이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함께 애도의 시간을 가지기 위한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네트워크학교 공통의 기억을 만들어 나가면서 네트워크학교의 호흡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의 리듬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함께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공통의 학습내용을 마주칠 수 있도록 섬세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각 학교의 학생들 간에 어떤 일을 도모해 낼 수 있는 학습그룹들을 다져나가는 것도 과제가 아닐까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통의 내용들이 생겨나면서 자공공학교로서의 가치들이 조금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본다.

작은 학교들이 점차 생겨나고 있다. 근대적 교육체제를 바탕으로 둔 학교라는 형태가 아닌 작은 실험학교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면서 배움을 움푹올 수 있는 무수한 가능성의 실험들을 하게 될 것이다. 학교-네트워크를 넘어 네트워크-학교라는 모델을 실험해 나가면서 새로운 학교모델- 학습모델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무엇을 염두에 둘 것인가, 개별 학교들의 상황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면서 학교별로 해소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인지 확인해 나가며 구체적으로 만나고 있다. 네트워크학교가 개별 학교들의 견고함 너머 서로 들여다보면서 소통과 신뢰의 생태계를 끊임없이 만들어나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본다.

More info

1) 사이트

<http://nschool.haja.net/>

3-2. 하자작업장학교

하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하자작업장학교는 제 4섹터의 창의적 공공작업자로 성장해갈 청소년들의 비인가 도시형 대안학교이다.

2001년 9월에 개교하면서 하자작업장학교 1기를 시작했고, 10년째 되던 2010년에 다시 2기로 이어졌다. 1기는 학교밖에도 청소년이 있으며, 평생 지속할 즐거운 배움과 일이 있다는 것을 청소년들 스스로 밝히는 학교였다.

2기의 하자작업장학교 또한 1기의 하자작업장학교처럼 청소년들의 '학교만들기' 기획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학교이다. 학교는 '배움이란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살려내는 힘'이라고 믿는, 친구들이 함께 있는 '우정의 작업장'이기를 바라며 만들어진 학교이다.

1. 중등과정(2년)

: 손과 시간과 마음의 연결망을 만드는 '실과학교' - '우정'과 '협동'

하자작업장학교 중등과정은 자립과 상호 돌봄의 감각을 살리는 전환기 학교이다. 생활기술로서 버려진 자전거를 세상에 하나뿐인 자전거로 재생하고, 목공 연장들과 친해져 작은 목공일을 배우기도 한다. 인문학과 글쓰기, 노래짓기를 하면서 몸을 움직여 배운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훈련도 한다. 자신의 일과를 스스로 계획하고, 다짐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며, 교실 공간이나 주변을 돌보고 청소하는 것 또한 학생들의 몫이다. 종종 세계에서도 몇 개 안되는 모래강 내성천을 찾거나 내성천의 회복을 기원하는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다. 2013년에는 산어린이학교와 (자전거/목공) 공방협력교실을, 성미산학교와 평창의 농장학교 농활을 했으며, 2014년에는 이에 더하여 영월의 강원도 혁신학교인 연당중학교와 진로/생태 캠프를 진행하여 또래 청소년들과 폭넓은 교류의 기회를 만들었다. 2015년에는 목화프로젝트를 중심에 두고, 절기에 따른 학습, 손과 마음과 시간을 연결하는 공방활동을 진행했다. 목화농사를 중심으로 여러 공방활동을 연결해나감으로써 '실과교실'의 의미와 방향성을 공고히 할 수 있었던 한 해이다. '기술'이나 '공예'로서가 아니라, 삶을 돌보는 '생활기술'로서 개념이 자리잡아갈 수 있었다.

일정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올해 중등과정은 3년의 실험을 종료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중등과정 초기에 구상했던 '전환기학교'로서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하게 가져가기 위해 1년제 특별실과과정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몇 년간 '전환학년제', '자유학기제' 정책을 통해 이야기되고 있듯이,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자신의 삶을 꾸리는 법을 알고, 보다 넓은 시야에서 세상과 나의 관계를 조망하며, 앞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는 동기를 찾을 수 있도록 중2~고1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전환'의 시간을 주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자작업장학교의 특별실과과정은 전환기청소년을 위한 학교일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학교로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할지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독립적이고 충분한 탐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자립의 감각

과 상상력을 키우고, 생태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중등과정에서 해온 목화농사와 자전거, 목공 프로젝트의 성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커리큘럼에 반영하여 이어나갈 계획이다. 2016년도에 시작하는 하자-오디세이학교 및 다른 전환기학교들과의 유의미한 결합지점에 대해서도 고민하고자 한다. 다른 전환기학교들과의 연결 속에서 전환기청소년층의 지형도를 파악하고, 동시에 차별화된 전환기학교 교육모델로서의 실험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2. 고등과정(3년)

: 불안 숲을 구원하는 작은 노력을 기울이는 '크리킨디학교'

- '생태', '평화' 그리고 사회적 '통합'(다양성, 함께 살기)

고등과정의 시즌2를 시작한 뒤 곧이어 목격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학교의 학습과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게 했다. 시즌2의 세 개 키워드는 '핵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문명에 대한 창의적인 상상력과 기술에 대한 공부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 속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갖기 시작했다. 디자인, 영상, 공연음악, 춤 등의 예술적 매체를 배우고 익히되, '현미 네 흙(도시농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는 생태적 감수성에 기반한 인문적 프로젝트들을 기획하고 참여함으로써 청소년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발견하고 실제로 해보는 것이 이 과정에서의 중요한 학습방법이다. 2012년부터 시작한 SOS 어린이마을과의 '우리동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2013년에는 부안, 영광, 삼척, 밀양 등 우리 사회의 '에너지 지형'을 들여다보는 공부를 시작했다. 버마와 메솟지역의 난민캠프로 현장학습을 가며 해외교류를 진행 중이고, 2015년에는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에 대해 고민하며 12월 파리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101개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을 만들어 보내기도 했다.

3. 청년과정(2년)

: 삶과 공동체의 회복resilience를 꿈꾸는 '전환기술작업장'

- 자공공 (自助/ 公助 / 共助)

2013년에 시작한 청년과정은 '스스로를 돌보고 함께 살고 일하며 새로운 시민적 공공성을 만들어 나간다'는 슬로건 하에 시작한 자공공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중고등과정의 학습을 돕는 인턴 혹은 강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도시농업을 실험하고, 적정기술(목공, 철공, 설계, 에너지, 살림의 기술 등)을 익히며 장인들과 타지역의 청년들과 더불어 나와 이웃의 삶의 형식을 바꾸는 다양한 전환의 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있다. 2014년부터 적정기술 집짓기인 살림집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선박용 페콘테이너 3동으로 에너지자립건물을 짓고 가꿔가고 있으며, 세대를 넘는 지식과 경험의 지혜를 전수받고 알리는 일도 함께 진행 중이다.

more info

1) 사이트

<http://productionschool.org>

<http://gapyear.productionschool.org/>

2)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hajaschool>

3) 비메오

<https://vimeo.com/haja>

3-3. 영세프스쿨

Profile

사업 이름: 청소년요리대안학교 영세프스쿨

대상: 17~22세 청소년

진행기간: 1년 2학기, 2년제

참가방법: 이메일 접수, 1차 서류전형 2차 그룹면접, 3차 고임돌(예비학교) 4차 개별면접 진행 후 선발 (매년 12월말~1월말 모집, 정원 최대 12명)

등록금: 무료

장소: 하자센터 본관1층 요리스튜디오

총 사업비: 120,110,000원(후원금 27,120,000 포함)

2015년 수료인원: 기초과정 수료 인원 12명

개요

영세프스쿨은 청소년들의 요리를 통한 자립과 스스로의 삶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실험하는 청소년요리대안학교입니다. 일과 학습이 통합된 학습현장 <영세프 밥집>을 직접 운영하면서, 요리하는 몸을 만들고 밥으로 사람을 돌보는 태도를 익히며 기초를 다집니다.

영세프스쿨의 교육 과정은 요리 전공 수업외에 요리 인문학, 요리감성학, 시즌학교, 인턴십 등 배움과 나눔의 연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영세프스쿨은 청소년들이 요리를 통하여 자기 성장과 자립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진행

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수업 (09:00~13:30)	영세프밥집 실습 - 재료손질 - 메뉴작업 - 배식 - 뒷정리				
중식 (13:30~14:55)	식사 후 멘토 셰프의 <u>오전실습 피드백</u> (운영일지 작성)				
오후수업 (15:00~18:00)	☐ 요리감성학 - 명상&몸수업 - 연극수업 - 밴드수업 - 목공문화수업 ☐ 도시농사	☐ 요리전공수업 - 한식 - 일식 - 중식 - 양식 - 공정무역&커피	☐ 요리인문학 - 경영수업 - 푸드&소셜이슈 - 절기음식 - 푸드테라피 - 미각수업 - 재료공학 - 환경수업...	☐ 자치활동	☐ 네트워크활동 - 대안마켓참여 (달시장, 마르쉐...) - 견학



1) 학습단계

- 1단계 : 요리로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청소년 -> 자기 밥상을 차릴 줄 아는 청소년
- 2단계 : 요리로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청소년 -> 마을의 요리사, 돌봄의 요리사
- 3단계 : 인생을 요리하는 요리사 -> 요리로 자립하는 청소년

2) 인턴십

- 현장에 투입되어 실전에서 배우는 과정
- 취업 또는 취업 직전의 인턴십 심화 과정, 현장 전문가 멘토링

3) 시즌학교

- 배움을 나누는 과정이 시즌학교의 토대가 됨
- 일하며 배우고 함께 생활하는 삶의 현장으로서의 1주일 단기 교육과정 (1년차 과정)
- 영셰프 1년 트레이닝과 인턴십 과정 중 참여 가능
- * 2016년 영셰프 제주 슬로비 시즌학교(7월초 1주일 예정)

4) 창업학교 (추진기획 단계)

- 영셰프 청년레스토랑을 목표로 실제 창업을 위한 세부계획 및 교육과정 추후 설계
- 주요 멤버 : 전문가 그룹 및 이미 1년 이상의 현장 트레이닝을 수료한 영셰프 1기~6기를 중심으로 구성

More info

1) 페이스북

www.facebook.com/youngchef8

2) 기사

- 최현석 셰프 1 "요리사에게 자격증은 필요 없다"

<http://news.joins.com/article/19270331>

- "요리 철학부터 실무까지 배워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34942.html>

- '학생 셰프'들의 맛있는 초대...청소년 요리캠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3/0200000000AKR20151023018300004.HTML?input=1195m>

- "요리 성적은 1등이죠"...'셰프의 꿈' 키우는 아이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98973.html

4. 하자허브

4-1. 허브 청소년 플랫폼 '사피엔스의 사회생활'

4-2. 허브갤러리

4-3. 작은달시장

4-4. 나눔부엌

4-5. 2016 자공공 아카데미

4-6. 하자허브 커뮤니티 카페

4-7. 생각하는 청개구리,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4-1. 허브 청소년 플랫폼 '사피엔스의 사회생활'

(마을형 방과후 하자 '수상한 식탁' 변경)

Profile

사업 이름: 허브 청소년 플랫폼 '사피엔스의 사회생활'

대상: 9~16세 청소년

진행기간: 2016년 2월 4일~12월 10일

참가방법: 개인 참여

참가비 여부: 유료

장소: 하자센터 허브 및 외부 현장

총 사업비: 4,718,930원

총 참여인원: 620명, 95회차

개요

허브 청소년 플랫폼 '사피엔스의 사회생활'은 마을형 방과후학교 '수상한 식탁'에서 변경된 사업입니다. 전기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획되었다.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자기주도성'은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고, 생각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을 때 찾아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 과정이 혼자 고군분투하며 누군가를 이기고 앞지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동료 를 만나고, 때론 손을 내밀 수 있는 어른들을 만나는 삶 속에서 더욱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자신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의 다양함을 상상하면서 스스로가 주변을 살피고 도울 수 있는 존재임을 인지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배움과 삶이 분리된 현 교육의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하고자 기획된 방과후학교의 취지를 부모가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1, 2학기를 통틀어 총 4회에 걸친 학부모 모임을 진행하였다.

진행

1) 사업기간

시기	대상	내용	진행	연인원
1학기	중등 청소년	방과후하자 '수상한식탁'	2/4~7/23 (주2회, 수/토, 총 38회)	403명
	↓	↓	↓	↓
2학기	9세~19세	①사피엔스의 사회생활	8/23~12/10 (총 24회, 주2회)	112명
		②어린이작당모임	12/6~12/20 (총 3회, 주1회)	18명
		③자원활동	9/27~12/10 (총 30회, 주2회)	81명
		④룸메이트	상시	6명 (2팀)

올해는 중등시기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브의 지원 형태를 방과후 모임에 국한하지 않고 다 각적으로 시도해본 한해였음. 아래 총 4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습니다.

성과

2015년, 기획1팀과 2팀의 협력 사업으로 시작한 '마을형 방과후학교'는 자유학기제 후속 프로그램으로써의 성격이 강했음. 2014년 기획1팀에서 진행한 자유학기제 연계사업 '프리스쿨'의 파트너였던 문래중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 제도권 학교를 다니는 중등 시기의 청소년들이 자유학기제만으로는 진로탐색의 기회, 다양한 삶의 태도와 방식을 상상할 수 있는 관계와 시간,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생활의 틈을 만들기 위해 기획됨. 참여자 모집결과 제도권 학생들보다는 홈스쿨러들의 참여가 많았고 다양한 환경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것에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음. 2016년도에는 하자 마을에서 안전한 시간과 관계를 경험하는 마을형 방과후 활동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중등시기의 특성을 반영한 방과 후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고자 '중등 방과후 하자 <수상(手相)한 식탁>'으로 사업명을 변경, 허브 팀 단독 사업으로 진행. 2016년 여름방학 기간에 청소년 캠프를 계획하였으나, 단골 어린이 그룹의 등장, 허브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해 캠프 대상을 중등 청소년에서 어린이로 변경, 보다 지혜로운 인류로의 진화를 의미하는 '사피엔스' 캠프를 진행함. 캠프 이후 허브카페에서 어린이 작은 작당 모임이 생겨나고 활동에 조력이 필요한 상황 등이 발견되면서 '중등 방과후 하자'의 부제를 '수상(手相)한 식탁'에서 '사피엔스의 사회생활'로 변경, 대상 청소년의 폭을 9세까지로 확장하여 진행하게 됨.

허브 공간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다세대가 함께 어울려 일하고 놀면서 배우는 모습이 펼쳐진 한해였음. 방과후모임 청소년 들은 바느질을 하는 작은작당모임 어른들에게 앞치마 만드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작은달시장에서 어린이들의 길고양이 캠페인을 보고 활동의 영감을 얻었다고 함. 이밖에도 카페와 장터 등의 공간에서 다양한 세대(어린이, 어른)를 만나 서로의 활동을 관찰하고 응원하면서 폭넓게 관계를 만들어 가는 중. 이는 허브라는 공간이 또래청소년 들끼리 학교 소속의 경계 없이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자율공간이자 다양한 세대와 작업(모임)이 교류하는 다세대 공간으로서 청소년에게 유용한 학습공간이 되어주고 있음을 보여줌. 중등 청소년들은 허브에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눈치, 예절, 사회성, 생활기술 등을 비정형적 형태로 체득하고 있음. 2학기에 진행된 '사피엔스의 카페생활'의 경우 작은달시장에서 한 달에 한번 카페운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현장학습과 기획회의, 메뉴 개발과 판매 등을 진행하였는데 참여 청소년 모두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평가와 리뷰를 자발적으로 해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실제 카페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공동평가를 통해 보완해나가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함께 '삶과 분리되지 않는 학습의 즐거움'이 생겨난 것으로 보여짐. 올해까지는 카페 수익금을 현장학습을 통해 알게 된 활동(티베트 난민 돕기, 빅이슈 잡지 구입)에 기부했지만 향후에는 사피엔스 청소년들 스스로 작은작당모임을 결성, 청소년 카페 운영의 씨드머니로 사용할 예정임.

전망

중등 청소년들의 방과 후 생활에 틈을 내는 작업은 유의미하지만 현 실적으로 모집이 어려운

상황, 홈스쿨링 학생들의 참여가 높아지면서 사업의 성격을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음. 현재는 제도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배려해 주중 방과후 시간대에 1회, 토요일 1회 운영을 유지하고 있으나 홈스쿨러들의 적극적 참여에 비해 제도권 청소년의 참여는 저조한 상황임. 따라서 중등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학기 동안, 주 2회(평일포함) 멤버십 형태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사피엔스 캠프 이후에 등장한 단골 어린이들과 주 1회(평일) 운영한 작은작당모임은 새로운 방과후 모델개발에 좋은 영감을 주었음. 외부강사와 기획된 프로그램에 청소년을 모집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청소년들 스스로 관심과 적극성에 따라 다양하고 능동적인 프로젝트가 기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함. 캠프와 허브카페, 작은달시장 등의 플랫폼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다세대 학습공간으로서의 허브적 콘텐츠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동시에 청소년들과 접점을 높이는 다양한 시도가 요구됨. 만약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되는 방과후 모임을 지속한다면 중등 시기에 필요한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교육기획팀(씨앗학교, 토요학교 등)과 함께 논의해볼 필요가 있어 보임.

More info

1) 영상

- 어린이 작은작당 모임 길고양이 돌봄관련 캠페인 영상

<https://www.facebook.com/haja.hub/posts/1255168161225354>

4-2. 허브 갤러리

Profile

사업 이름: 허브 갤러리

대상: 공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개인 및 그룹, 하자마을 주민 및 지역 주민, 신진작가 및 사회적경제 그룹 등

진행기간: 2016년 3월~12월

참가방법: 상시 공모 및 초대를 통해 공공의 메시지를 담은 전시 선정

장소: 신관 2층 허브 갤러리

총 사업비: 44,000원

총 참여인원: 연인원 3,013명(총 9회 전시 진행)

개요

허브 갤러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다양한 공공적 가치를 전시와 예술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가깝게 전달할 수 있는 낮은 문턱의 공공예술 공간이다. 신관 2층의 갤러리 공간에 공공성을 갖춘 전시를 대관료 없이 수용함으로써 작가들을 위한 전시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하자과 허브 공간을 찾는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사회적, 공공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문화를 매개로하여 주민 및 작가들이 다양한 교류와 협력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지향한다. 2015년도에는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했다. 또한 하자 및 하자과 연계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 및 작업의 결과물을 전시해 하자 안팎의 회고를 이끌어 냈다.

진행

2012년 7월부터 전시를 이어온 허브 갤러리는 상시 공모 및 초대를 통한 비정기 전시를 통해 다양한 이웃 그룹들을 만나왔다. 그 통로는 꾸준히 연계해온 하자마을 주민들과 새로이 연결된 주변 그룹들과의 기획전 및 초대전, 하자 내부의 다양한 사업을 갈무리하는 쇼케이스 형식의 공연 및 전시 등 다양했다. 이들과의 전시를 통해 허브갤러리는 하자과 자주 오가는 사람들이 주민으로서 자신의 활동영역을 넓히면서 다른 이들과 연결되는 공간으로서 기능하였다.

1) 회차별 세부 운영 및 추진 실적

회	전시 기간	내 용	참여 작가 / 단체	연인원
1	5월 7일~12월 31일 (상설 운영)	- [5.7~12.31] <이야기마켓> : 책, 옷, 장난감 등을 수시로 교환해 갈 수 있는 이야기 마켓 상설 운영	일반시민, 지역주민	1618
2	6월	- [6.01~6.18]수상한식탁의 <수상한 사진전> - [6.11] 토요일학교 "일상을 00하자"쇼하자 [6.15] 교육기획팀 오류중학교 쇼하자	- 수상한식탁 참여 청소년 교육기획팀	285

		[6.22~6.28] 마고추모전시 <안녕마고, 마고안녕> *관련 행사 (오프파티 : 6/22일 18:00)	햇빛부엌	
3	8월~12월 02일 (상설운영)	[8.13.~12.02] 어린이환경전시 <날씨가 기가막혀> : 북센스 출간 어린이 도서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의 일러스트(원화 프린트) 전시	- 북센스출판사	949
4	10월~12월 31일	- [10.29~12월31일] 허브 단골 어린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힐리스 공원> 개장 (매주 수, 토 운영)	지역 어린이	45
5	12월	- [12.02~12.15] 씨앗학교 "버려진 동물팀" 전시 (쇼하자는 12/03 진행) - [12.16~12.31] 모듈모색 전시	- 버려진 동물팀 참여 청소년 - 릴리쿰(호랑, 도요, 물고기), 풀무, 하루, 네모, 전조	116
총 9회 전시			연인원	3,013

성과

하자 내외부를 연결하는 자연스러운 통로가 되는 사업인 만큼, 이야기 마켓, 일러스트 상설 전시 등 허브 자체 전시 콘텐츠를 생산하여 기획,초대전시가 없더라도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허브갤러리 간판을 새롭게 디자인, 제작하여 지속성을 높였다. 2층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1층에 비해 접근성이 부족하고 유동인구가 없는 특성이 있는데, 이런 점들이 오히려 잘 작동하여 비밀 공간, 쉼터, 혼자 있는 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야기 마켓"도 물건을 살펴보고, 교환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는 것에 부담 없는 공간으로 갤러리와 잘 맞았다. "힐리스 공원" 또한 어른들의 눈을 피해 또래끼리 비밀스럽게 노는 것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이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More info

1) 페이스북

하자허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aja.hub>

4-3. 작은 달시장

Profile

사업 이름: 작은 달시장

대상: 하자 마을 주민 및 영등포 지역 주민

진행기간: 2016년 2월~12월 / 매 첫 번째 토요일 진행, 시범운영 1회, 작은달시장 9회 총 10회 진행

참가방법: 현장 참여

참가비 여부: 없음, 음료 및 간식 품앗이(허브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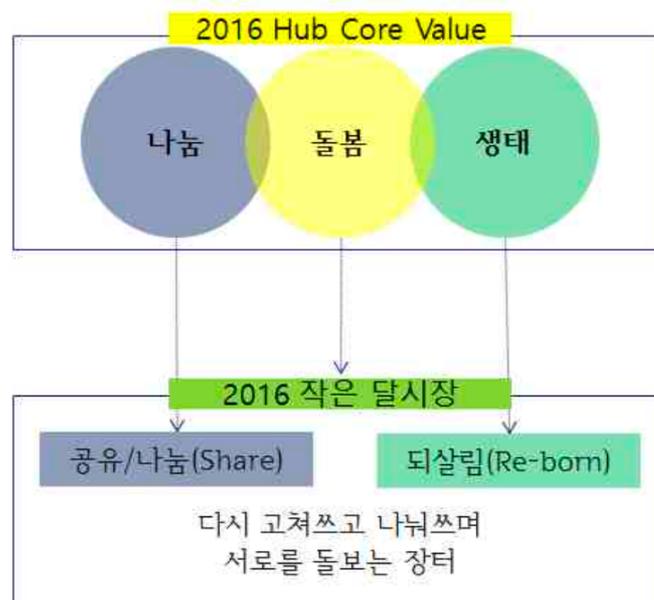
장소: 하자 신관 일대

총 사업비: 3,166,210 원

총 참여인원: 연 1,477명

개요

하자센터의 달시장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이 느슨하고도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형태의 작은 마을 장터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함께 만드는 놀이터이자 시장'이라는 컨셉을 바탕으로 하자 마을 주민과 영등포 지역 주민이 함께 판을 만들 수 있도록 느슨한 형태로 진행하였다. 세대간 만남과 서로를 돌보는 경험을 통해 함께 사는 감각(Co-living)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확산시키는 플랫폼 사업인 작은 달시장은 단발적인 축제 성격의 시장이 아니라 '동네' 단위에서 소규모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만드는 지속 가능한 동네 장터의 모델을 제안한다.



진행

1) 컨셉

- 2015년부터 지역놀이모임으로 시작된 '작은 달시장'과 하자 허브 사업을 통해 연결된 어린이, 청소년, 문화예술창작자, 마을 커뮤니티그룹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입체적으로 관계가 확장, 연결되는 낮은 문턱의 플랫폼(장터) 지향
- 어린이, 청(소)년, 중장년 등 다양한 세대가 '공유(Share)'와 '되살림(Re-born)' 키워드로 전개되는 시장 활동을 통해 상호 돌봄(Mutual Caring)의 감각(Co-living)을 배우고 나누는 장 지향
- 단발적인 축제 성격의 시장이 아니라 '동네' 단위에서 소규모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드는 지속가능한 동네 장터의 모델 제안.

2) 달시장과의 연계



3) 추진 일정 및 주요 프로그램

일정	내용	세부내용(주요 프로그램 등)
2월	작은달시장 시범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물교환&벼룩시장(이야기마켓) • 허브 음식나눔
3월	작은달시장 1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자허브 다세대워크숍 '지구를 위한 한시간'과 연계 캔들 워크숍 진행
4월	작은달시장 2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되살림 워크숍 '상호지지구조 만들기'
5월	작은달시장 3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에서 훌훌, 기운이 쓱쓱 : 상자텃밭 만들기, 달걀 퇴비 만들기, 농기구 판매 및 수리(칼갈이)
6월	작은달시장 4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부엌 : 짬뽕 매실로 청담그기 • 동네텃밭 : 화분갈이 • 동네작업실 : 바느질&판화 공방(마고방), 장명루 만들기(릴라)
7월	작은달시장 5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부엌 : 술빵만들기 워크숍(초롱불) - • 동네작업실 : 바느질&판화 공방(마고방), 천연 모기퇴치제 만들기 워크숍(오디세이학교) • 동네텃밭 : 화분 꾸미기 워크숍 • 동네이야기책방 : 미니공연 '이야기 배달꾼'(이야기꾼의 책공연) • 이야기마켓 : 홍콩 사회복지기관 '카리타스'

		'청소년 참여
8월		혹서기 휴장
9월	작은달시장 6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부엌 : 기부 받은 쌀과 옥상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로 만드는 간식 나눔(떡볶이) • 동네텃밭 : 허브 농산물 직거래, 업사이클링 화분 아트 • 동네이야기책방 : 미니공연 '이야기 배달꾼'(이야기꾼의 책공연)
10월	작은달시장 7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청소년창의서밋과 함께 진행 • 동네작업실 : 목판화 기념품 만들기(다케시), 햇빛 건조기 제작 및 시연(커피박), 일상목공 프로젝트 '비전력 스피커 만들기' • 동네텃밭 : 길고양이 보호 캠페인, 허브 파머스 마켓 • 동네부엌 : 사피엔스의 카페생활, 서밋 소쿠리마당, 씽투다이닝, 간식나눔(수상한식탁 멤버) • 동네음악회 : 씽투육아(복태와 한군), 미니공연 '커다란 손무'(이야기꾼의 책공연)
11월	작은달시장 8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부엌 : 사피엔스의 카페생활, 오순도순쿠리 • 동네작업실 : 목판화 워크숍, 직조 워크숍 • 동네텃밭 : 길고양이 보호 캠페인, 허브 파머스 마켓 • 이야기마켓
12월	작은달시장 9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부엌 : 사피엔스의 카페생활 • 동네작업실 : 목판화 워크숍, 직조 워크숍 • 동네텃밭 : 길고양이 보호 캠페인, 허브 파머스 마켓 • 이야기마켓
총 10회 진행(시범운영 1회, 정규운영 9회) / 참여인원 1,477명		

2016년 작은달시장은 어린이, 청소년, 엄마 등 다양한 세대가 어울리고 만나는 '다세대 연결의 장'으로 진행되었다. 하자 허브의 '나눔', '돌봄', '생태'의 가치를 바탕으로 일상적인 허브의 활동과 사업이 작은달시장에서 펼쳐지고 연결되는 플랫폼으로 기획되었다. 5월 작은달시장부터는 허브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와 매체에 따라 '동네00'이라는 세 부세션으로 묶여 장터가 진행되었다.

성과

2015년까지 작은달시장은 달시장 놀이마당에서 연결된 소수의 지역 엄마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다. 비슷한 연령대의 자녀를 두거나 육아, 교육 등 공통의 관심사로 연결된 엄마들은 끈끈한 멤버십을 바탕으로 작은달시장의 이전 단계인 놀이모임에서 코어멤버로서 활동하였다. 하지만 엄마들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한 멤버가 타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이탈하였고, 멤버십이 와해되었다. 그래서 2016년 작은달시장은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멤버십이 아니라 허브의 핵심 가치인 '나눔', '돌봄', '생태'로 묶여진 하자 허브 사업과 활동이 한 데 모이는 '허브 플랫폼'을 상상하게 되었다. 작은달시장을 위해 새로운 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작은달시장을 통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하자허브의 내·외부 활동이 한 데 모이고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다. 더불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우연히 만나 이야기 나

누고 작당할 수 있는 '틈'이 되고자 했다. 보다 작은 달시장에서 주민들에게 허브의 다양한 사업과 활동이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공간의 성격 과 매체에 따라 '동네00'으로 세부세션을 구분해 진행하기도 했다. 올해 작은달시장 기획 구조의 변화는 기획자(판돌) 중심으로 기획과 실행이 진행된 이전과 달리, 다양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작은달시장을 함께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전망

작은달시장의 프로그램은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하자 허브 사업과의 연계 지점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기획되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 방과후 청소년(수상한식탁, 사피엔스의 사회생활), 어린이 작당모임(길고양이 캠페인), 어른 작당모임(마고방, 명료당), 농가연계 등 허브 사업뿐만 아니라 오디세이학교, 청소년운영위원회(시유공), 공방(일상목공 프로젝트), 하자투어(홍콩 카리타스, 옥천신문사) 등 타 팀과의 협업도 진행했다. 지난 10월 서울청소년창의 서밋과 함께 진행된 작은달시장에서는 올해 작은달시장을 통해 만나고 연결되었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어울리는 '홈커밍데이' 형식으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올해 작은달시장이 단독 사업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과 사업들의 콘텐츠가 연결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More info

1) 페이스북

하자허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aja.hub>

4-4. 나눔부엌

Profile

사업 이름: 나눔부엌

대상: 하자마을주민 및 지역 주민, 외부 파트너 그룹

진행기간: 2016년 1월~12월

참가방법: 즉석 참여

참가비 여부: 없음(참여자들이 반찬, 후식, 식재료 등을 가져옴)

장소: 하자센터 신관허브(1층 카페, 중정, 옥상)

총 사업비: 3,040,980원

총 참여인원: 총 2,450명(연인원)

개요

나눔부엌은 '마을'의 다양한 성원, 다양한 세대가 나눔과 돌봄, 환대의 정신을 실천하는 장을 구현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독신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쫓겨 매식으로 끼니를 해결한다. '집밥'이 아닌, 상대적으로 열악한 음식을 일상적으로 섭취하게 되는 것이다.

함께 음식을 나누는 행위가 공동체 내에서 소통과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외로운 개인들이 홀로 끼니를 때우거나 거르는 일상을 반복하면서 점점 고립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나아가 새로운 '일거리'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반으로 나눔부엌을 설정했다. '창의적 공공지대'의 성격을 갖는 하자허브(신관)의 카페, 주방 공간을 공동공간으로 열어두면서 사회적 감각(협동적 자아)을 배우는 다양한 만남의 장으로 기획, 진행했다.

진행

1) 사업 내용 및 추진 실적

구분	일정	내용	연인원(명)
수요나눔부엌	1월 3일~12월 7일 / 6월 7일~12월 27일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하자마을주민, 초대손님 등이 반찬 한 가지나 다양한 음식, 또는 식재료 등을 가져오고, 나눔 부엌 담당팀이 밥, 국, 한두 가지 반찬을 준비하여 함께 식사를 함. 올해 6월부터 지역에서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의 문턱 낮은 만남의 장으로서의 화요일 점심시간 엄마밥상과 배움의 장으로 확장 진행	총 2450 (성인 2108/ 청소년 178/ 아동 164)
토요나눔밥상	매월 첫째주 토요일 및 필요시	작은달시장, 상상단, 작당모임, 청소 년자원활동가, 메막토 등의 참여자들과 모두의 간식 혹은 점심으로 진행	
농가연계	상시	경남진주 자연이네, 경기이천 공세알, 시흥 도시농부 짱짱 등과 농가연계로 유정란, 마늘, 생강, 배추	

		등 슬로우 농산물을 상시 혹은 나눔밥상, 작은 달 시장, 달시장 등에서 판매함. 또 청, 잼, 장아찌 등 가공품을 함께 만 들어 판매하거나 공유함	
부엌(공간) 나눔	필요시	로드스콜라책모임(주1회), 작당모임 (한살림 영등포 지역모임, 바느질모임, 만돌린모임), 마르쉐 seedtotable(2 회), 영쉐프, 영등포켓맘 등의 모임 이 나 지역단체에게 나눔부엌을 공유하 거나 대관 함	
허브텃밭	필요시	신관허브 4층 옥상텃밭(오디세이학 교, 영쉐프, 수상한식탁, 만들이, 판 돌 참여), 중정 지구정원 등 에 텃밭 농사를 진행하여 나눔밥상에서 제철 채소 등 식자재를 나눔	

2) 내.외부연계

한살림남서지부, 마르쉐팀, 자연이네농장, 도시농부짱짱, 이천콩 세알, 영쉐프, 오디세이학교, 수상한식탁, 청소년자원봉사자, 갤러리 전시팀, 하자투어 목적 방문객, 창의서밋참석자, 작은달 시장 참석자 등

성과

30~60여명의 하자마을 주민들이 매주 모이는 수요나눔부엌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요일을 기억하고 찾아오는 외부인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외부 손님을 자연스럽게 나눔부엌으로 초대한다는 점으로 볼 때, 하자의 마을부엌으로서 그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고 보인다. 나눔, 돌봄과 환대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문턱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이웃인 영등포 지역민들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점이 아쉽기는 하나, '마을'을 광의로 해석 할 때 지역에 크게 얽매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을의 '부엌'은 단순히 먹는 공간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밥상을 함께 준비하고 함께 먹는 과정을 통해 연대, 환대, 나눔의 정서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수요나눔부엌 및 부엌 공간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와 문화 형성을 다른 사업과의 연결 및 결합을 통해 더욱 깊이있게 모색해보고자 한다.

More info

1) 페이스북

하자허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aja.hub>

4-5. 2016 자공공 아카데미

Profile

사업 이름: 2016 자공공 아카데미
대상: 시대를 함께 성찰하고 지속가능한 삶에 대해 탐구하려는 이들
진행기간: 2016년 9월 9일(금), 9월 21일(수) 오후 6시-9시
참가방법: 전화 및 이메일 신청
참가비 여부: 없음
장소: 하자센터
총 사업비: 917,000원
총 참여인원: 260명(연인원)

개요

자공공 (자조自助, 공조共助, 공조公助) 아카데미는 '세상을 구하고 싶은' 이들이 모여 그간 우리가 살아온 '근대' 문명을 성찰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토론을 벌이는 자리. 첫 번째 아카데미에서는 '공간과 사회 큐레이팅'의 주제로 '창의적 공공 영역'을 만들어낸 장인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2기와 3기는 '지속가능성'을 화두로 함께 질문하며 공부하는 자리였다. 4기는 인문사회과학의 가장 근본이라 할 수 있는 '근대성'을 주제로, 한국의 '압축적 근대화' 과정을 세계사적 맥락에서 차분하게 살펴보았다. 올해 2016년, 자공공 아카데미는 인류 문명의 전환기에 인류, 인간 그 자체의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시간을 가졌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이타적 인간'이 어떻게 가능한지, 인류학의 관점에서 접근한 '사람되기'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참여 단위	참여인원
하자 네트워크학교	학생 78명
하자 판돌	23명
개별참가자	6명
연세대 '문화기획 실습' 수강생	27명
실 인원	134명

진행

1) 수업진행방식

오프닝 (5분) > 초대강연(50분) > 휴식 (5분) > 조별토론 (30분) > 집합 (5분) > 조별토론발표 및 종합토론 (50분)

2) 세부프로그램 내용 :

1. 자공공특강1. <이타적 인간의 출현>

→ 일시 : 9월 9일(금) 오후 6시~9시

→ 내용 : 인간은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 자신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기적 유전자'만이

선택적으로 살아남은 것일까? 나를 희생하며 남을 돕는 이타성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이타적 인간의 출현>의 저자 최정규는 '사회의 복잡한 현상들을 모형화하여 진화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사람들의 다양한 상호작용의 결과가 어떻게 규범과 관습이 되어 다시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성해 보는 게임이론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죄수의 딜레마'를 탐구하면서 인간 본성에 내재하는 이기성과 이타성이 충돌하며 진화해가는 과정을 탐색해 왔지요. 우리 사회에서 이타적 협조행위가 어떻게 진화할 수 있었는지 저자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인간에 대해 탐색해 볼까요?

→ 연사 : 최정규(경제학자, 경북대 경제학과)

2. 자공공특강2. <사람, 장소, 환대>

→ 일시 : 9월 21일(수) 오후 6시~9시

→ 내용 : '강남역 10번 출구', '구의역 스크린도어 9-4 승강장'이라는 장소와 기억을 갖게 된 우리들.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인 인간은 어떻게 세상에서 '사람'이 되어갈까요? <사람, 장소, 환대>의 저자 김현경은 '우리는 환대에 의해 사회 안으로 들어가면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리/장소를 갖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영혼과 육체를 가진 한 사나이가 악마에게 그림자를 팔아버리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자는 그림자를 판 한 사나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절대적 환대 없이는 사회가 생겨날 수 없고 따라서 어떤 인간도 사람이 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탐색해 볼까요?

→ 연사 : 김현경(문화인류학자)

성과

자공공 아카데미는 인류문명의 전환기에 인류, 인간 그 자체의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시간을 가졌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이타적 인간'이 어떻게 가능한지, 인류학의 관점에서 접근한 '사람되기'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청소년의 입장에서 '인류', '인간'이라는 당연한 존재를 '경제학', '인류학'이라는 학문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다소 어렵게 느껴진 부분이 있었다. 학문적 차원의 질문 보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와 같이 역사적 접근이 오히려 청소년들이 질문을 풀어가기에 적절하지 않았을까 싶다.

하자 네트워크 학교인 작업장학교, 로드스쿨라, 영세프 스쿨 그리고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문화기획실습'수업 등 참가자를 그룹으로 모집 하였고, 하자 웹사이트와 SNS를 통하여 개별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네트워크 학교와 분담하여 간식을 준비하였다. 140여명의 참가자를 9개의 소그룹으로 나눠 조별토론을 진행한 후, 조별 토론 내용을 요약 공유하고, 토론자와 함께 종합토론에서 논의를 확장하여 마무리 지었다.

성찰

'인류', '인간'이라는 주제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관심있는 주제였지만 주제를 다루는 관점에서 학문적인 문제의식이 청소년들에게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다세대가 함께 배우고 논의하는 자리에서 접근방식에 대해서 초청하는 연사들과 사전 논의가 필요하겠다.

More info

1) 홈페이지

자공공넷 <http://jagongong.net>

4-6. 하자허브 커뮤니티 카페

Profile

사업 이름: 하자허브 커뮤니티 카페

대상: 전 연령의 하자 허브 단골 주민, 지역 주민 등

진행기간: 2016년 1월~12월

1) 공유카페 운영 : 상시

2) 네트워크 파티 : 3월 19일, 7월 21일, 10월 15일 (총 3회)

3) 다세대 워크숍 : 3월 19일, 4월 20일, 5월 7일, 6월 4일, 7월 2일, 10월 14일, 11월 15일, 22일, 29일, 12월 20일 (총 10회)

참가방법: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함

장소: 하자센터 신관 지하 목공방

사업비: 2,143,670원

참여인원: 총 12,044명

개요

하자허브 리사이클 디자인공방은 모든 것을 시장으로부터 공급받는 요즘의 일상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몸을 움직여, 삶을 가꾸고 돌본다는 의미를 지닌 다양한 목공 워크숍을 기획, 진행한다. 특히 영등포 지역 일대 버려진 펠릿(빠레트) 등 폐자재들을 수거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리사이클 방식을 주로 적용한다.

진행

1) 역할

구분	단위	주요역할	비고	
총괄 진행	서울특별시, 서울시 교육청	총괄책임	주최	
	하자센터	주관단체, 총괄기획 및 운영	주관	
외부 강사	다세대 워크숍	김난희	소이 캔들 워크숍 진행 (2시간*1회)	
		윤세호	흙그릇 빚기 워크숍 진행 (3시간*3회)	
		안세정	그림책 워크숍 진행 (2시간*3회)	
		환경연대	태양열 건조기 만들기 진행 (5시간*1회)	
		정순희	차 테라피 워크숍 진행 (2시간*1회)	
초청 강사	네트워크 파티	박세영	인도 생태마을 여행기 공유 강연 (2시간*1회)	
		복은진	커뮤니티 댄스 진행 (2시간*1회)	

2) 진행일정 및 세부내용

사업구분	진행일정	사업 내용
공유 카페 운영	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인력이나 업체가 운영하는 형태가 아닌 판돌들과 청소년, 마을 주민들이 함께 '정성'과 '협력'으로 운영하는 공간 - 개인이나 단체에게 카페 및 마을회관, 부엌 공간을 대관, 대관료를 돈이 아닌 쌀(먹을거리)로 받아서 나눔밥상과 카페 간식, 작은달시장 동네 부엌 등에서 모두가 나눠먹는 순환구조를 만들 - 공유чат장을 상시 비치하여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차와 간식을 나누며 카페 운영에 참여하도록 함 - 책, 옷, 장난감 등을 수시로 교환해갈 수 있는 이야기마켓 운영 - 3인이면 누구나 모임을 만들어 허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작은작당모임' 운영.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했음 - 청소년 방과후 모임, 사피엔스의 사회생활 중 '카페생활'을 진행, 작은달시장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등 일하며 배우는 현장이 됨
네트워크 파티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한 회를 제외하고 매달 열리는 작은달시장과 통합진행 - 도시에서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시도하는 허브 주민은 물론 외부 그룹들과의 네트워크를 시도함 -3월: 지구를 위한 한 시간(십년후연구소, 살림) -7월: 생태 공동체 공유회(열린 이야기 워크숍) -10월: 서밋 작은달시장(환경연대 커피박 캠페인)
다세대 워크숍	수시/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파티, 작은달시장의 사전/사후 모임 성격으로 어린이부터 청소년, 중장년 층이 따로 또 함께 어울려 즐기며 배우는 상호 배움의 장으로 총 10회 진행 -3월: 캔들워크숍 1회(지구를 위한 한시간) -4월: 손두부만들기 워크숍 1회(5월 작은달시장 준비) -5월~7월: 흙그릇 빚기 워크숍 3회(작은 달시장) -10월: 태양열건조기 만들기 1회(커피박 캠페인, 서밋 작은달시장) -11월: 오손도손 그림책 이야기 워크숍 3회(엄마 밥상 후) -12월: 차 테라피 1회(엄마 밥상 후)

성과

판매하는 카페가 아닌 기부와 나눔으로 운영되는 공유카페의 모습을 갖추게 됨. 공간을 함께 쓰는 사람들이 대관료 대신 쌀이나 과일, 차 등의 먹을거리를 가져오면 그 먹을거리는 모두가 나눠먹는 카페의 간식과 밥상이 됨. 돈으로 소비하는 삶의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런 카페의 나눔/순환구조를 경험하면서 선물을 받은 듯한 환대를 느낀다고 말함. 허브의 공간을 단순 대관하던 팀들도 대관료로 가져온 쌀의 쓰임이나 허브 카페의 공유 문화를 접하면서 하자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며, 손주가 쓰던 장난감을 기증하거나 하자 투어를 신청하는 등 새로이 접하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고 참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

- 공유чат장과 이야기마켓은 무인으로 관리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특히 자신에게는 쓸모가 없어진 그러나 추억이 담긴 물건에 가격표 대신 사연을 적어서 두고 가면, 필요한 누군가가 사연에 답장을 적고 가져가는 방식의 이야기마켓은 조용히 다녀가는 단골들이 눈에 띄 정도로 꾸준히 애용되고 있음. 남기고 간 사연들을 살펴보면 물건의 가치는 시장의 가격이 아닌 필요와 쓸모에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음. 물건을 가져간

사람들이 남겨둔 사연은, 돈으로 사고팔지 않아도 생활의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서로의 관계에 감사하는 내용이 많음.

- 어린이 작은작당모임이 활성화됨. 달시장 놀이터, 작은달시장, 사피엔스 캠프 등을 통해 꾸준히 허브를 드나드는 어린이 그룹이 생김. 어린이들이 스스로 모임과 활동을 만들고 움직이는 모습이 두드러졌음. 3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해서 허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작은작당모임을 적극적으로 활용, 카페 주변의 길고양이를 돌보는 모임, 2층 갤러리 복도에서 바퀴 달린 운동화를 서로 가르쳐주며 노는 모임, 하자를 취재해서 기록하는 모임 등이 생겨났음.

- 허브 주민들의 활동이 자조에서 공조로 확장하는 모습을 발견함. 올 한해 작은작당모임은 요가와 명상, 바느질, 뇌과학 공부, 모듈모색 등 다양한 관심사의 모임들이 있었음. 그동안 작은작당모임이 끼리끼리 비슷한 관심사로 모여 서로의 만족을 위해 움직이는 자조적 형태였다면, 이 중에서도 몇몇 팀들은 오픈된 형태의 열린 워크숍을 시도하거나, 방과후하자 청소년들과 재능을 나누며 관계를 만들기도 하는 등 자조적 형태에서 공조의 형태로 조금씩 확장되는 모습을 보였음. 이에 따라 작은작당모임이 열린 워크숍을 운영할 경우, 이를 응원하고 권장하는 차원에서 허브 카페의 초기 지원이 병행된다면 허브 주민들에게 좀 더 쉽게 공조로의 이행에 대한 상상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됨.

more info

1) 하자 공식 SNS(페이스북) : 진행 상황 실시간 공유

<https://www.facebook.com/haja.hub>

2) 허브 소개 영상 제작

<https://vimeo.com/185011224>

4-7. 생각하는 청개구리

Profile

사업이름: 생각하는 청개구리

대상: 만 5-14세 어린이 및 청소년

진행기간: 2016년 1월~2016년 12월

총 사업비: 307,373,491원

총 참여인원: 9,712여명(오프라인)

- 움직이는 창의놀이터(계절놀이터) (약7,465명)
- 움직이는 창의놀이터(마을놀이터) (약1,477명)
- 움직이는 창의클래스@삼양초 (770명)
- 콘텐츠 개발(놀이웹툰 및 달력 제작)(조회수 약108,382회)

개요

생각하는 청개구리는 하자센터가 한국암웨이의 후원으로 진행하는 어린이 창의교육 프로젝트로서, 2012년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어린이는 스스로 배우며, 더불어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어린이가 배우고 성장할 창의적 환경을 만드는 일을 미션으로 삼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도심 속 어린이 놀이축제인 '움직이는 창의놀이터'를 열고 있다. 분당 암웨이브랜드센터 및 서울의 공공장소에서의 놀이축제를 통해 놀이문화를 환기하며, 하자센터의 달시장과 함께 놀이터를 진행하면서 마을놀이터의 장을 펼치고 있다. 이 외에도, 문화예술작업을 매개로 지역아동복지센터 어린이들과 작업자들이 동료로서 지속적인 배움의 장을 갖는 '창의클래스' 등을 진행하고 있다.

기획 의도

생각하는 청개구리 5년 차를 맞이하여, 사업 포맷을 안정화할 단계. 창의클래스와 창의놀이터 분절적 사업의 통합적인 구조 구축을 통해, 사업의 내러티브를 생성하고, 어린이와 놀이에 대한 좀 더 명료한 메시지를 발신함.

- 움직이는 창의놀이터는 놀이터 포맷을 안정화 하고 대중들에게 선보이며 확산 및 안정화를 목표로 함. 선보인 놀이터 포맷이 외부에게 좋은 사례가 되고 영향을 미치면서 모델링 가능할 수 있는 운영 매뉴얼 시스템 개발. 놀이터lab을 운영하며 사전 테스트 및 놀이 개발, 연구 등을 통해 포맷을 실험.
- 창의클래스는 일반 어린이들과 학기별 정규적 만남(클래스)을 통해 학교 생활 가운데서 놀이를 이끄는 작업을 이어나가면서,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함. 초등학교와 연계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공간을 바꿔나가는 프로젝트 진행.

진행

- 1) 추진사업별 일정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움직이는 창의 놀이터 (계절)				5/5 @서울광장			8/20 @서울 혁신파크		10/2 @서울 시민청		
움직이는 창의 놀이터 (마을)	매월 1회 (첫째주 토요일) 마을놀이터 진행 -작은달시장과 연계							매월 1회 (첫째주 토요일) 마을놀이터 진행 / *10월 : 서울청소년창의서밋과 연계, 10월 15일 진행			
								9월 3일, 10일, 24일, 10월 1일, 2일 -청개구리 상상단			
놀이 활동가	기록 워크숍		모집 및 오리엔테이션	매월 2회 모임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및 정거리뷰 모임 진행)							
움직이는 창의 클래스			1학기 수업 진행 7/5 삼양초-하자센터-한국압웨이 MOU체결, 오픈클래스 진행				여름방학 조별활동 -정림건축사 사무소 및 서울시립대 탐방	2학기 수업 진행 10/15 서울청소년창의서밋 <교육공간포럼> 진행 / 사례 발표 12/20 오픈클래스 진행			
콘텐츠								놀이웹툰<링가링가>연재@한겨레 '베이비트리' *2017년도 놀이달력 제작 및 배포			

2) 콘텐츠개발

놀이웹툰 <링가링가>

일정: 9월 2일~12월 30일(매주 금요일) 총 18회 연재

발행처: 한겨레신문사<베이비트리>

작가: 어른아이 Adulkid (이현지)

조회수: 총108,382회 (2016.12.30.일 기준)

웹툰 링크: <http://babytree.hani.co.kr/?mid=media&category=477919>

회차	연재 일	제목	조회수 (2016.12.30.일 기준)
1	09.02	진짜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	3523
2	09.09	금단의 선물, 집이 사하라	3394
3	09.13	'명절막말'을 이겨내는 꿀팁	24671
4	09.23	아빠와 놀아도 눈케 없다	16702

5	09.30	보검이에게 배우는, 아이와 잘 노는 방법!	3730
6	10.07	카페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적의 아이들의 언어	5091
7	10.14	아이 마음 잘못 읽은 검은 그림	16086
8	10.21	층간 소음 해결, 윗집에 괴물이 산다	3063
9	10.28	놀이에 필요한 것	13297
10	11.04	어른도 놀이가 필요해	2421
11	11.11	휴대폰 나쁘기만 할까? 새로운 놀이의 발견	3137
12	11.18	외계인을 만나는 방법	2326
13	11.25	진짜 아이들의 세계, 게임 속 세상	3221
14	12.02	버리지 마세요! 소중한 쓰레기	2197
15	12.09	애들이 무슨 걱정이 있어, 어른의 착각	3286
16	12.16	장난감이 없는 날	1281
17	12.23	눈사람은 겨울에만 볼 수 있는걸까? 여름눈사람!	810
18	12.30	진짜로 놀자!	146
총 조회수 (2016.12.30.일 기준)			108,382

성과

릴리쿰은 제작자이자 메이커로서 활동해온 팀으로 움직이는 창의놀이터에 이들이 합류하면서 초반(5월)에 메이커(체험형) 위주의 부스가 많았다가 점차 놀이터의 한 요소로 안착함. 계절놀이터는 도심이라는 공간적 한계가 분명했던 가운데, 도시에서 보여주는 기존의 다른 메이커 페어나 전래놀이 등의 틀을 깨고 새로운 도시형(대형) 팝업 놀이터의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짐.

올해 참여했던 작가들이 대부분 메이커 기반이다 보니 '어린이'를 바라보는 관점과 철학에서 부족했던 것이 사실. 이를 보완하고자 레지오 강의(오문자 교수님) 등을 오픈하고 초대함. 필요하다면 작가 그룹과의 교육 커리큘럼 운영을 상상하고 있으며, 연말에 네트워크 파티에서 생칭-작가, 작가-작가 등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서 시작하고자 함.

성찰

움직이는 창의놀이터의 세 가지 키워드 가운데, '순회놀이터'의 경우는 서울을 넘어 지역 거점에까지 확산되는 놀이터 축제에 대한 상상과 기대 또한 담겨있었다. 서울을 거점으로 시민청 놀이터를 안정적으로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다음 해의 지역거점을 논의하고 네트워크까지 확장하는 데까지는 달지 못했다. 지역 이동을 위한 현실적 여력이 부족한 지점과, 서울에서의 지속적인 개최 가능성에 대한 확인이 동시적 이유로 작용했다고 본다.

전망

예측하기 힘들만큼 고도의 변화와 위험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에게 자율과 책임을 몸으로 습득하며, 회복력을 연습하는 '장'으로서 놀이(터)의 유무는 어린이의 삶의 질을 좌우할 것이다. 더불어, 일방적이고 획일화되지 않은 배움의 장을 모색하는 수많은 교육자들

에게 스스로 제작하고 감각하는 '놀이적' 배움이 주는 영감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해볼 때, 놀이(터)의 필요성은 점점 더 부각될 것이라 전망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점차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크고 작은 놀이 관련 행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는 과연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은 어떤 경험을 하며, 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놀이를 넘어 '어린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며, 만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성찰과 함께, 의미화 과정에 대한 밀도있는 기획이 필요한 때이다.

More info

1) 블로그

<http://thinkingfrogs.com>

2) 페이스북

<http://facebook.com/thinkingfrog2012>

3) 영상

- 움직이는 창의놀이터@서울광장 스케치 영상

<https://vimeo.com/170747629>

- 움직이는 창의놀이터@혁신파크 스케치 영상

<https://www.facebook.com/thinkingfrog2012/videos/1541646742528231/>

- 움직이는 창의놀이터@시민청 스케치 영상

<https://www.facebook.com/thinkingfrog2012/videos/1670238089669095/>

- 움직이는 창의클래스@삼양초 인터뷰 영상

<https://www.facebook.com/thinkingfrog2012/videos/1651147174911520/>

- 링가링가 프롤로그 영상

<https://www.facebook.com/thinkingfrog2012/videos/1515056478520591/>

4) 보도자료

날짜	제목	매체	링크
1.29	도시형 마을놀이터의 가능성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디자인정글	http://magazine.jungle.co.kr/designnews/daily/view_new.asp?idx=27775&cate=22&page=1&NewsNo=431328346&m_idx=&news_type=daily
5.05	한국암웨이, 서울시와 함께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개최	세계일보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05/20160505001775.html?OutUrl=naver
5.05	서울 광장, 어린이날 맞아 '축제의 장' 탈바꿈	포커스뉴스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50500190211493
5.05	한국암웨이, 어린이날 서울광장서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행사	뉴스1	http://news1.kr/articles/?2654742
5.05	한국암웨이, 어린이날 서울광장서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행사	디오데오	http://www.diodeo.com/news/view/1579787
5.05	즐거운 집짓기	뉴스시스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120160505_0011661559

5.05	서울광장에서 즐기는 뱃줄놀이	뉴시스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ISI20160505_0011661561
5.05	서울광장에서 즐기는 어린이날	뉴시스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ISI20160505_0011661560
5.05	오늘만큼은 우리들세상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21786&code=11131100&cp=nv
5.05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60505052500013&input=1196m
5.05	한국암웨이, 서울시와 함께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개최	쿠키뉴스	http://news.kukinews.com/news/article.html?no=366944
5.05	한국암웨이, 어린이날 서울시와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개최	EBN	http://www.ebn.co.kr/news/view/829210
5.06	[포토]한국암웨이,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개최!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I71&newsid=01643286612646296&DCD=A407&OutLnkChk=Y
7.06	한국암웨이-삼양초등학교, '움직이는 창의클래스' MOU 체결	아크로팬	http://www.acrofan.com/ko-kr/detail.php?number=5912&thread=AC11
7.06	한국암웨이-삼양초등학교, '움직이는 창의클래스' MOU 체결	이뉴스투데이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0359
7.06	한국암웨이-삼양초등학교, '움직이는 창의클래스' MOU 체결	세계일보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7/06/20160706001861.html?OutUrl=naver
11.1	'육상 위험해' 아니라 '함께 어떻게 바꿔볼까?' 고민해봐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68258.html?_fr=mb2
11.23	한국암웨이, 문체부 인증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선정 지역 예술가·청년인재 후원 활동 등 인정	포커스뉴스	http://m.focus.kr/view.php?key=2016112300094542495#_enliple
11.23	한국암웨이, '2016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으로 선정	news1	http://news1.kr/articles/?2838425
11.30	게임, 어른들은 몰라요. 왜 나쁜 것만은 아닌지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2745.html hani.co.kr

5. 내외부 네트워크 & 파트너십

5-1. 마을의례

5-2. 제8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5-3. 대외 홍보사업

5-4. 하자투어

5-5 사회적 돌봄 조성을 위한 문화 허브

5-1. 하자마을의례

Profile

사업이름: 하자마을의례
대 상: 하자네트워크학교 학생, 하자마을 주민 등
진행기간: 2016년 1월 ~ 12월
참가비 여부: 없음
장 소: 하자센터 외
총 사업비: 5,926,820원
총 참여인원: 990명 (실인원)

개요

하자센터에서는 예년부터 성년식, 달맞이 축제 등 몇몇 의례들을 하자작업장학교를 중심으로 이어오고 있다.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입춘식 등 몇 가지 의례들이 추가되면서, 돌봄과 환대라는 하자의 흐름에 맞추어 우리 절기와 마을 내 일정에 맞춘 의례들을 정례화하기에 이르렀다. 하자마을의례는 마음을 모으는 형식이자 과정으로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자마을 주민으로서의 인식과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진행

날짜	의례명	내 용
3월 18일	하자마을 입춘식 '마을의 씨앗'	하자 네트워크학교 학생들과 판돌들, 사회적기업 및 허브 멤버를 비롯하여 하자를 기반으로 하거나 이웃하여 활동하고 있는 하자마을 주민들이 참여함. 한해살이 계획을 나누며, 새로운 주민을 환영하는 하자마을 주민들 간의 상견례 자리
4월 15일	하자마을 시농제	흙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작년에 갈무리 해 둔 씨앗을 나누면서 맛있는 음식과 여흥을 나누는 잔치. 하자마을의 농사 시작을 알리는 마을의례
5월 18일	하자마을 성년식	청소년기를 지내고 인생의 새로운 단계를 넘어서는 이들이 어른이 된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새겨보는 자리. 스무 살을 맞이한 하자마을의 청소년을 축복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는 의례
9월 27일	달맞이축제	가족을 떠나 먼 곳에 와 있는 이주민 노동자 등 명절에도 갈 곳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추석을 축제처럼 나들이하며 즐길 수 있는 자리 마련. 2014년도부터는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장애인노들 야학과 함께 광화문에서 개최. 내 옆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사회에 대한 의미를 함께 생각하며 한가위 소원을 비는 축제.
11월 23일~24일	김장잔치	하자마을을 비롯해 하자네트워크학교에서 진행한 도시농업 프로젝트의 수확물을 모아 결실을 나누는 자리로, 김장이라는 전통 행사를 통해 협업의 경험을 나누고, 이러한 결실을 하자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 마을 잔치
12월 18일	하자 생일잔치	하자의 성장을 지켜봐온 친구들과 주민들을 초대하여 기억을 공유하고 이후를 상상할 수 있는 마을 잔치

성과

올해도 어김없이 하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뿌리가 되어 준 마을의 어른인 촌장들을 모시고 입춘식, 성년식, 생일잔치를 열며 삶의 감각을 회복하고 성장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가졌다. 이밖에도 후쿠시마 목화를 비롯하여 각종 토종씨앗을 살리고 나누는 실험의 다양성을 점차 넓혀가고 있는 도시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잔치인 시농제,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연대를 필요로 하는 곳과 함께하는 달맞이 축제, 농사지은 배추와 무로 함께하는 김장잔치와 같은 마을의례를 통해 흙을 만지고 작물을 키우며 생명의 순환 속에 마을살이를 하는 '우리'를 다시 발견해내는 자리가 되었다.

전망

의례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상징과 상상, 그리고 기도의 자리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의미보다 기운이다. 함께 모인 자리 자체에서 나오는 기운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느끼고 만 들어가는 다짐의 자리인 것이다. 때문에 마을의례는 하자의 모토인 자공공(自公共) - 스스로 서고, 서로를 살리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공의 플랫폼 - 을 실현해 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로서 기능한다. 돈이 중심이 되는 각자도생의 생존주의 사회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를 맺기 힘들어진 지금, 서로의 기운을 느끼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감각을 회복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하자의 마을의례가 상생과 돌봄 사회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역할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

5-2. 제8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Profile

사업 이름: 제8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대상: 교육자 및 학자, 활동가, 사회적기업가, 정책 및 행정 전문가, 청(소)년 등

진행기간: 2016년 10월 14(금) ~ 10월 16일(일) / 3일간

참가방법: 온라인 / 전화 신청

참가비 여부: 없음

장소: 하자센터(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비밀기지(구 석유비축기지)

총 사업비: 금 38,031,170원

총 참여인원: 연인원 1,455명

개요

2016년으로 제8회를 맞은 서울청소년창의서밋은 매년 포럼, 워크숍,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혁신적인 국내외 교육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를 통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면서 청소년 진로교육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오고 있는 행사다. 이번 제8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라는 주제 하에 '이행X기지'라는 부제로, 저출산과 청년실업, 맹목적인 집단주의와 각자도생의 생존주의에서 벗어나 다른 삶에 대한 상상과 지혜를 함께 만들어보고자 했다.

기획

수시로 터질 위기와 재난 속에서도 용기 있는 삶을 살아내는 지혜와 생명력을 가진 청소년들을 우리는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까? 점점 극단적인 행태로 표출되는 한국사회의 분노와 적개심과 혐오심의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새로운 사회를 향한 변화의 동력으로 바꿔낼 수 있을까? 답고 싶은 인생의 선배를 갖지 못한 청(소)년들은 스스로의 길 찾기를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입시 문제에만 매달리는 한국의 경우, 근본적으로 진정한 학습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개인의 정서, 가족관계, 미디어 환경, 사회체제 등 여러 차원을 두루 살피면서, 진정한 배움이 가능한 문화와 삶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기위해 2016년도의 창의서밋에도 다양한 만남과 배움이 모여 각자의 경험과 구상을 나누고, 인식과 실천의 지평을 넓히는 자리를 기획했다.

1) 개막식/서밋대담의 구성 변화

7회까지는 '공연과 간단한 키노트 스피치'로 구성된 개막식과 별도의 서밋대담으로 구성하였으나, 8회에서는 '간단한 공연+서밋대담'으로 통합하여 운영함. 또한 강연자 중심이었던 서밋대담을 청소년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시킴. 이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며, 청소년 모객 및 논의의 질 향상을 위해 여름방학 직전부터 사전작업이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각 팀 사업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

학교/교육팀/허브의 대팀제로 운영된 2016년 사업구조를 반영하여, '이행기지'라는 전체 테마

와의 연계성보다는 각 팀의 실제 사업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함.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있었으나, 준비과정에서 혼란도 많았으므로 차년도 서밋 준비기간에는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가 이뤄져야 할 것임. 또한 각 팀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운영된 까닭에 타팀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중심의 서밋과 교육팀 중심의 진로교육포럼으로 분리 개최하는 아이디어도 제시되었음.

진행

1) 세부 프로그램별 내용 및 참여 인원

날짜	행사명	시간	장소	참가 인원	행사내용
14 일	진로교육포럼 -자유학기제, 현장의 지속가능성	11:00- 13:00	신관 203호	50명	진로교육의 홍수 속에서 제도권 학교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집중학년제 관련 진로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함
	개막공연+서밋대담1 -세상을 살리는 질문들	14:00- 17:00	신관 하하허허홀	220명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문명의 이행을 맞아, 청소년들이 미래사회의 방향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국내외 이론가/실천가들이 그 질문에 귀 기울이면서 새로운 차원의 해답을 고민하는 포맷을 실험해 봄
	전환교육포럼 -전환의 1년, 00해도 괜찮아	18:00- 21:00	본관 999클럽	70명	자유학기제, 오디세이학교를 비롯하여 전환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디세이학교 2년을 돌아보며 '전환'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고민을 나눔
	이시대교육청포럼 -세상을 살리는 첫 단추	18:00- 20:30	신관 하하허허홀	92명	우산혁명의 주역들이 '홍콩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일본의 참정권이 18세로 낮춰지는 등 청년들이 외치는 평화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난감한 세상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안함
15 일	이시대교육비청포럼 -이 풍진 세상의 희망가	10:00- 12:30	본관 999클럽	40명	대안교육을 실천해온 비청소년 세대들이, 배움과 성장이 어려워진 시대의 난감함을 공유하는 동시에 세월호의 생존학생과 형제자매들의 속내에 귀 기울이며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
	교육공간포럼 -삶의 공간으로서의 학교	10:00- 12:00	신관 203호	43명	어린이들이 자신을 둘러싼 학교 환경을 다양하게 탐색하며, 공간을 둘러싼 새로운 관계와 문화를 상상해가는 '움직이는 창의클래스' 사례 공유를 통해 학교공간의 의미, 놀이의 의미를 되묻는 시간을 가짐
	청소년워크숍1 -외로운 이행기 청소년들	10:30- 12:30	신관 하하허허홀	100명	청소년들의 다양한 이행 경험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의 해석과 응원을 나누어보는 자리
	작은달시장	11:30- 14:30	신관 중정	300명	여러 세대가 서로를 돌보며 이웃과 친구를 만나고, 재능과 재화를 나누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자 허브에서 매달 진행되는 작은달시장을 한시적 이행기지(異行基地)로서 선보임
	오픈챗	12:00-	본관	35명	학교에서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이행기, 시간을

	-나에겐 전환의 시간이 필요하다	14:00	103호		쫄개 스펙을 쌓아도 미래가 막막하기만 한 대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1년의 '틈새'를 만들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게 된 경험들을 공유하는 자리
	청소년워크숍2 -커리어워크+더하자	13:00-14:30	신관 하하허허홀	15명	커리어워크 후속모임으로 출발한 <더하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하자에 남아 무엇을 '더 하고' 싶은지, 왜 하자에 오는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서밋대담2 -공유지와 이행기 공간	14:00-16:00	본관 999클럽	80명	해외의 이행기 공간 및 국내의 '비빌기지' 사례를 살펴보고 이행기 공간의 개념에 대한 담론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공유지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이행 사례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공유함 대안 교통수단으로의 자전거가 대중화되고 있는
	청소년워크숍3 -도시에서 자전거 타기	14:00-16:00	본관 999클럽	50명	서울시에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 간단한 정비기술을 배워보는 자리
	이행파티	17:00-21:00	비빌기지	240명	국내의 대표적 이행기 공간인 '비빌기지'에서 200명의 동아시아 청소년들이 먹고 노래하고 춤추며 함께 어울리는 파티를 가짐
16 일	씨앗행동의 날	10:00-12:00	하자- 국회 앞	120명	세계식량의 날이기도 한 16일, 청소년들이 반 몬산토 법정을 응원하고 화학산업과 결합된 GMO 씨앗산업이 인류의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목소리를 내며 시민의 참여를 촉구하며 국회까지 행진함

More info

1) 영상

- 개막식 영상 <https://vimeo.com/189873352>
- 축하영상(서울시장,서울시교육감,연세대총장) <https://vimeo.com/187105670>
- 이시대교육 청포럼 영상 <https://vimeo.com/189610122>
- 이시대교육 비청포럼 영상 <https://vimeo.com/189622166>
- 비빌기지 인터뷰 영상 <https://vimeo.com/186413201>
- 창의서밋 스케치 영상 <https://vimeo.com/190968866>
- 씨앗행동의날 영상 <https://vimeo.com/190814663>

2) 사이트

- 티저 웹사이트 <http://summitteaser.haja.net/>
- 공식 웹사이트 <http://summit2016.haja.net/>

3) 기사

- 서울 청소년 삶과 일터 비전 공유...14~16일 서울청소년창의서밋/중앙일보, 16년 10월 10일
<http://news.joins.com/article/20700592>
- "청소년이 그린 미래사회는"...서울 청소년 창의 서밋/연합뉴스, 16년 10월 10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일6/10/10/0200000000AKR20161010046300004.H
TML?input=1195m](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일6/10/10/0200000000AKR20161010046300004.H
TML?input=1195m)

5-3. 2016년도 언론보도 실적

언론보도 110건

날짜	제목	매체	링크
1.11	서울하자센터, '커리어워크' 개최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111010005536
1.19	광주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9대 과제사업 추진 예정	한강타임즈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712
1.29	도시형 마을놀이터의 가능성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디자인정글	http://magazine.jungle.co.kr/designnews/daily/view_new.asp?idx=27775&cate=22&page=1&NewsNo=431328346&m_idx=&news_type=daily
2.22	하자센터, 26일 현 교육 상황 진단하는 '자공공포럼' 개최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91332
3.29	올봄 프리마켓 풍경	중앙일보	http://news.join.com/article/19800636
4.01	<총선>4집 앨범 쇼케이스 갖는 김영준 후보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60401036700004&input=1196m
4.06	"세상이 계속 좋아질 것을 믿는 문명이 수명을 다했다"	허핑턴포스트	http://www.huffingtonpost.kr/zeitgeist-korea/story_b_9615066.html
4.12	[조한혜정 칼럼] '공시생' 예나에게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39430.html
4.12	[더 나은 미래] 흥대 앞 건강 집밥... 문 닫는 이유는?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1/2016041101917.html
4.29	"부모의 전략적 양육이 오히려 아이들의 성장 막는다"	한겨레	http://babytree.hani.co.kr/457893
5.05	한국암웨이, 서울시와 함께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개최	세계일보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05/20160505001775.html?OutUrl=naver
5.05	서울 광장, 어린이날 맞아 '축제의 장' 탈바꿈	포커스뉴스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50500190211493

5.05	한국암웨이, 어린이날 서울광장서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행사	뉴스1	http://news1.kr/articles/?2654742
5.05	즐거운 집짓기	뉴시스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60505_0011661559
5.05	서울광장에서 즐기는 밧줄놀이	뉴시스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60505_0011661561
5.05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60505052500013&input=1196m
5.05	한국암웨이, 서울시와 함께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개최	쿠키뉴스	http://news.kukinews.com/news/article.html?no=366944
5.05	한국암웨이, 어린이날 서울시와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개최	EBN	http://www.ebn.co.kr/news/view/829210
5.06	[포토] 한국암웨이,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개최!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I71&newsid=01643286612646296&DCD=A407&OutLnkChk=Y
5.12	학교에선 가르쳐 주지 않은 '협업'이 빛나는 현장 하자센터 일일직업 체험교실 르포	한겨레 서울&	http://www.seouland.com/arti/society/society_general/397.html
5.12	자기 적성 미리 확인해보는 '일일 직업체험'	한겨레 서울&	http://www.seouland.com/arti/society/society_general/398.html
5.12	[조한혜정 칼럼] 모성, 그 불안과 혼돈의 자리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43231.html
5.15	나비의 날갯짓', 스승은 세상을 바꾸는 법 가르쳐줬다 교실 밖에서 만난 나의 스승 '브리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9605&utm_campaign=share_btn_click&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_share
5.19	원전을 멈추면 우리는 불행해질까?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94079
5.25	노오력'에 빠진 청년을 구하라 - 문화인류학자 조한혜정	EBS 초대석	http://www.ebs.co.kr/tv/show?prodId=7745&lectId=10515335
5.26	세월호 희생자 형제자매'와 '생존학생'의 만남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

	'1020톡톡, 토크 콘서트' 열려... "세월호 충격, 함께 아파하며 성장했으면 좋겠다"		D=A0002212571
6.07	[조한혜정 칼럼] 강남역과 구의역, 다시 신을 불러오며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47248.html
6.22	독박육아에서 돌봄육아로 썩투육아 팟캐스트 제1화 독박육아를 말한다	팟빵	http://www.podbbang.com/ch/12018
6.23	“기계처럼 공부만 하고 싶진 않아...베푸는 삶 사는 진로 꿈꿔요”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3fc127eb908b425baad830752dc22254
7.01	독박육아에서 돌봄육아로 썩투육아 팟캐스트 제2화 소비를 부르는 육아	팟빵	http://www.podbbang.com/ch/12018
7.04	나는 관계한다 고로 존재한다 돌봄과 상생	EBS 통찰	http://www.ebs.co.kr/tv/show?prodId=119794&lectId=10535477
7.05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	EBS 통찰	http://www.ebs.co.kr/tv/show?prodId=119794&lectId=10535746
7.05	[조한혜정 칼럼] 즐겁게 살자, 체대로 소환하며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51074.html#csidxc45d6426133f64aa6236eb6e1526ac2
7.06	한국암웨이-삼양초등학교, '움직이는 창의클래스' MOU 체결	아크로팬	http://www.acrofan.com/ko-kr/detail.php?number=5912&thread=AC11
7.06	한국암웨이-삼양초등학교, '움직이는 창의클래스' MOU 체결	이뉴스투 데이	http://www.ewe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0359
7.06	한국암웨이-삼양초등학교, '움직이는 창의클래스' MOU 체결	세계일보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7/06/20160706001861.html?OutUrl=naver
7.13	독박육아에서 돌봄육아로 썩투육아 팟캐스트 제3화 무상보육과 독박육아	팟빵	http://www.podbbang.com/ch/12018
7.15	독박육아에서 돌봄육아로 썩투육아 팟캐스트 제4화 우리 아이 젠더 감수성	팟빵	http://www.podbbang.com/ch/12018
7.21	독박육아에서 돌봄육아로 썩투육아 팟캐스트 제5화 애 낳은 여자 재미없다?	팟빵	http://www.podbbang.com/ch/12018
7.29	독박육아에서 돌봄육아로	팟빵	http://www.podbbang.com/ch/12018

	썰투육아 팟캐스트 제6화 놀아주기에서 같이 놀기로		18
8.02	밥벌어먹기 힘들다는 청년예술인의 역발상 [청년이 청년에게 ④]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000간(공공공간)' 신윤희·홍성재 대표	정책브리 핑 다정다감	http://reporter.korea.kr/newsView.do?nid=148819036
8.02	[조한혜정 칼럼] 탈석유 시대 비축기지와 비밀 기지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54884.html
8.06	독박육아에서 돌봄육아로 썰투육아 팟캐스트 제7화 엄마라서 행복해요	팟빵	http://www.podbbang.com/ch/12018
8.18	서울 노원구에 '청소년직업센터' 건립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17_0014330159&cID=10201&pID=10200
8.18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설립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71&newsid=01649846612748632&DCD=A00707&OutLnkChk=Y
8.19	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관리계획 변경 결정	국제뉴스	http://www.gukj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7748
8.19	자전거 환경적·경제적 효과, 상상을 뛰어넘다 박정규 <자전거 타는 남자, 버스 타는 여자> 저자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0156&ref=nav_search
8.21	물놀이 즐기며 더위 날려줄 야시장 열린다... 서울 영등포구, 26일 '달시장' 개최	아주경제	http://www.ajunews.com/view/20160821132923017
8.22	영등포구, '영등포 달시장' 개최	환경일보	http://www.hkbs.co.kr/?m=bbs&bid=envplus4&uid=402201
8.22	영등포구, 야(夜)시장 '영등포 달시장' 26일 개장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22_0014338982&cID=10201&pID=10200
8.22	물놀이 즐기는 특별한 야시장	야경e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82206114860731
8.23	영등포구, 물놀이 즐기는 특별한 야시장으로 오세요	일요신문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98403

8.27	독박육아에서 돌봄육아로 쌍투육아 팟캐스트 제8화 육아대디, 비로서 보이는 것들	팟빵	http://www.podbbang.com/ch/12018
8.30	[조한혜정 칼럼] 저출산은 문제가 아니라 질문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59134.html
9.02	독박육아에서 돌봄육아로 쌍투육아 팟캐스트 제9화 육아의 깔대기는? 기승전 '공동체'	팟빵	http://www.podbbang.com/ch/12018
9.05	서울시, 노원구에 시립 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뉴스1	http://news1.kr/articles/?2765656
9.05	달뜨면 모여요! '달시장'으로	tbs 교통방송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R&seq_800=10171885
9.06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에 '시립 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일요신문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01009
9.23	배움,나눔,교류, 활동의 장, 모두 갖춘 하자센터: 하자센터 청소년운영위 '시유공'과 함께한 하루	옥천신문 제1354 호	https://www.okinews.com
9.23	청소년 진로교육 넘어 즐거운 마을 공동체를 꿈꾼다 : '우리 삶을 스스로 업그레이드 하자' 하자센터가 꿈꾸는 공유와 확산의 가치	옥천신문 제1354 호	https://www.okinews.com
9.27	[조한혜정 칼럼] 다음 침공은 어디?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63023.html
9.28	영등포구, 올해 마지막 달시장 30일 개최	매일일보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255797
9.28	포구,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판매·홍보 지원 마을장터 개최육아 지친 엄마들 위한 '달시장' 열려	한강타임즈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670
9.28	영등포구, '엄마 달시장' 개최	환경일보	http://www.hkbs.co.kr/?m=bbs&bid=envplus4&uid=405239
9.28	올해 마지막 '영등포구 달시장' 30일 열여	신아일보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1091
9.29	서귀포시장장애인부모회 '장애예술교육센터'추진 30일~10월2일 열리는 제3회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read.php3?aid=1475126734547412048

평화축제 부스 참여			
9.29	영등포구, 올해의 마지막 달시장은 '엄마 달시장'	일요신문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05159
10.06	[제1회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 우리 지역 수상자 _ 문래중학교 정동욱 교사]“마을결합형 진로체험활동으로 학생들의 잠재력 찾아내요”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12073
10.08	[학교밖청소년③] "뭘 먹고 살거니"...미래에 주눅 든 아이들	뉴스1	http://news1.kr/articles/?2796152
10.08	"괴물은 악인이 아닌, 불안에 숨어 있다"	프레스이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2324
10.10	"청소년이 그린 미래사회는"...서울 청소년 창의서밋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0/0200000000AKR20161010046300004.HTML?input=1195m
10.10	서울 청소년 삶과 일터 비전 공유...14~16일 서울청소년창의서밋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010_0014439012&cID=10201&pID=10200
10.10	서울 청소년 삶·일터 비전 공유...14~16일 창의서밋	tbs 교통방송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7&seq_800=10178617
10.10	청소년이 보는 인공지능시대...14~16일 서울청소년창의서밋	뉴스1	http://news1.kr/articles/?2797092
10.10	환경TV 오늘의 주요 환경·에너지·LIFE 뉴스	환경tv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7845
10.10	'제8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개최'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 주제 진행	동양뉴스 통신	http://www.dy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988
10.10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 '서울청소년 창의서밋' 서울시, 14일(금)~16일(일) 하자센터에서 '서울청소년창의서밋' 개최	코리아모 닝포스트	http://www.km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4
10.10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 '서울청소년 창의서밋' 서울시, 14일(금)~16일(일) 하자센터에서	석간새서 울뉴스	http://www.qr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33

	‘서울청소년창의서밋’ 개최		
10.10	‘서울청소년창의서밋’ 개최	불교공뉴스	http://www.bzer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991
10.10	서울 청소년 삶과 일터 비전 공유...14~16일 서울청소년창의서밋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0700592
10.11	서울시, '제8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개최	국제뉴스	http://www.gukj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9422
10.11	하자센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 ‘제8회 서울청소년 창의서밋’ 개최	뉴스와이어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36870
10.11	하자센터, ‘제8회 서울청소년 창의서밋’ 14일부터 개최 예정	에듀데일리	http://www.edudaily.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83&no=17627
10.11	서울시, '제8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개최	뉴스zum	http://news.zum.com/articles/33532705?c=02
10.12	하자센터 '제8회 서울청소년 창의서밋' 개최 구 석유비축기지서 다양한 시민참여형 행사 마련	아띠참신문	http://www.atticha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39
10.18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열심히 일하는가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498.html
10.19	하자센터, ‘세상을 살리는 질문’으로 시작한 제8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성황리에 끝마쳐	데일리뉴스	http://www.idailynews.co.kr/news/article.html?no=22951
10.25	[조한혜정 칼럼] 송복 선생님께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67276.html
10.31	"힘든 인간관계보단 나홀로"...'관태기'에 지친 사람들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30/0200000000AKR20161030046700033.HTML?input=1195m
11.01	‘육상 위험해’ 아니라 ‘함께 어떻게 바꿔볼까?’ 고민해봐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68258.html?_fr=mb2
11.02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개관주간...“구경오세요”	광주드림	http://www.gi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76405
11.23	한국암웨이, 문체부 인증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선정 지역 예술가·청년인재 후원	포커스뉴스	http://m.focus.kr/view.php?key=2016112300094542495#_enliple

활동 등 인정			
11.06	청소년삶디자인센터 개관의 의미	광주 매일 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478428880392673028
11.01	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 개원 기념 심포지엄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649
11.02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3일 개관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478082695245608006
11.02	청소년삶디자인센터 개관 D-1...“기대 반, 우려 반”	광주드림	http://www.gi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76403
11.02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3일 개관	광주드림	http://www.gi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76401
11.03	광주시,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3일 개관	cnb news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336976
11.18	박형주 삶디자인센터장 “청소년에게 잃어버린 공간·관계 돌려줘야”	광주드림	http://www.gi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76736
11.18	청소년삶디자인센터...배움의 ‘실험실’로	광주드림	http://www.gi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76737
11.22	[조한혜정 칼럼] 천천히 그리고 즐겁게!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71494.html
11.23	한국암웨이, '2016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으로 선정	news1	http://news1.kr/articles/?2838425
11.23	마음에 불지른 영등포 소녀들	sbs 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901817&link=THUMB&cooper=SUBUSU MAIN
11.23	은평구 불광천에서 목화 심기 생태교육 실시	환경미디어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4567037039
11.25.	[청소년신문] 청소년기자단, 광주 삶디자인센터 탐방	광주드림	http://www.gi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76870
11.30.	청소년 삶디자인센터, 다양한 교육공간으로 인기	시민의소리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83788

12.01	무상복지 이어 기본소득?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736.html
12.01	기본소득이 뭐예요? 청소년이 묻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72790.html
12.01	놀토 체험 프로그램으로 다가오는 겨울 미리 준비하자	위클리서울	http://www.weeklyseoul.net/news/articleView.html?idxno=35228
12.04	학교 밖 교실도 소중한 학습의 장이다	전북일보	https://1boon.kakao.com/bookclub/WaelGhonimTed

5-4. 2015년 하자투어 실적

1) 정기투어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월 1회, 총 12회)

1월 21일	2월 25일	3월 24일	4월 21일	5월 26일	6월 23일
7월 21일	8월 25일	9월 22일	10월 20일	11월 24일	12월 22일

2) 비정기 투어 (상시, 70건)

3) 연인원: 1,126명

4) 세부일정 및 참여자

No	일자	정기/ 비정기	참여자 / 참여단체	참가인원
1	1.21	비정기	강원도 홍천 파렬중학교 교사	10
2	1.16	비정기	풀무학교 고등과정 3학년 학생	15
3	1.21	정기	일반인 5명	5
4	1.28	비정기	나자렛 수녀원 수녀, 성동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지도사	14
5	1.29	비정기	순천시청 도시재생과 공무원	7
6	2.25	정기	일반인 1명	1
7	3.3	비정기	일본 국제교류기금	3
8	3.3	비정기	부산문화재단	2
9	3.10	비정기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팀	2
10	3.11	비정기	홍콩 구세군	26
11	3.24	비정기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지도자	15
12	3.24	정기	경기도 시흥 거모종합사회복지관, 대학생 3명, 살레미오미래교육원, 일반인 2명	15
13	3.25	비정기	연세대학교 국문과 외국인 교환학생	8
14	3.29	비정기	마성고등학교 교사	2
15	3.30	비정기	일본 오사카 core+ 교육단체원	11
16	4.8	비정기	서울시립 근로청소년 복지관	5
17	4.21	정기	대구교육연구정보원, 일반인 3명, 대학원생 1명, 인천 에코센터 재활용체험방, 서울문화재단 서서울 예술교육센터	24
18	4.21	비정기	제주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지도사	15
19	4.26	비정기	문탁네트워크 파지스쿨	6
20	5.4	비정기	원불교 청소년국	12

21	5.5	비정기	하와이 전통문화전문가	3
22	5.9	비정기	영등포혁신교육지구 자치분과 교사	2
23	5.12	비정기	YWCA 방과후학교 팀 청소년 지도사	5
24	5.20	비정기	한신대학교 대학생	7
25	5.25	비정기	미국 Western Kentucky University 교수진	5
26	6.2	비정기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삿포로 오타니 대학교 오카베 교수	2
27	6.3	비정기	대구 북구여성회 회원	8
28	6.4	비정기	제주 남원초등학교 교사	14
29	6.4	비정기	고리울 청소년 문화의집 활동가	1
30	6.8	비정기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7
31	6.11	비정기	상명대 <청소년문제와 보호> 학생	18
32	6.15	비정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교류센터 멕시코 대표단	14
33	6.16	비정기	서울 YMCA 중학생	20
34	6.22	비정기	미국 Boston 대학교 학생	1
35	6.23	정기	충주차문화교육원, 일반인1명,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영등포구청 일자리정책과, 양산YMCA 대학생 5명, 활동가 1명	12
36	6.28	비정기	전라북도 진안교육청 초중고 교장선생님, 장학사님	35
37	7.2	비정기	홍콩 사회복지기관 Caritas 청소년	60
38	7.5	비정기	인천 관교여자중학교 교사동아리	21
39	7.8	비정기	광주 삶디자인 센터	4
40	7.13	비정기	홍콩 Student Christian Movement 학생	10
41	7.15	비정기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마을주민	11
42	7.16	비정기	파주도시농부학교 학생들	10
43	7.19	비정기	제주 청년허브 준비모임	11
44	7.21	비정기	온빛중학교 자유학기제 동아리 선생님	11
45	7.21	정기	디자이너, 대안교육학생, 대학생, 중학생, 자유학기제 교사동아리, 학부모	16
46	7.27	비정기	교육청 교사직무연수 장학사	43
47	7.28	비정기	부산사회복지사, 공무원	8

48	7.30	비정기	대구시 마을공동체 '걸크러쉬'	4
49	7.30	비정기	일본 아쇼카 유스벤처 담당자, 유스벤처 대학생	4
50	8.4	비정기	중국 Shenzhen youth federation	10
51	8.6	비정기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학생	19
52	8.10	비정기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모두의 학교	7
53	8.10	비정기	UNESCO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한중일 대학생 세계시민교육 정책 리더십 대회 참가 청년들	11
54	8.12	비정기	경남 대안교육 TF 정광필 교수님 외	10
55	8.12	비정기	오사카시립대학 전홍규 교수님, 대학원생, 도시연구플라자 스태프	10
56	8.19	비정기	중국 사회적기업 지원재단 Ginko 사회 활동가	17
57	8.23	비정기	태국 아동친화형 마을 사업단 1	35
58	8.25	정기	호기심 연구소, 대안학교 관심 가족, 학생, 중학생, 일반인	12
59	8.26	비정기	일본 프리스쿨 for life	1
60	8.30	비정기	태국 아동친화형 마을 사업단 2 , 새날이오면 학생	39
61	8.31	비정기	옥천신문사 기자	1
62	8.31	비정기	금천시 마을공동체 주민	15
63	9.3	비정기	옥천지역 청소년 방문, 옥천신문사	26
64	9.8	비정기	홍콩복지기관 Evangelical Lutheran Church Social service	17
65	9.12	비정기	홍콩 Carbon Care Asia Limited CEO Albert Lai, 연구원	2
66	9.22	정기	학부모, 학생, 교육종사자, 일반인	5
67	9.23	비정기	와세다대학 교육대학원 학생 및 연구원	12
68	9.27	비정기	울주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4
69	9.27	비정기	광주 광산구 청소년 문화의집 야호센터	5
70	10.13	비정기	홍콩 노게센터 청소년	27
71	10.15	비정기	삼양초등학교 학생, 디자인어스(서울시립대) 2인	12
72	10.18	비정기	하자허브 엄마밥상 엄마들	10

73	10.20	정기	학부모 2명, 활동가, 초등학생,시흥시 평생교육원 교육청소년과, 기수지 아름다운 배움, 일반인, 대학생 2명	14
74	10.25	비정기	UNESCO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한중일 대학생 세계시민교육 정책 리더십 대회 참가 청년들	5
75	10.26	비정기	꿈틀리학교 학생	30
65	11.4	비정기	서울시립대학교 교육학의 이해 수강 대학생 8명	8
66	11.5	비정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조규수, 뉴욕대 동아시아학과 조교수	2
67	11.15	비정기	서울대 사회적기업 수업 조모임 학생	4
68	11.17	비정기	개운중학교 교장	1
69	11.18	비정기	전주공고 청소년, ymca 지도교사	5
70	11.19	비정기	임실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8
71	11.23	비정기	서울시마을공동체 주민모임연합사업 영등포동 주민모임	12
72	11.24	정기	청소년지도사, 부산진아이쿱생협 활동가,대구청소년창의센터,청소년 지도사 준비자, 청년	10
73	11.26	비정기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	7
74	12.1	비정기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장학사 및 장학관	7
75	12.13	비정기	제주도 학생건강증진센터 소아정신과의사/임상전문가/상담사 12명	12
76	12.16	비정기	철원 교육지원청 자유학기제 교감, 교무부장, 담임	25
77	12.20	비정기	부산사상구청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가	6
78	12.20	비정기	창원시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지도사	12
79	12.22	비정기	강원진로교육원 교육연구사 및 진로체험담당자	34
80	12.22	정기	대안교육 진학 예정 학생 4, 청소년1, 학부모 5, 멘토 1	11
81	12.23	비정기	포항시 청소년정책참여위원회 청소년	15
82	12.27	비정기	남원교육지원청 장학사	26

5-5. 사회적 돌봄 조성을 위한 문화 허브 사업

- (사)또 하나의 문화 컨소시엄

Profile

사업 이름: 사회적 돌봄 조성을 위한 문화 허브 사업

대상: 어린이, 청소년, 육아당사자 등 '돌봄 공동체' 형성에 주요 대상 및 주체

진행기간: 2016년 3월 ~ 11월

장소: 서울(영등포구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중심으로)

컨소시엄 단체: (사)또하나의문화

총 사업비: 36,260,000원

개요

이 사업은 한국형 마더센터를 염두에 두고, 공공 공간이 육아 당사자들의 요구에 맞게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는 목적으로 설립 초기부터 (사)또하나의문화와 협력 관계에 있으며 세대 간 교류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하자센터(서울 리프청소년직업체험센터) 공간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사회적 돌봄 조성을 위한 문화 허브"의 5개 사업 진행에 관한 사업비는 하자센터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용되었으며, 하자센터의 녹음실, 워크룸, 커뮤니티 카페 등에서 자유롭게 사업이 진행되었다. 하자센터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홍보, 인력, 자원 등 많은 투입되었다. (사)또하나의 문화는 여성주의적 관점에 기반한 사업내용을 위해 기획과 행사 진행에 참여하였으며, 행정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기획

정부는 출산 장려 명목으로 지난 10년간 80조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지만, 출산율을 연일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 무상보육시 대라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보육대란', 연일 CCTV를 통해 폭로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등 육아당사자들의 불안은 깊어지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져나간 '맘충(엄마와 벌레의 합성어)이라는 신조어의 등장, 영유아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 존No Kids Zone' 등 주로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을 비롯하여 미래세대라고 할 수 있는 영유아에 대한 차가운 시선이 공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201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52.6%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항목에 동의하였으며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여학생은 28.7%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결혼 생활과 학업 또는 일에서의 성취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일"로 인지하고 있어, 만혼과 저출산이 더욱 고착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보여주었다.

가족 구조의 다양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의 변화의 속에서 가족 내에서도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돌볼 수 있는 인구는 점차 줄어드는 위기의식 또한 생겨났다. 이와 같은 돌봄의 위기에 대해 여성주의는 복지(welfare)가 아니라 사회적 돌봄

(social care)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였다. 즉 그간의 국가 중심적 시혜적 복지 제도가 아닌, 그동안 비공식적·사적 영역에 국한되어 이루어져 왔던 여성의 돌봄 경험과 관점을 살려, 새로운 형태의 돌봄공동체를 디자인하고 (design for community living), 사회를 재편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비공식 영역에서 여성들이 담당해온 미지불·저임금의 노동인 돌봄노동을 가시화하고, 그간 돌봄 영역에서 소외된 남성들을 돌봄노동에 참여시키며, 정규직/비정규직·공식/비공식의 이분법을 넘어서서 모든 것이 화폐화된 노동으로만 환원되지 않는, 공동체 중심으로 돌봄을 수행하는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이는 사실상 근대사회적 삶의 양태를 바꾸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따라서 돌봄공동체 형성을 통해 돌봄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여성주의 인식은 남녀노소 모두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발전, 대안적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성 주류화의 주요 실천과정과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조혜정, 2006)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성상 돌봄 공동체로서 상호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지역기반 공유 공간의 확보가 어렵고, 동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주체 형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원화 할 수 있는 공유된 사회 공간(다양한 동맹체들을 접속시킨 것은 공유된 언어가 아니라 공유된 사회공간이었다, 마거릿 콘, 래디컬 스페이스, 장문석 옮김, 삼천리, 2013)을 중심으로 주체를 발굴하고 활동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특히, 무연사회에서 '1인 자녀'로 성장하고 있는 미래세대에게 또래(언니 오빠/형 누나 포함) 간 사회적 관계 경험이 중요해졌다. 미래세대의 '돌봄공동체'의 경험은 양성평등한 돌봄사회로 나아가는 사회적 조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사업은 '자원화 할 수 있는 공유된 사회 공간'이자 세대 간 교류를 실험 중인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에 기반하여 실행하였다. 특히 독일의 '마더센터(이후에는 EU의 '여러세대의 집' 사업에 참여하기도 함)*에 주목하고, 한국형 마더센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였다.

*마더센터는 독일에서 1980년에 처음 시작되었는데 풀뿌리 여성운동의 결과물로, 처음에 가족부에서 3개 모델센터를 지원하고, 사례집 발간 후 바이러스처럼 퍼져서 현재 유럽, 아프리카, 북미 포함하여 700여개의 마더센터가 설립됨. 마더센터는 지역사회와 함께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주민조직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람들이 모여서 해체된 사회적 관계망을 새로 짜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마더센터가 이 공간을 제공함. 주민관계를 새롭게 만들고 '아이 하나 키우는 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개념을 확산시키고 가족, 이웃, 커뮤니티 관계를 재건하는데 초점을 두어 세대간, 이주민과 국적이탈자, 서로 다른 인종을 가진 가족들 간에 서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1) 추진내용 및 방법

문화 활동을 중심으로 ①품앗이 육아를 위한 자조모임, ②도시형 다세대 돌봄캠프, ③'나홀로 육아 당사자 경험 공유회 '씽투 다이닝', ④'워킹맘'을 위한 팟캐스트 <씽투 육아>, ⑤아빠와 함께하는 품앗이 육아 총 5개 사업을 구성하여 진행

2) 추진 전략

세대 간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하자센터(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자원화 할 수 있는 공유된 사회적 공간'으로 바라보며, 사회적 돌봄 조성을 위한 문화 활동을 펼침. 육아 휴직이나 경력 단절 등을 경험한 육아당사자들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자조모임을 조직하거나 '팟캐스트' 등을 진행하고, 자녀와 남편 등 가족들과 함께 캠프나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느슨한 '돌봄의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상호관계망을 형성.

진행

1) 품앗이 육아를 위한 자조모임

-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심있는 당사자 자조모임 비정기 진행 : 2가구 4명, 총 18회 진행 (총 81명)
- 함께 둘러앉은 '엄마밥상' 매주 화요일 주 1회 진행 : 평균 15가구 30여명, 총17회 진행 (총 135명)
- 오순도순 책임기모임 매주 화요일 주 1회 진행: 평균 5가구 10여명, 총9회차 진행 (총 84명)

2) 도시형 다세대 돌봄캠프

- 다세대 돌봄 캠프 <사피엔스> 2박 3일 개최 : 어린이청소년 참가자 29명, 성인 참가자 12명, 전문 강사 3명, 청년 활동가 6명, 스테프 12명. (총 62명)

3) '나홀로' 육아 당사자 경험 공유회 '씽투 다이닝'

- 자녀와 함께 하는 즐거운 밥상 '씽투 다이닝' 월 1회 총 5회 개최 : 평균 15가구 지속 참여, 영유아 및 성인 총 405 명

4) '육아와 일' 주제 팟캐스트 <씽투 육아>

- 팟캐스트 총 10회 업로드 : 팟캐스트 팀(PD 1인, 출연진 3인, 스텝 2인, 게스트 7명) 10회 진행, 총72명
- 팟캐스트 월별 다운로드 수 : 6월 234회, 7월 1,652회, 8월 7,738회, 9월 6,253회, 10월 4,636회, 11월 6,650회, 12 월 1,202회, 총 28,365명

5) 아빠와 함께 하는 품앗이 육아

- 하자센터 작은 달시장 7월~10월 총 3회 : 매월 평균 200여 명 참여. 워크숍은 열린 형태로 진행되어 별도 참여 인원 집계 어려움

성찰과 전망

도시화·개인화로 인한 사회적 유대 관계 약화되고 육아 정보의 전문화와 돌봄의 서비스 시장화로 육아당사자가 학습하고 선택 과 판단해야할 몫이 커졌으며, 미세먼지와 가슴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위험사회에서 육아 문제를 정부 정책이나 서비스 시장에 의존하기 어려움. 이에 사회적 관계 회복 속에서 돌봄 문화를 조성하여 육아 환경을 바꾸어 나가려는 것이 이 사업의 특징적인 목적임

육아 서비스 환경에 익숙해진 몸을 가진 육아 당사자들은 사업 전반에서 상호 존중과 환대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관계에서 공공적인 돌봄에 참여하는 방식에 신선한 문화적 충격을 표현함.

'돌봄'에 가치를 두고 기획한 캠프활동, 소셜 다이닝 형태의 '씽투다이닝', 자녀들과 함께 하는 노래 워크숍과 같은 문화 행사는 4-5명 규모의 자조모임이나 작당모임과 같은 지속적인 커뮤니티로 이어지면서 상호 돌봄을 실천하는 단위가 형성됨. 또한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들이 팟캐스트 청취자 후 씽투다이닝에 참여하면서, 팟캐스트 시즌 2 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이번 사업에도 자신의 경력을 바탕으로 동영상 제작이나 자료집 편집 디자인 작업에 참여함. 팟캐스트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들의 사회 재진출의 가능성을 봄.

돈으로만 사야했던 다양한 체험과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는 공공적인 공간에서 안정감있게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자녀들과 함께 놀이, 학습, 등 다양한 돌봄 문화를 접하도록 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가 중심적인 시혜적 복지제도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돌봄 공동체로 사회 재편에 대한 가능성을 재확인. 또한 부모에게 지워지는 양육책임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만혼화와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지역사회가 가족구조의 변화나 가족의 욕구에 유연하게 반응하고 재구성하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여러 부담을 나누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당면 과제임을 이번 사업을 통해 재확인 함.